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세부계획 수립 연구

2022.03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제 출 문

인천광역시 귀하

귀 시에서 의뢰한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세부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사장 김 학 모

목 차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세부계획 수립 연구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3. 연구범위 ····· 5
4. 연구내용 ····· 5
5. 연구방법 ····· 8
6. 연구추진계획 ····· 9

Ⅱ. 기초현황 및 여건분석

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현황 ····· 12
2. 검단지역 발굴유물 현황 ····· 17
3. 국내외 박물관 사례조사 ····· 22
   - 3.1 기본방향 ····· 22
   - 3.2 해외박물관 사례조사 ····· 31
4. 건립방향 ····· 35
   - 4.1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 35
   - 4.2 외부공간 연계 ····· 37
5. 전시연출방안 ····· 38
6. 타깃분석 ····· 43

Ⅲ. 전시기본계획

1. 전시기본방향 ····· 47
   - 1.1 검단신도시 박물관 비전과 미션 ····· 47
   - 1.2 추진전략 ····· 47
   - 1.3 전시콘텐츠 구축방향 ····· 51
   - 1.4 전시 스토리라인 ····· 53
2. 상설전시 기본계획 ····· 54
   - 2.1 선사·고대관 ····· 54
   - 2.2 중·근세관 ····· 77
3. 유구전시관 기본계획 ····· 95
   - 3.1 전시개요 ····· 95

3.2 유구전시관 전시연출 ····· 101
4. 기획전시 기본계획 ····· 105
5. 야외전시 기본계획 ····· 109
5.1 전시개요 ····· 109
5.2 야외전시유구 ····· 110
5.3 야외전시 구성(안) ····· 113
6. 특별전시 기본계획 ····· 123
6.1 어린이체험관 ····· 123
6.2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124
6.3 영상관 ····· 127

Ⅳ. 운영기본계획

1. 전시운영방안 ····· 133
1.1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구성 ····· 133
1.2 중장기 전시계획 ····· 136
1.3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 및 소장 가능한 전시 소장품 현황조사 ····· 137
2. 교육·체험 프로그램 ····· 145
2.1 교육프로그램 기본방향 ····· 145
2.2 교육프로그램 사례 ····· 149
2.3 교육 프로그램(안) ····· 153
3. 온라인 전시 ····· 165
3.1 온라인 전시현황 ····· 165
3.2 온라인 전시사례 ····· 165
3.3 온라인 전시콘텐츠 구축 ····· 169
3.4 메타버스 뮤지엄 개관 ····· 172
4. 검단선사박물관 활용방안 ····· 173
4.1 검단선사박물관 유물 이전 방안 및 전시 활용방안 ····· 173
4.2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 이전 전시 활용방안 ····· 175
4.3 검단선사박물관 건물 향후 활용 및 운영방안 ····· 177
5. 조사연구 계획 및 국내·외 교류방안 ····· 183
5.1 소장품 수집 및 관리방안 연구계획 ····· 183
5.2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아카이브 구축계획 ····· 186
5.3 국내외 교류방안 ····· 197
6. 검단신도시박물관 MI(안) ····· 202
7. '특별전시'추가인력산정(안) ····· 205
8. 전시공사 로드맵 ····· 209

표 목 차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세부계획 수립 연구

[표Ⅰ-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개요 ····· 3
[표Ⅱ-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절차 ····· 41
[표Ⅱ-2] 검단신도시박물관 공간구성과 면적 (※ 2022. 3월 기준, 연면적 15,000㎡ 기준) ····· 51
[표Ⅱ-3] 검단신도시박물관 공간구성과 면적 (연면적 10,000㎡ 기준) ····· 61
[표Ⅱ-4] 인천 검단지역 출토유물 (2021-01-14기준) ····· 71
[표Ⅱ-5] 신석기시대 유적 현황 ····· 71
[표Ⅱ-6]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 ····· 81
[표Ⅱ-7] 원삼국~삼국시대 유적 현황 ····· 91
[표Ⅱ-8] 통일신라시대 유적 현황 ····· 91
[표Ⅱ-9] 고려·조선시대 유적 현황 ····· 02
[표Ⅱ-10] 시흥오이도박물관 개요 ····· 22
[표Ⅱ-11] 시흥오이도박물관 전시구성 ····· 32
[표Ⅱ-12] 시흥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시연출 ····· 42
[표Ⅱ-13] 전곡선사박물관 개요 ····· 52
[표Ⅱ-14] 전곡선사박물관 전시구성 ····· 62
[표Ⅱ-15]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 전시구성 ····· 72
[표Ⅱ-16] 하남역사박물관 전시구성 ····· 92
[표Ⅱ-17] 켐니츠 박물관 개요 및 전시구성 ····· 13
[표Ⅱ-18] 스위스 국립 고고학 박물관 개요 및 전시구성 ····· 23
[표Ⅱ-19] 포르투갈 NCAR 고고학센터 개요 및 전시구성 ····· 33
[표Ⅱ-20] 복합매체를 활용한 전시연출 사례 ····· 83
[표Ⅱ-21] 박물관 디지털 기술도입 사례 ····· 93
[표Ⅱ-22] 전시디스플레이 가이드라인 ····· 04
[표Ⅱ-23] 검단신도시박물관 타깃별 전시 ····· 34
[표Ⅲ-1] 박물관 트렌드 변화 ····· 84
[표Ⅲ-2] 선사·고대관 전시구성 ····· 45
[표Ⅲ-3] 중·근세관 전시구성 ····· 77
[표Ⅲ-4] Ⅱ-1지점 A구역 발굴 현황 ····· 69
[표Ⅲ-5] Ⅱ-1지점 A구역 발굴유물 ····· 79
[표Ⅲ-6] 2-5지점 발굴 현황 ····· 89
[표Ⅲ-7] 2-5지점 발굴유물 ····· 99
[표Ⅲ-8] 기획전시 프로그램 제안 ····· 06
[표Ⅲ-9] 문화재청 유적보존조치 유구 ····· 10

[표Ⅲ-10] 검단신도시박물관 야외전시 유구 이전설치 ····· 41
[표Ⅲ-11] 검단신도시박물관 야외전시면적 ····· 45
[표Ⅲ-12] 전시유형에 따른 유구보호시설 ····· 48
[표Ⅲ-13] 캐노피형 유구보호시설 ····· 49
[표Ⅲ-14]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사례 ····· 49
[표Ⅲ-15] 매장문화재 관련법규 ····· 51
[표Ⅲ-16] 캐노피관련 건축법 ····· 52
[표Ⅲ-17]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 53
[표Ⅲ-18]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스튜디오 프로그램 ····· 61
[표Ⅳ-1]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구성 ····· 63
[표Ⅳ-2] 상설전시운영 ····· 63
[표Ⅳ-3] 상설전시구성 ····· 64
[표Ⅳ-4] 기획전시운영 ····· 64
[표Ⅳ-5] 기획전시 구성안 ····· 65
[표Ⅳ-6] 특별전시운영 ····· 65
[표Ⅳ-7] 검단신도시박물관 중장기 전시계획 ····· 66
[표Ⅳ-8] 검단지역 주요 발굴유물 목록 ····· 67
[표Ⅳ-9] 검단선사박물관 이관유물 목록 ····· 69
[표Ⅳ-10] 복제 및 대여가 필요한 유물목록 ····· 72
[표Ⅳ-11]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중 사회 분야 일부 ····· 74
[표Ⅳ-12] 검단 메타버스 프로그램 ····· 75
[표Ⅳ-13]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박물관 여행 프로그램 구성 ····· 76
[표Ⅳ-14] 검단 박물관 대학 프로그램 구성 ····· 76
[표Ⅳ-15] 전통소재 체험 프로그램 구성 ····· 76
[표Ⅳ-16] 아는 만큼 보이는 우리동네 프로그램 구성 ····· 76
[표Ⅳ-17]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유형 ····· 76
[표Ⅳ-18] 검단신도시박물관 온라인 전시 브리프 ····· 77
[표Ⅳ-19] 검단선사박물관 개요 ····· 78
[표Ⅳ-20]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물 현황 ····· 79
[표Ⅳ-21]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2020년, 통계청) ····· 81
[표Ⅳ-22] 개방형 수장고의 종류 ····· 84
[표Ⅳ-23] 아카이브 자료관리 절차 ····· 87
[표Ⅳ-24] 서울역사아카이브 자료현황(2021.11.16.) ····· 91
[표Ⅳ-25] 특별전시관 ····· 95
[표Ⅳ-26] 어린이체험관 운영사례 ····· 95
[표Ⅳ-27]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인력 사례 ····· 96

그 림 목 차

[그림Ⅰ-1]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연출 세부계획 연구방법 ····· 8
[그림Ⅰ-2]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연출 세부계획 연구추진체계 ····· 9
[그림Ⅱ-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위치와 조감도 ····· 31
[그림Ⅱ-2] 검단 발굴유물 ····· 12
[그림Ⅱ-3] 전곡선사박물관 전시실 ····· 62
[그림Ⅱ-4]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구상 ····· 53
[그림Ⅱ-5] 어린이체험관 공간제안 ····· 24
[그림Ⅲ-1] 검단신도시박물관 비전과 미션 ····· 74
[그림Ⅲ-2] 박물관의 디지털매체 활용사례 ····· 84
[그림Ⅲ-3] 박물관 협업사례 ····· 94
[그림Ⅲ-4] 박물관의 애플리케이션 사례 ····· 05
[그림Ⅲ-5] 박물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15
[그림Ⅲ-6] 박물관의 무장애전시환경 사례 ····· 15
[그림Ⅲ-7] 역사적사고의 체험화 과정 ····· 25
[그림Ⅲ-8] 감성중심의 검단신도시박물관 ····· 25
[그림Ⅲ-9]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 스토리라인 ····· 35
[그림Ⅲ-10] 유구전시관 배치도 ····· 12
[그림Ⅲ-11] 유구전시관 연출안 ····· 12
[그림Ⅲ-12] 미트리신전 재건 ····· 14
[그림Ⅲ-13] 공평도시유적전시관 ····· 14
[그림Ⅲ-14]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기획전시운영방안 ····· 15
[그림Ⅲ-15] 종로 시전행랑 유구보존사례 ····· 13
[그림Ⅲ-16] 암사동 유적 보호각 ····· 14
[그림Ⅲ-17] 유구보호시설 트렌드 ····· 14
[그림Ⅲ-18] 야외전시 공간구성 ····· 16
[그림Ⅲ-19] 야외전시 유구배치도 ····· 17
[그림Ⅲ-20] 야외전시 연출이미지(안) ····· 17
[그림Ⅲ-21] 야외전시 유구보호시설 제안 ····· 19
[그림Ⅲ-22] 메이커스페이스 전시기본방향 ····· 21
[그림Ⅲ-23] 메이커스페이스 전시목적 ····· 21
[그림Ⅲ-24] 디지털 미디어 연출 ····· 17
[그림Ⅲ-25] 박물관 전시 인트로 영상 사례 ····· 18
[그림Ⅲ-26] 디지털 실감영상관 사례 ····· 18
[그림Ⅲ-27] 박물관 문화행사 ····· 19

[그림Ⅳ-1] 교육프로그램 기본방향 ····· 14
[그림Ⅳ-2] 전곡선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14
[그림Ⅳ-3] 전곡선사박물관 도시락 교육프로그램 ····· 16
[그림Ⅳ-4]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15
[그림Ⅳ-5]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체험프로그램 ····· 15
[그림Ⅳ-6]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활동사진 ····· 13
[그림Ⅳ-7] 검단 메타버스 연출예시 ····· 14
[그림Ⅳ-8] VR을 활용한 고고학자 체험 ····· 14
[그림Ⅳ-9] 우리동네 역사관 ····· 15
[그림Ⅳ-10] 유물 복원 체험 ····· 16
[그림Ⅳ-11] 문화 예술 융합 프로그램 ····· 17
[그림Ⅳ-12] 웹툰 창작활동 ····· 18
[그림Ⅳ-13] 청동기야 놀자 활동지 예시 ····· 19
[그림Ⅳ-14] 반달 돌칼 만들기 체험 ····· 16
[그림Ⅳ-15] 살바도르 달리의 'Dream of Dali' 유튜브 영상 ····· 16
[그림Ⅳ-16] 명작 따라하기 챌린지 사례 ····· 17
[그림Ⅳ-17] 검단선사박물관 제1전시실 ····· 13
[그림Ⅳ-18] 검단선사박물관 제2전시실 ····· 14
[그림Ⅳ-19] 검단선사박물관 체험학습실 ····· 14
[그림Ⅳ-20] 검단선사박물관 야외공간 ····· 14
[그림Ⅳ-21] 미디어아트 사례 ····· 18
[그림Ⅳ-22]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 ····· 19
[그림Ⅳ-23] 열린수장고 사례 ····· 19
[그림Ⅳ-24] 어린이박물관 사례 ····· 12
[그림Ⅳ-25] 검단신도시박물관 소장품 수집대상 ····· 18
[그림Ⅳ-26] 검단신도시박물관 아카이브 구성 ····· 19
[그림Ⅳ-2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업무절차 ····· 19
[그림Ⅳ-2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 19
[그림Ⅳ-29] 서울역사아카이브 업무 프로세서 ····· 19
[그림Ⅳ-30] 전시연계 학술대회 사례 ····· 19
[그림Ⅳ-31] 서울역사박물관 발간자료 ····· 20
[그림Ⅳ-32]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자료 ····· 20
[그림Ⅳ-33] 박물관 MI디자인 사례 ····· 22
[그림Ⅳ-34] 박물관 MI디자인 개발 프로세서 ····· 20
[그림Ⅳ-35] 박물관 MI디자인 1안 ····· 23
[그림Ⅳ-36] 박물관 MI디자인 2안 ····· 24
[그림Ⅳ-37] 박물관 MI디자인 3안 ····· 24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내용
5. 연구방법
6. 연구추진계획

1. 연구배경

- 검단신도시 문화재 조사는 2007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7년 동안 실시되었음. 조사면적은 표본조사 99만㎡, 시굴조사 166만㎡, 발굴조사 55만㎡이고 신석기에서 근대까지 약 12,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됨
- 2021년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021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통과되어 본격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함
- 검단신도시 및 인천 서북부 일대 문화재 발굴 성과의 홍보 및 출토유물 관리를 위한 박물관 건립에 따른 특화되고 차별화된 전시기획 및 콘텐츠 구축을 통해 2026년 6월 개관 예정임
-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운영계획, 자료수집 및 관리계획,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앞서 수행된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2021)을 바탕으로 검단신도시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전시콘텐츠에 대한 스토리 구성 및 전시 방법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필요함
- 검단신도시박물관 기능의 전문성 확보방안 및 다양하고 충분한 유물수집을 위한 수집·선정·관리 체계 구축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검단신도시 발굴유물을 기반으로 인천서북권의 역사 전반을 다루는 인천 고고학박물관으로서 위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연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표Ⅰ-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개요

구 분	내 용
총사업비	51,964백만원
사업주체	인천광역시
사업기간	2021. ~ 2026.
사업위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4호 근린공원 부지 내
사업규모	(연면적) 약 15,129.18㎡, (야외전시장) 약 1,500㎡

2. 연구목적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기존 계획보완 및 충실성 확보

°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전시운영계획, 자료수집 및 보존·보관계획,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내 유일의 고고학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건립계획을 수립함

°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전시콘텐츠 세부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물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차별화된 세부전시계획 및 전시운영방안 수립

° 본 연구에서는 유사시설의 전시구성 및 콘텐츠 사례연구, 최근 전시연출 기법과 트렌드를 기반으로 첨단신도시 검단에 어울리는 전시연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함

° 박물관 학예부문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 객관성을 확보하는 전시운영방향을 마련함

■ 정보통신기술기반(ICT) 참여형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 전시와 소방유물을 연계하여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다학제적으로 접목이 가능하며 관람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

° 디지털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인터랙티브한 전시연출, 아카이브 구축 및 온라인박물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

■ 검단신도시박물관 유물 수집전략 및 조사연구 계획 수립

° 현재까지 수집된 검단지역 발굴유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검단선사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개관전까지 확보해야 할 유물과 확보방안을 제시함

° 박물관 개관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장기 소장자료수집계획을 제시함

° 전시·자료수집·교육과 연계된 박물관의 학술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함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건립위치: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4호 근린공원 부지 내

연면적 약 15,129.18㎡, 야외전시장 약 1,500㎡

■ 내용적 범위

◦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세부계획

◦ 교육·체험 프로그램

◦ 온라인박물관 구축을 위한 기본 콘텐츠 개발

◦ 개관 전·후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 운영 방안 연구

◦ 검단선사박물관 기존 유물, 야외전시물 등 활용방안 연구

◦ 조사연구 계획 및 국내·외 교류방안 연구

4. 연구내용

■ 검단신도시박물관 비전과 목표에 맞는 전시철학, 방향 수립

◦ 기존 역사계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전시와 차별성을 구축한 전시계획 수립

◦ 경기서북부 및 인천지역에서 검단신도시박물관이 담당할 역할과 가치를 보여주는 전시계획 수립

◦ 지역 역사의 전통성 및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보편성 및 특수성을 아우르는 전시계획 수립

◦ 신도시 지역박물관으로서의 박물관 방향성 및 역할 제시

◦ 박물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박물관명 제시

■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 스토리구성 및 세부콘텐츠 개발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전시 콘텐츠 자료 조사
- 전시기획, 전시특성, 전시콘텐츠 구성에 필요한 전시자료 목록 도출 및 정보 구성
-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비전과 목적, 전시개념에 부합하고 이용자를 고려하며, 전시 향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 및 영상 콘텐츠 개발
- 검단신도시 발굴현장 재현 축소 전시 방안 제시
- 전시의 감상과 대상물의 가치 등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 전시유물 목록 작성(검단선사박물관 유물 및 타 기관 유물 포함)

■ 검단신도시박물관 이용자를 위한 소통, 참여형 전시방안연구

- 일회성 관람이 아닌 지속성 있는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전시 전략 수립
- 박물관 이용자(user)가 참여자(player)가 될 수 있는 전시 전략 수립
- 참여자 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전시구성 및 기법 연구
- 다양한 이용자(외국인, 장애인, 어린이 등)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한 전시 기법 연구
- 이용자와 전시 공간이 작용할 수 있는 몰입형 디자인을 활용한 전시 기법 연구
- 국내외 관련 전시의 트렌드, 개관시점 등을 고려한 전시기법 조사 및 제시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차별화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 교육 프로그램 기본방향 설정(온라인 교육 포함)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공간 설계
- 박물관에 적합한 체험형 전시 및 교육계획 수립
- 교육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 우수사례 소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역사문화시설 연계방안 마련

■ 온라인박물관 구축을 위한 전시브리프 및 기본콘텐츠 개발

° 국내·외 주요 박물관 및 전시관의 온라인 전시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연구

° 온라인을 통해 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전시콘텐츠 구축

° 이용자와 온라인 전시 간 인터랙티브한 구조 개발

° 전시공간의 조닝 개념을 넘어선 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 오프라인 전시공간과 온라인 전시공간이 융합할 수 있는 스토리 개발

° 소장 자료 온라인 아카이브(온라인 수장고) 구축 및 활용방안 개발

■ 개관 전·후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 운영 방안 연구(건립 후 3년)

°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디지털, 어린이, 체험) 등 전시방향 개발

° 전시 세부구성, 전시물 목록 및 소장 정보(대여기관 등) 제시

° 주요 전시 연출 기법, 전시물 확보 방안 제시

° 기관 간 협력 전시, 이용자 참여형 전시, 순회형 전시 등 다양한 전시 운영프로그램 및 세부 구성안 제시

■ 검단선사박물관의 기존 유물, 야외전시물 등 활용방안 연구

°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 이전 방안 및 전시 활용방안 제시

° 검단선사박물관 보관 및 전시유물 이전 방안 및 전시 활용방안 제시

° 검단신도시 발굴 청동기 주거지 및 분묘 이전 후 야외공원 조성 방안 제시

° 검단선사박물관 관리 유물 중 전시 활용 가능한 유물 목록화

° 검단선사박물관 건물 향후 활용 및 운영 방안 제시

■ 조사연구 계획 및 국내·외 교류 방안 연구

° 자료 조사,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방안과 연계된 연구계획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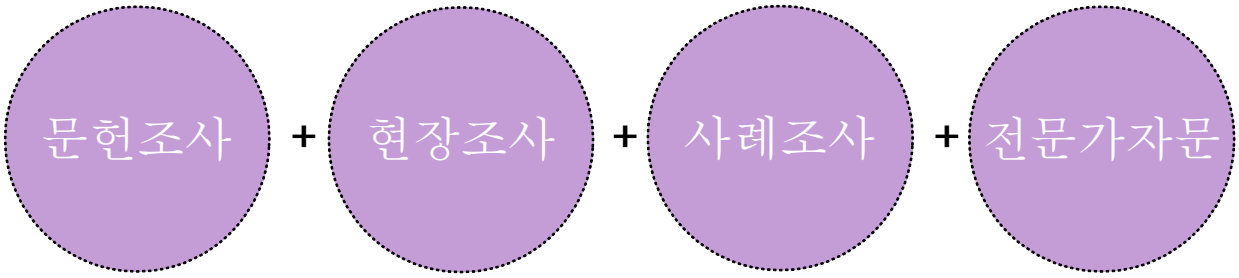
° 검단지역 발굴 유물 자료현황 목록화 및 확보 계획 수립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시자료 아카이브 구축 계획

° 국내·외 유사기관과의 전시 교류, 자료 수집 협업, 공동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부 교류 계획 제시

° 전시 공사 단계별 상세 일정 및 로드맵 작성

5. 연구방법



[그림 Ⅰ-1]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연출 세부계획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2021)」 자료, 「인천 검단의 고고학(2018)」 자료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연계된 전시콘텐츠, 참여형 전시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함
- 인천 검단지구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 및 전문가의 연구논문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함
- 최근 전시동향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 및 정책자료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함

■ 현장조사

-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부지 답사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정체성 및 지역의 문화적 위상 설정에 대해 확인함
- 검단선사박물관을 방문하여 검단신도시 이전 전시할 유물에 대한 조사 및 박물관 이전 후 검단선사박물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사례조사

- 해외 및 국내 고고학 전문박물관의 전시트렌드 및 전시프로그램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시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을 실시함

◦ 타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체험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검단선사박물관의 어린이전용박물관 활용 제안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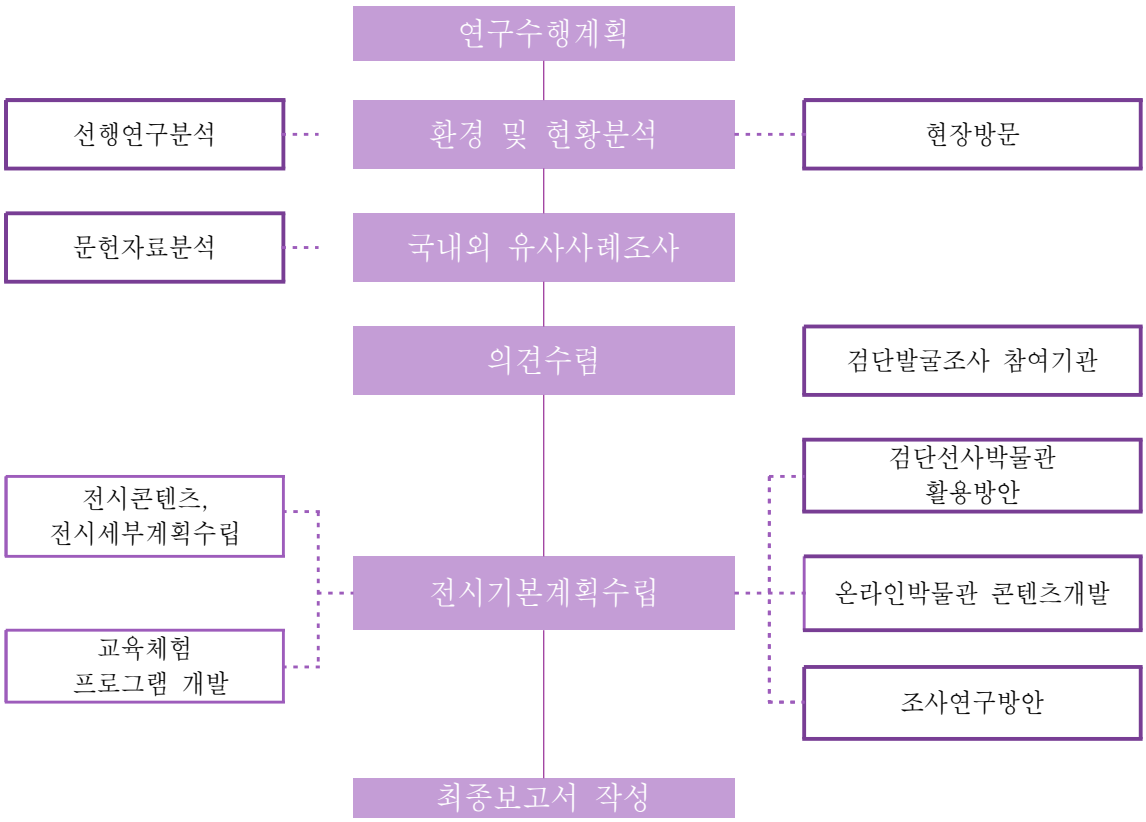
◦ 과학관, 체험관의 프로그램 현황조사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전문가 자문

◦ 인천 검단지구 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기관의 자문을 통해 고고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시계획을 수립함

6. 연구추진계획

◦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Ⅰ-2]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연출 세부계획 연구추진체계

Ⅱ 기초현황 및 여건분석

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현황
2. 검단지역 발굴유물 현황
3. 국내외 박물관 사례조사
4. 건립방향
5. 전시연출 방안
6. 타깃분석

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현황

가. 건립 배경

■ 검단신도시 발굴 유적·유물을 전시·보존·연구할 시설 필요

°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을 비롯해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건물터, 무덤과 가마 등 다양한 유적 ·유물 약 12,081점이 확인됨

°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으로 '검단지구 내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를 홍보·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전시관) 건립 등의 방안 마련'을 통보하였음(2019.12.17. 발굴제도과-14797호)

■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지만, 문화시설 부족

°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은 검단신도시 지역이 인천 서북부의 부도심으로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계획됨

°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지역에 18만 명 이상의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검단신도시 개발 후 187,081명(75,851세대) 유입 예상
- 원당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에 검단선사박물관(2008년 개관, 연면적 1,970㎡)이 위치하지만, 규모가 작아 박물관 기능 및 전시공간 확대 필요성 제기

■ 검단의 역사와 신도시 건립과정의 기록을 통해 검단의 정체성 확립

° 신도시개발로 인해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기존 검단이 가지고 있던 지리적, 지형적 특징이 사라지면서 검단지역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됨

° 따라서 검단신도시건립과정과 주변지역과의 역사적 관계를 발굴유물을 기반으로 전시·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통해 검단신도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나.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산140-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4호 근린공원 총부지의 면적: 93,663㎡

° 건축연면적 15,129.18㎡ (지하1층/지상3층)

■ 사업기간 : 2021. ~ 2026.

■ 위 치 도

대상지 위치도

근린14 공원 예상 조감도(호수공원, 박물관, 도서관)

검단박물관 조감도

[그림Ⅱ-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위치와 조감도

다.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추진절차

°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중 로드맵 자료로 현행화

[표Ⅱ-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2019.12.17.	• 문화재청, 박물관 건립 등 발굴성과 홍보방안 마련 통보
2020.01.14.	• 실무협의체 (인천시·인천시립박물관,·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구성
2020.05.11.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스튜디오엠오비건축사사무소
2020.05.18.	• 박물관 건립위치 확정(검단신도시 근린공원 14호)
2020.06.3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과업수행계획 설명, 건립 대상지 위치 및 규모, 건립방향성 등 협의
2020.08.07.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자문위원회 구성
2020.08.26.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차 자문회의 - 박물관 건립 규모 및 배치 등
2020.11.12.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차 자문회의 -검단신도시 박물관 콘텐츠, 컨셉 등 논의
2021.05.18.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1.05.20.	• 박물관 건립 및 운영계획 확정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6.02.	• 박물관 건립 계획 인천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보고
2021.07.06.	• 검단박물관 건립 시민설명회 개최
2021.07.	• 검단박물관 설립협의(문화체육관광부)
2021.07.	• 검단박물관 설립 타당성평가 신청(문화체육관광부)
2021.12.	• 검단박물관 설립 타당성평가 완료
2022.12.~2022.03.	• 전시콘텐츠 개발용역 진행
2022.06.	• 통합기본구상/공모지침서 작성
2022.09.	• 국제설계공모 공고
2023.03.	• 국제설계용역 착수
2022.06~09.	• 운영관리용역 진행
2023.09.	• 건축인허가 완료
2023.09.~2024.09	• 전시시설 설계용역
2024.06.	• 건립공사 착공
2025.09.	•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2026.06.	•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자료: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라. 검단신도시박물관 공간구성

- 호수공원, 박물관, 도서관, 중심상업시설로 연결되는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함
- 전시와 교육이라는 박물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통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

[표Ⅱ-2] 검단신도시박물관 공간구성과 면적 (※ 2022. 3월 기준, 연면적 15,000㎡ 기준)

구분	공간		면적(%)	면적(㎡)
문화공간	문화공간	어린이체험관	2.36%	356.40
		스튜디오	1.24%	187.92
		메이커스페이스	1.76%	265.68
		개방형자료실	1.32%	200.00
	소계		6.68%	1,010.00
	교육공간	교육실/세미나실	3.00%	453.60
전시공간	상설	상설전시실1	5.61%	848.94
		상설전시실2	2.99%	452.69
		검단선사박물관 유구전사	2.45%	370.00
		디오라마	6.61%	1,000.00
	기획	기획전시실1,2	3.26%	492.69
	준비	준비실, 다목적 보관실	1.32%	200.00
	소계		22.24%	3,364.32
지원공간	관장실, 사무실		2.36%	356.40
	문서고,회의실, 탕비실, 휴게공간		1.65%	250.00
	수장고		6.61%	1,000.66
	준비실		1.32%	200.86
	창고		0.63%	94.83
	하역장		0.53%	80.38
	소계		13.10%	1,983.13
편의공간	편의공간	수유실	0.20%	30.14
		휴게공간	0.39%	58.27
	소계		0.59%	88.41
	판매공간	푸드코트	1.12%	169.74
		뮤지엄샵/카페	1.32%	200.10
	소계		2.44%	369.84
공용공간	직원식당		0.66%	100.00
	소화가스실		0.40%	60.00
	숙직실, 샤워실		0.13%	20.00
	주차장		15.18%	2,296.38
	주차관리실		0.23%	35.19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실		0.33%	50.00
	홀 및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19.85%	3,003.31
	소계		36.78%	5,564.88
다목적홀 (가칭)	상연공간	객석	2.97%	450.00
		무대	2.64%	400.00
		소계	5.61%	850.00
	상연지원 or 다용도공간		5.61%	850.00
	공용공간		3.93%	595.00
	소계		15.17%	2,295.00
총합계			100.00%	15,129.18

[표Ⅱ-3] 검단신도시박물관 공간구성과 면적 (연면적 10,000㎡ 기준)

용도		개소	면적
전시공간	상설전시실	2	1,221.63㎡
	기획전시실	1	372.69㎡
지원공간	수장고	2	942.66㎡
	준비실	1	120.50㎡
	자료실	1	184.50㎡
	사무실	1	356.40㎡
문화공간	유구전시관	1	1,000.00㎡
교육공간	세미나실/강당	1	453.60㎡
판매공간	뮤지엄샵/카페	1	86.10㎡
	식당	1	169.74㎡
편의공간	수유실	1	12.14㎡
	테라스	1	58.27㎡
공용공간	로비, 복도		2,400.99㎡
	기계전기실	1	468.63㎡
	주차장	1	2,296.38㎡
합계			10,363.80㎡

2. 검단지역 발굴유물 현황

1) 발굴 현황

° 검단신도시 문화재 조사는 2007년 지표조사를 통해 시작되었음

° 2013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7년 동안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음

° 발굴조사는 6개 조사기관이 참여하였는데 조사면적은 표본조사 99만㎡, 시굴조사 166만㎡, 발굴조사 55만㎡. 조사된 유적은 신석기시대에서 근대까지 약 3천여 기, 발굴유물은 12,081점으로 청동기시대와 고려·조선시대의 비중이 높은 편임

[표Ⅱ-4] 인천 검단지역 출토유물 (2021-01-14기준)

연번	유적명	유물(점)	조사기관
1	인천 검단 원당동, 불로동 유적 등	4,554	한국문화재재단 등
2	인천 검단 당하동 유적	1,653	충청문화재연구원
3	인천 검단 불로동·당하동 유적	2,088	대동문화재연구원
4	인천 원당동 유적	709	중부고고학연구소
5	인천 검단 원당동·마전동 유적	545	중앙문화재연구원
6	인천 검단 마전동·원당동·불로동유적	2,031	호남문화재연구원
7	인천 검단 불로동유적	501	한빛문화재연구원
유물수량		12,081	

2) 시대별 발굴유물

■ 신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주거지 5기가 조사되었음. 발굴면적에 비해 매우 적은 수량으로, 영종도, 김포지역(신안리) 등에서 대규모의 취락이 확인된 것과는 대조적임

° 주거지는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의 문양구성과 주거지의 형태, C14연대 측정값 등을 고려할 때 전기후반-후기까지 고루 분포하여 5기의 주거지 모두 동시기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표Ⅱ-5] 신석기시대 유적 현황

시대	유구	조사기관						계
		중앙	중부	충청	호남	대동	한빛	
신석기	주거지	3			1	1		5
	소계	3	0	0	1	1	0	5

■ 청동기~초기철기시대

°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주거지가 566기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인돌 3기, 토광묘 1기, 수혈 13기, 구상유구와 환호 4기 등이 조사됨

° 청동기시대 마을은 조기 말~전기 전반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전기후반에 점차 확대되고, 중기에 이르러 대규모 유적을 형성하다가 후기 이후 유적의 수가 급감함

° 초기철기시대에는 주거지, 수혈, 목관묘, 구 등이 조사됨. 장방형, 타원형 주거지에 노지가 설치된 비교적 소형의 주거지가 조성되고, 석재를 채운 목관묘 등에서 철기가 부장됨

° 원형·삼각형의 점토대토기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철기의 부장, 토기의 양상 등으로 볼 때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말기나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표Ⅱ-6]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

시대	유구	조사기관						계
		중앙	중부	충청	호남	대동	한빛	
청동기	주거지	16	23	163	138	156	70	566
	고인돌				2	1		3
	토광묘					1		1
	수혈		2	7	2	2		13
	구				2			2
	환호(환구)	1		1				2
	소계	17	25	171	144	160	70	587
초기철기	주거지					2		2
	수혈					3		3
	목관묘					3		3
	구					1		1
	소계	0	0	0	0	9	0	9

■ 원삼국~삼국시대

° 주거지는 원삼국시대 1기, 삼국시대 2기의 3기만이 확인됨. 주변에 관련시설이 없어 임시 주거시설로 보는 견해가 있음

° 분구묘는 분구를 먼저 조성하고 분구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것으로 단경호, 완, 직구광견호 등의 토기, 환두도, 도자, 철겸, 단조철부 등의 철기류 등이 주로 출토됨

° 토기가마는 2기가 확인되었는데 지하식구조로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각각 1기씩 출토됨

[표Ⅱ-7] 원삼국~삼국시대 유적 현황

시대	유구	조사기관						계
		중앙	중부	충청	호남	대동	한빛	
원삼국 – 삼국	주거지		1			2		3
	주혈군					2		2
	수혈	2	12	4		71		89
	구			2		9		11
	분구묘	9		8	3			20
	주구묘					13		13
	목관묘				3			3
	목곽묘					12	3	15
	옹관묘						2	2
	토광묘					1		1
	석곽묘				1			1
	석실묘	11						11
	석곽묘	10						10
	토기가마					2		2
	소계	32	13	14	7	112	5	183

■ 통일신라시대

-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수혈, 석곽·석실, 기와가마, 토기가마 등이 확인
- 석곽(실)묘는 92기로 대부분 석곽묘이며 석곽묘는 대부분 횡구식으로 일부 소형의 수혈식이 있음
- 유물은 병, 개, 완, 기와, 대금구, 관정 등이 출토되었는데 시상위에 매납하거나 착장한 유물은 적음

[표Ⅱ-8] 통일신라시대 유적 현황

시대	유구	조사기관						계
		중앙	중부	충청	호남	대동	한빛	
통일신라	주거지		2	1	1			4
	주공			1				1
	수혈		2	3	2			7
	석곽(실)묘		7	3	12	25	42	89
	기와가마			6	1			7
	토기가마		1					1
	소계	0	12	14	16	25	42	109

■ 고려·조선시대

° 고려시대 건물지인 원당동 건물지는 하단에 축대를 쌓고 삼단의 편평한 대지를 조성한 후 4개의 건물과 회랑 등을 조성하였으며 유물은 청자, 귀면문 수막새, 치미편, 용뉴 등이 출토됨. 건물의 형태나, 규모, 출토유물 등을 놓고 볼 때 비교적 격이 높은 건물로 추정됨

° 불로동 건물지는 유물은 토제품, 김포관가(金浦官家)명 기와, 청자 등이 출토됨 기와에 새겨진 김포관가 명문은 원당동 1유적 2구역 1호 소성유구 출토 기와와 동일한 타날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쌍조문 기와는 원당동 고려시대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타날판으로 추정됨

° Ⅱ-1지점 19호 석곽묘에서는 청자 다구세트가 온전히 출토됨. 이러한 다기는 고려시대 차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제작된 것으로 온전한 다구세트가 출토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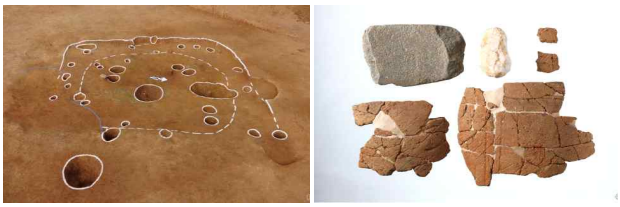
° 조선시대 원당동 건물지에서 예빈(禮賓)명이 새겨진 인화문 분청사기가 출토됨. 예빈(禮賓)은 예빈사(禮賓寺)로 고려 태조 4년(921) 처음 설치되어 고종 31년(1894)까지 장속한 중요 관청으로 그 역할은 빈객의 연향과 재신들의 음식 공급을 담당하는 곳임

° 조선시대 생산시설은 토기가마, 기와가마, 삼가마, 목탄가마, 석회가마 등이 확인되는데 이 중 석회가마는 전국적으로 보고사례가 드문 경우임

[표Ⅱ-9] 고려·조선시대 유적 현황

시대	유구	조사기관						계
		중앙	중부	충청	호남	대동	한빛	
고려 - 조선 이후	주거지	10	18	21	5	27		81
	주혈군	3				8		11
	수혈	119	15	32	28	242	12	448
	구	11	1	8	14	16		50
	건물지 및 관련시설	51	7	4	44	14	7	127
	적석유구		3					3
	부석유구					1		1
	노지					4		4
	우물	1			2			3
	매납유구				3	1		4
	석곽묘	27			43			70
	토광(목관)묘	79	40	83	214	69	73	558
	회곽(격)묘	1	38	50	11	4	4	108
	와관묘		1					1
	토기가마				1			1
	삼가마						1	1
	기와가마	2		1		1		4
	목탄가마	1		3	2	1	1	8
	석회가마				2			2
	소성유구	18	2	5	3			28
	소계	323	125	207	372	388	98	1,513

3) 주요 발굴유물



신석기시대 집터와 출토유물(토기와 석기)

청동기시대 집터와 출토유물(토기와 석기)

원삼국~삼국시대 무덤과 출토유물(토기와 철기)

원당동 고려시대 절터 및 출토유물(용뉴, 기와, 청자)

고려시대 석곽묘 및 출토유물(다구 세트)

조선시대 건물터와 출토유물(분청사기)

[그림Ⅱ-2] 검단 발굴유물

3. 국내외 박물관 사례조사

3.1 기본방향

- 검단지역 발굴유물·유적 중 신석기, 청동기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면서 경기서북권 지역의 선사·고대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됨
- 검단신도시박물관을 '인천고고박물관'으로 그 정체성을 수립하고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으로 건립하여 인천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고학박물관으로서 그 전문성과 그 위상에 맞는 전시콘텐츠를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선사박물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성공 요인을 도출하여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전시콘텐츠,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가. 국내박물관 사례

1) 시흥오이도박물관(2019)

■ 개요

- 선사 유적지(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4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7월에 개관함. 선사유적공원에서는 신석기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고, 박물관에서는 보다 가깝게 시흥의 출토 유물들을 이해하고 선사시대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이자 따뜻한 문화공간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역사 체험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1년 8월부터는 웹페이지 상에서 VR 뮤지엄 서비스를 실시. 해당 유물과 전시물에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각의 설명이나 참고 이미지들이 나타나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도록 제작. 특히 주요 유물들은 AR(증강현실)로 추가 제작하여 현장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유물의 바닥면이나 뒷면 등 모든 부분을 더 상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함

[표Ⅱ-10] 시흥오이도박물관 개요

기관	시흥오이도박물관
주소	시흥시 정왕동 2202-6
설립목적	2002년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오이도의 선사시대 유적을 보존·연구하고 역사문화와 교육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2019년 7월에 개관
주요전시물	토기, 석기, 조가비 표본 등 총 1,825점 (상설전시 448점)

기관	시흥오이도박물관	
주요시설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실, 선사유적공원, 패총전시관, 전망대 등	
건축	기존 박물관의 배치형태를 벗어나 오이도의 지역성과 자연환경을 전시대상으로 삼아, 바다를 조망하며 옛 선사의 시간을 공감할 수 있는 서해안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 오이도의 해안 및 자연환경을 은유하여 갯벌 바위의 따개비를 형상화한 돌출형 외부창호를 계획하고, 염해에 강한 모노쿠쉬 마감을 적용하여 암석을 형상화한 단일 형태의 건물로 계획	

■ 전시구성 및 스토리라인

시대 재현 연출 및 체험터 마련

- 상설 전시관은 체험을 위주로 시대 재현 방식으로 연출하였으며, 어린이들 체험을 위한 공간 마련
- 상설전시실에서는 해당 유물과 전시물에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각의 설명이나 참고 이미지들이 나타나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도록 제작. 특히 주요 유물들은 AR(증강현실)로 추가 제작하여 현장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유물의 바닥 면이나 뒷면 등 모든 부분을 더 상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함

[표Ⅱ-11] 시흥오이도박물관 전시구성

구분	전시주제	공간구성
상설전시	신석기 어로생활 오이도 패총 사냥·채집 생활 주거생활 농경생활 식생활 의생활	
어린이체험관	소공연장, 해안가 놀이터, 어린이 책마루, 퍼즐 스페이스, 신석기 마을농장, 도토리 채집 등	

■ 시흥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 공원부지면적은 약 335,859m²로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선사체험마을과 움집체험이 가능한 야영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오이도 유적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패총전시관과 아름다운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산책하기 좋은 억새길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됨

[표Ⅱ-12] 시흥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시연출

구분	야외전시 및 시설		
선사마을체험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야외전시관			
	농경생활	식생활	사냥활동
	움집	빗살무늬토기	무거운 물건 운반
야영마을 - 움집에서 하루를 보내며 선사시대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패총전시관 - 조개무지의 형성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사진을 활용하여 전시			
그 외 공원시설			
	전망대	조가비광장	물발원지

■ 시사점

° 선사시대 유적을 보존·연구하고 역사문화와 교육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박물관을 건립한 면에서 검단신도시박물관과 유사점이 있음

° 시흥오이도박물관의 경우 신석기시대에 집중해서 전시콘텐츠와 야외공원의 모형을 계획함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이 일관되고 이해하기 쉬움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구석기에서 근현대사까지 다룰 예정이나 유구전시관, 야외전시가 청동기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시대적 구분을 명확히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

° 야외공원 조성 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브론즈 모형을 이용하여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므로 공원 전체에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은 향후 검단신도시박물관 야외전시 계획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전곡선사박물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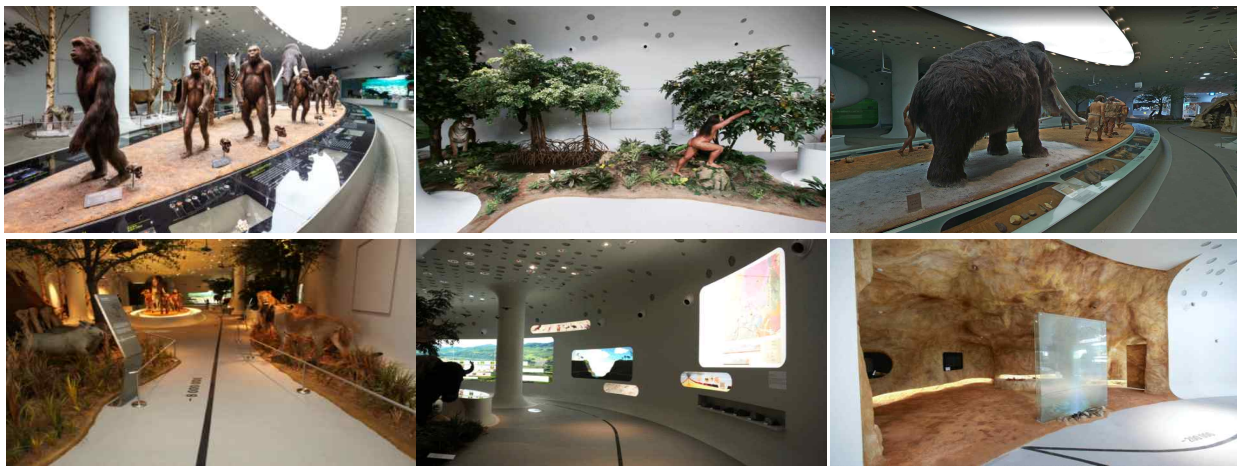
[표Ⅱ-13] 전곡선사박물관 개요

기관	전곡선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설립목적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발견으로 세계 구석기 연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던 역사적 현장인 전곡리 구석기유적에 건립된 유적박물관으로 2011년 개관 선사문화 가치보존과 활용을 통해 경기도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 보고, 즐기고, 치유하는 박물관 추구	
주요전시물	뼈화석, 석기 등 총 2,113점 (상설전시 287점)	
주요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다목적강당(3D영상실), 고고학 체험실 등	
건축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박물관은 두 언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부드럽게 마음을 달래는 형태여서 풍경을 또렷하게 강조. 신비하고 미래주의적인 스타일을 통해 관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박물관은 소위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로도 불리며 빛을 반사해 자신을 비물질화함. 언덕 사이 골짜기에 묻힌 타임머신 같은 타임캡슐을 창조하는 것이 건축가의 의도	

■ 전시구성 및 내용

[표Ⅱ-14] 전곡선사박물관 전시구성

대주제	소주제	전시내용
도입부	• 전곡의 주먹도끼	• 전곡리 유적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인 주먹도끼를 전시도입부에 배치
진화의 위대한 행진	• 오스트랄로피테쿠스 • 호모 하빌리스와 에렉투스 • 네안데르탈인 • 호모 사피엔스 • 매머드, 털코뿔소, 얼룩말	• 극동아시아와 한국 그리고 전곡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6백만 년 전 부터 2만 년 전까지의 시간과 세계 속의 원생인류와 인류 집단에 대한 이야기. •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실제 발견된 화석모형들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
자연환경	• 사바나의 최초인류 • 최초의 아시아 이주인 • 추가령지구대, 온대 고인류의 터전 /전곡, 온대 고인류의 문화 • 극지로 가는 구석기인	• 원생인류에 맞는 식물군과 동물군을 포함한 환경을 재현. 즉 대초원, 열대 우림 지역, 추운 지역, 온도 차가 심한 지역 등의 각 대륙 환경들이 디오라마로 전시실 내에 재구성하여 전시함
기원과 이주	• 인류의 요람: 아프리카 • 환경변화와 직립보행 • 한반도로의 인류 여정 • 인류의 진화 • 극동아시아의 호모 사피엔스	• 직립 보행의 기원과 인류이동을 주제로 한 전시, 인류의 각기 다른 이주 경로를 시간과 지역에 따라 재현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갔던 인류에 대해서 소개
추가령 계곡 자원	• 추가령지구대의 지질 • 추가령지구대 의 생태계 • 전곡의 발굴현장 • 전곡의 지층 • 전곡의 주먹도끼	• 수렵과 채집수단을 실질적으로 발달시킨 석기의 제작과정을 포함해서 인류의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생산물들에 초점. • 전곡리의 생태학적 특징과 석기제작의 다양성과 특징을 표현
선사시대 문화와 믿음	• 네안데르탈인 매장 • 두뇌 발달과 언어 • 벽화 동굴 탐험 • 구석기시대의 예술품 • 우크라이나 Mezhirich유적 매머드뼈 막집	• 동굴 벽화나 예술, 음악이나 장신구 또는 의류 제작이나 영혼에 대한 개념의 발전, 그리고 언어의 기원 등 인간의 사고 능력에 대한 것을 전시



[그림Ⅱ-3] 전곡선사박물관 전시실

■ 시사점

° 건축에서부터 일반적인 박물관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함

° 전시실 내부도 건축에서 이어진 유선형의 곡선을 살린 전시실과 조형적 아름다움을 고려한 아트뮤지엄 성격이 결합하여 전곡선사박물관만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함

° 구석기시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발견을 통해 건립된 박물관으로 구석기시대와 전곡이라는 시대적, 지역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진화의 위대한 행진'을 세계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시콘텐츠를 구성함

3)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

° 인류가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남북국시대까지 우리역사와 문화를 시대별로 정리해 놓은 전시실임

[표Ⅱ-15]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 전시구성

전시실 구성	전시내용	전시연출
구석기실	• 도입부 석기 제작에 필요한 석재와 돌을 떼어내는 방법 소개 • 인류의 진화에 따라 석기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음을 보여 주기 위해 한반도 각지에서 출토된 석기를 종류와 형식에 따라 구분하여 전시 • 영상: 동굴유적과 한데유적	
신석기실	•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 토기들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꾸미개나 토우와 같은 예술품 등에서 신석기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유물 전시 • 영상 : 신석기시대 배의 발견, 신석기시대의 무덤, 신석기인의 살림집	
청동기/고조선실	• 청동기·고조선실은 발달된 농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동기시대의 생활 모습과 청동이라는 금속 제품이 유입되면서 변화하는 문화상을 중심으로 구성 • 대표 유물인 동검을 중심으로 요령식 동검 문화와 한국식 동검 문화를 비교하여 전시 • 4세기 철기가 나타나면서 계급 분화가 촉진되는데, 단단하고 예리한 철제 농기구와 무기의 사용, 토기의 변화와 사회상 • 영상: 청동기시대 마을 밭 논 무덤, 농경문 청동기, 여러 가지 민무늬 토기	

전시실 구성	전시내용	전시연출
부여/삼한실	• 부여·삼한실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불러오는 배경이 된 새로운 생산 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생활상을 소개 • 영상: 부여·삼한, 낭랑군 설치	
고구려실	• 고구려실에는 돌무지무덤, 궁궐터, 절터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꾸미개, 막새와 전돌, 불상 등을 전시 • 영상: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 광대토대왕비	
백제실	• 백제의 중앙과 지방 정치, 건축과 종교, 생산 경제와 토기, 대외 교류 등 세부 주제로 구성하여 백제 문화의 특징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게 구성	
가야실	• 가야를 상징하는 판갑옷(쇠로 만든 갑옷)을 비롯하여 고리자루 큰 칼과 미늘쇠(길쭉한 철판의 가장자리에 가시 모양 미늘이 달린 철기) 등 여러 가지 철제품을 전시	
신라실	• 거대한 무덤 중 규모가 가장 큰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관을 비롯하여 마립간 지배층의 면모를 보여 주는 화려한 황금 껴묻거리를 전시 • 신라 문화의 국제성을 볼 수 있는 유리잔 같은 다양한 외래 유물과 함께 대표적인 신라의 토기와 기와, 무기, 말갖춤도 전시 • 영상: 황룡사와 분황사, 황남대총, 황남대총 축조과정	
통일신라실	• 통일신라실에서는 사천왕사四天王寺 <녹유신장벽전綠釉神將甓塼>과 <전傳 보원사普願寺 철불鐵佛> 등 절정에 이른 불교문화재를 전시 • 지방각지에서 출토된 생활용품과 각종 자기류와 와당 전시 • 영상: 석굴암, 숭고한 불국토의 세계	
발해실	•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면서 발해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소개. • '발해 왕조의 정통성, 발해의 수도·왕권·통치, 해동성국海東盛國 발해와 주변 세계'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	

4) 하남역사박물관

■ 개요 및 전시구성

[표Ⅱ-16] 하남역사박물관 전시구성

기관	하남역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30	
설립목적	하남시의 역사, 고고유물, 미술, 민속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계몽·홍보하여 하남시민들의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주요전시물	미사리 유적 출토유물, 이성산성 출토유물, 철조석가여래상 등	
주요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실 등	
상설전시구성	전시내용	전시연출이미지
선사실	선사실은 미사리 유적을 중심으로 구석기시대 도구부터 다양한 토기, 생활유물들을 통해 미사리에 정착하며 삶을 영위했던 선사시대 하남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	
고대실(실감관)	이성산성은 춘궁동에 위치한 삼국시대 석축산성으로, 산성의 형태는 산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돌을 쌓은 포곡형 산성으로 산성내부에서 다양한 건물지와 저수지, 목간, 요고, 흙으로 만든 말, 토기 등 출토	
고려실	고려 12목 중 광주목이 위치했던 하남은 화려한 불교문화가 발달되었는데 이를 보여주는 철조석가여래좌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외 연꽃무늬 수막새, 청자병 등이 전시됨	
조선실	조선시대 광주시역의 행정중심지이며 광주향교가 위치했던 하남은 사람과 물류유통이 활발했음 이러한 조선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청금록, 이덕형 영정, 호패, 백자 등이 전시됨	

기관	하남역사박물관	
근현대실	1895년 이후 1989년 하남시가 탄생하기까지 근현대 하남으로의 성장을 담은 전시공간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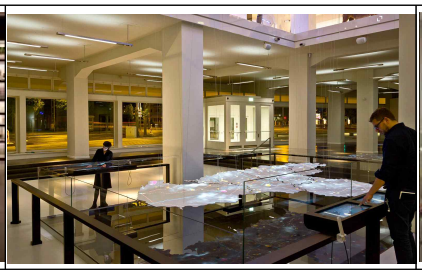
-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우수한 유물을 기반으로 유물중심의 전시연출에 동영상을 통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시공간 구성함. 동영상의 경우 그 설명이 전문적이고 흥미롭게 구성되어 온라인박물관 관람이 매우 효율적임
- 하남역사박물관은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역사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검단신도시박물관과 유사점이 있음. 하남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모든 시대를 다루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구석기에서 근현대사까지 다루되 청동기시대를 기반으로 한 고고학박물관으로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비중과 연출 매체, 동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2 해외박물관 사례조사

1) 독일 켐니츠 고고학박물관

[표Ⅱ-17] 켐니츠 박물관 개요 및 전시구성

구분	SMAC-Staatliches Museum für Archäologie Chemitz
주제	30만 년 작센의 고고학 소개
위치	독일 켐니츠
작센의 고고학	총 3000㎡의 3개 층에서 SMAC은 약 300,000년 전 최초의 수렵 및 채집인 시대부터 초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작센의 발전을 보여줌. 초기의 자연경관에서 인간이 점차적으로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근대문화경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빙하기와 간빙기	• 구석기시대 빙하기와 간빙기에 따른 식생의 변화 소개 1. 심오한 시간의 발견 2. 아웃 오브 아프리카 3. 네안데르탈인 연구소 4. 상상력 5. 포스트 빙하시대의 수렵·채집인
정착 문화	• 신석기시대(기원전 5500년부터)에서 중세 초기(서기 800년까지)의 농업과 기술, 사회구조의 변화 소개 • 초기철기시대와 로마제국시대 복식체험 제공 1. Brunnen기록보관소 2. 장례의식 3. 새로운 지평 4. 황금시대 5. 신에 대한 제사 6. 청동기 및 철기시대 도자문화 7. 사후세계로의 여행 8. 민족대이동
슬라브인의 정착에서 산업화까지	• 800년에서 1850년 사이 작센지방의 문화발전과정을 소개 • 지식의 저장고인 수도원,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광업,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1839년의 철도운행 등 1. 마이센 신화 2. 국가의 확장 3. Wiprecht von Groitzsch 4. 수도원의 도서관 5. Zwickauer Ratsherren 6. Alltagswand 7. Zweites Berggeschrey 8. Schatzkammer Staatsarchiv 9. Alles wird anders: 산업화



2) 스위스 국립 고고학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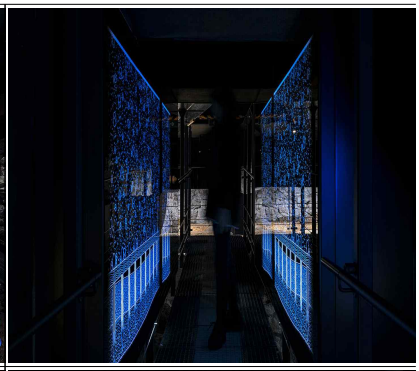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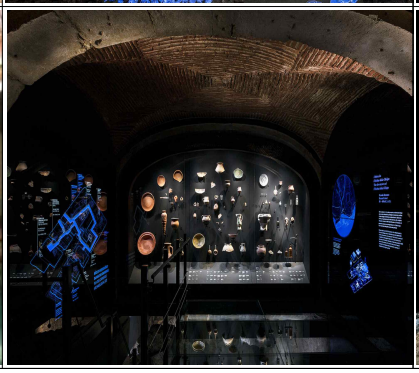
[표Ⅱ-18] 스위스 국립 고고학 박물관 개요 및 전시구성

구분	Swiss National Archaeotogy Museum
주제	스위스 고고학적 유물을 전시
위치	취리히 (스위스)
전시주제 및 내용	세 개의 테마로 구성된 이 전시에서는 1,300개의 헬베티아 (스위스) 고고학적 유물들을 전시 1. 'Homo' 테마 영역에서는 100,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를 구석기시대부터 초기 중세까지의 다양한 유물들과 함께 전시 2. 'Natura' 테마 영역은 인류가 자연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인류와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설명 3. 'Terra' 테마 영역의 공중에는 3,000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알루미늄 설치조형물이 스위스 랜드스케이프를 형상화하고 그 위에 조명 연출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추상적으로 표현

3) 포르투갈 NCAR 고고학센터

[표Ⅱ-19] 포르투갈 NCAR 고고학센터 개요 및 전시구성

구분	NCAR(Archaeological Nucleus of Rua dos Correeiros)(2021년 재개관)
주제	BCP지점 아래 숨겨져 있던 고고학 유적 및 유물 전시
위치	리스본 (포르투갈)
전시주제 및 내용	Rua dos Correeiros의 Millennium BCP지점 아래 숨겨져 있던 고고학 유적지. NCAR는 2500여 년의 도시의 흔적이 얽혀 있는 보기 드문 장소로 전시관으로 고대 올리시포에서 오늘날의 리스본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소개 이베리안 반도의 고대 카르타고, 고대 로마, 서고트, 이슬람, 중세 및 폼발린 시대의 고고학적 유적 전시 2019년 문을 닫았다가 2021년 재개관. 시노그래피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 전시가 돋보일 수 있도록 어두운 벽에 파란색과 흰색으로 애니메이션 삽화를 더하여 연출함으로 박물관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

개편전	개편후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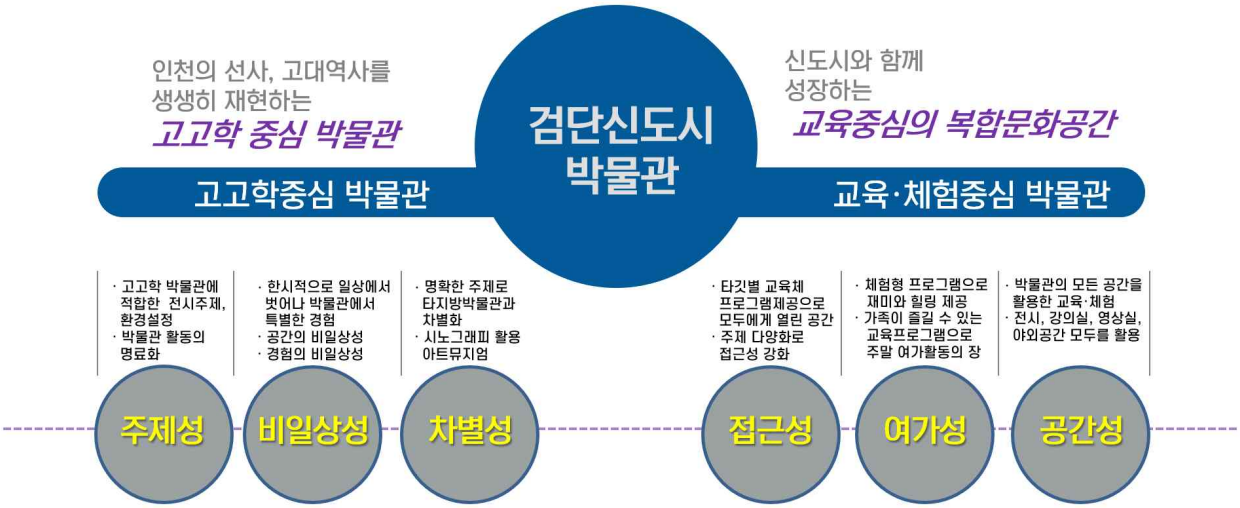
- 독일의 ‘켐니츠박물관’, ‘스위스국립고고학박물관’ 모두 고고학박물관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시연출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 고고학 역사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전시테마를 구성하고 그 테마 안에서 자유로운 전시연출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람자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기법을 구사하고 있음

- 켐니츠박물관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한 키네틱 설치물인 Saxony 모형을 박물관 중앙의 공중에 띄워 로비와 3개 층을 시각 및 내용적 측면에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NCAR 고고학센터’의 경우 적극적인 시노그래피을 통해 지하공간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2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비로움을 잘 드러내고 있음
- 검단신도시박물관이 힐링과 문화의 공간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물을 보여주는 방식, 전시공간을 연출하는 매체에 대해서 열린 접근이 필요한 때임

4. 건립방향

4.1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인천고고박물관”



[그림Ⅱ-4]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구상

1) 고고학 중심 박물관

- 2007년대 이후 인천의 도시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으며 도시의 개발과 문화재보존의 가치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이 추진됨
- 검단의 대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을 계기로 인천의 고고학적 발굴유물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 필요성이 제기됨

■ 주제성

- 고고학 박물관에 적합한 전시주제, 전시연출, 야외전시 연출
- 박물관의 학술연구 및 교류활동,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 박물관 활동의 명료화

■ 비일상성

° 한시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박물관에서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선사시대 재현, VR, AR 등 몰입형 전시매체를 활용해 공간의 비일상성, 경험의 비일상성 제공

■ 차별성

° 인천의 선사, 고대 역사를 생생히 재현하는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으로 기획함으로 인천과 인접지역의 박물관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함

° 시노그래피, 실감영상, 유물연출의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 선사시대의 재현을 넘어 새로운 해석과 접근을 시도하는 아트뮤지엄

2) 교육·체험중심의 복합문화공간

■ 접근성

° 타깃별 교육·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

° 역사, 문화, 어린이체험 등 주제 다양화로 접근성 강화

■ 여가성

°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어린이체험관 등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힐링 제공

°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주말 여가활동의 장

■ 공간성

° 박물관의 모든 공간을 활용한 교육·체험

° 전시, 강의실, 영상실, 야외공간 모두를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페이스텔링 구성

° 도서관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명사초빙 강연회, 문화특강 등을 진행함으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클러스터 조성함

4.2 외부공간 연계

■ 도서관과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 박물관과 도서관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복합문화 클러스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준비하고 도서관에서는 그와 관련된 책을 주제로 독서토론이나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연관된 프로그램을 진행함

° 대강당, 다목적실 등 서로 중첩되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시설의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근린공원, 호수공원과 연계된 휴게공간

° 검단신도시박물관은 공원내에 조성되는 박물관으로 다른 박물관과는 달리 호수공원에 인접하여 건축됨으로 이러한 특성을 전시 또는 휴게공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 예를 들어 고려시대 차문화에 대한 전시코너에서 전통차를 체험하는 공간을 두고 이곳에서 호수공원을 내려다보면서 휴식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과거 박물관은 폐쇄적인 전시환경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들어 박물관도 개방형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있음. 서울공예박물관의 경우 전시관과 전시관을 연결하는 이동공간은 물론 전시관 내부 곳곳에서도 외부공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계되었음

° 검단신도시박물관도 새로 조성되는 근린공원, 호수공원, 도서관, 야외전시공간 등과 시각적으로 이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뮤지엄샵은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와 인접하게 설치함으로 자녀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휴게공간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린공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박물관 비관람자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함

5. 전시연출방안

1)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연출을 위한 사례연구

■ 복합매체를 활용한 몰입감있는 전시연출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람객들의 미디어 매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박물관의 전시도 하나의 매체가 아닌 여러 매체를 활용한 공감각적, 입체적 전시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음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전시연출에 있어서 이러한 복합적 연출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함

[표Ⅱ-20] 복합매체를 활용한 전시연출 사례

연출이미지	전시연출매체
	<그래픽 + 영상>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16.07) '우리 살던 고향은-세종시 2005 그리고 2015'
	<그래픽 + 모형 + 유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래픽, 모형 복합연출과 디지털 아카이브
	<모형 + 프로젝션영상>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1941년 혜화동을 재현한 5.4m 모형에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를 개발하여 건물의 변천사 등을 모형에 뒤덮는 방식
	<모형 + AR> 한성백제박물관AR 복원모형을 비추면 유물이 움직임

2) 박물관 전시콘텐츠의 디지털화

■ 디지털화의 필요성

- 박물관에서 기술 수용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핵심 역할은 바로 차별화된 '경험'과 '소통'임. 첨단기술은 다양한 의도와 목적에 의해 뮤지엄 전시에 활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관람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통한 소통방식을 제공하기 위함임
- 박물관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화는 박물관 전시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와 스토리의 전달,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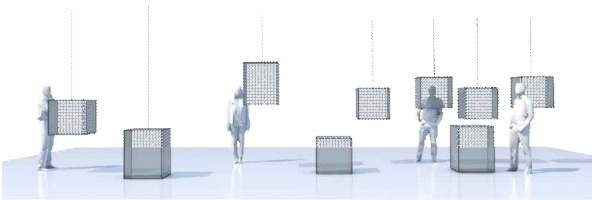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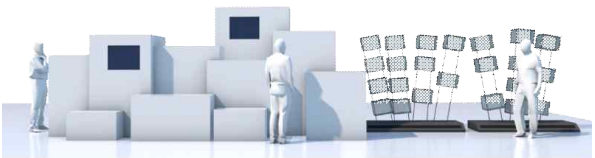
■ 박물관의 디지털 기술도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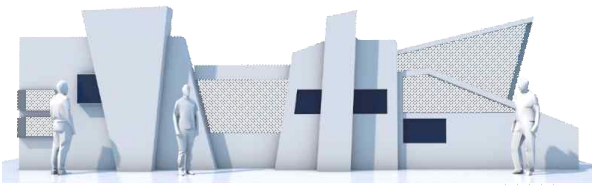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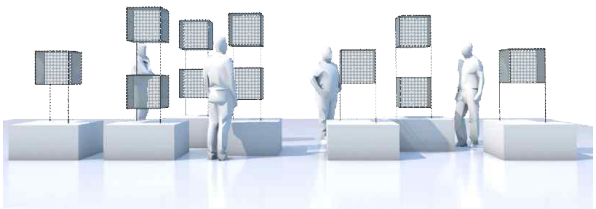
[표Ⅱ-21] 박물관 디지털 기술도입 사례

구분	전시사례	내용
AR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하고 경험하는 AR. 한성백제박물관	증강현실(AR)을 통해 박물관의 주인공이 유물이 아닌 사람과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방안에 마련되어 있음
VR	 서울역사박물관 온라인전시관	최근 거의 모든 박물관이 VR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VR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를 동시에 진행. VR전시의 경우 현재는 대부분 오프라인 전시공간을 VR전시로 옮기는 형태에 머물고 있지만 VR전시의 장점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전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새로운 연출을 통해 공간의 확장, 몰입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디지털 미디어	 마르피 스튜디오	마르피 스튜디오는 폴란드 출신 작가 마르피를 중심으로 디자이너, 음악가, 디지털 엔지니어, 테크니션 등이 협업해 소통형 미디어아트를 만들고 있는 팀으로 사용자와의 쌍방향 반응(interactiveness)이 강조되는 작업을 진행
AI	 브라질 피나코테카미술관의 IBM왓슨	피나코테카 미술관에서는 IBM사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왓슨(Watson)을 이용한 대화형 앱인 '보이스 오브 아트(The Voice of Art)'를 도입. 왓슨은 도서, 신문, 인터넷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작품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활용된 기법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앱. AI도입의 초기단계에서 성공적인 사례임

2) 전시디스플레이 가이드라인 연구(안)

[표Ⅱ-22] 전시디스플레이 가이드라인

구분	전시 디스플레이 이미지
A1 다양한 정보를 핵심적으로 정리하여 콘텐츠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검단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	
A2 전시물 중간중간 화이트 벽면을 이용하여 관련 콘텐츠 영상 투사	
A3 좁은 공간에 산만하지 않게 유물을 카테고리화하여 연출 전시관 백그라운드 벽면을 이용한 콘텐츠 영상 연출	
A4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형성과 디자인이 가미된 공간디자인 요소 추가	

구분	전시 디스플레이 이미지
A5 대표유물 전시연출 구성에서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한 정보전달	
A6 보다 입체적이고 디자인적으로 공간을 느끼며 관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출	

3) 어린이체험관을 위한 전시연출(안)

■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전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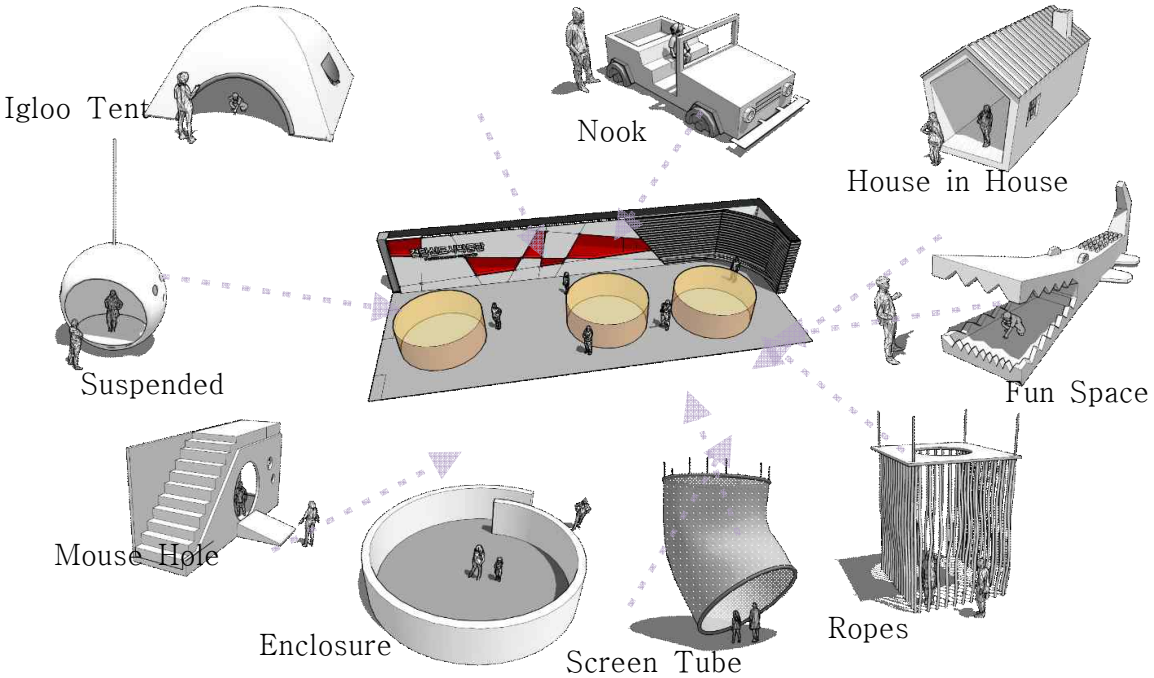
◦ 다양한 매스 스터디를 통해 서로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통해 실제 전시연출에 반영

■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연출

◦ 구멍, 동굴, 루프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체험적 전시공간 연출

■ 몸 체험에 적합한 공간연출

◦ 다양한 신체활동, 시각, 촉각, 청각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연출



[그림Ⅱ-5] 어린이체험관 공간제안

6. 타깃분석

가. 타깃설정

■ 주요타깃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주요타깃 관람객은 ① 학생 단체 ② 어린이 동반 가족으로 설정함

- 최근 교육과정의 진화로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장소로 박물관을 높이 선호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와 교사들 역시 박물관이 학교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재방문율 및 계층분석을 위한 시범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 방문 시 동반자 유형은 '가족'이 5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브타깃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서브타깃 관람객은 ① 20대 일반인 ② 시니어 ③ 외국인 관광객으로 설정함

-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찾는 20대가 늘어나면서 영화나 공연에 집중됐던 문화향유가 전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음
- 사회교육기관이자 평생학습의 장으로 박물관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박물관이라는 공간적 이점을 활용한 노인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이 입지하고 있어 타지역과 비교하여 외국인 유입에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음. 2019년 인천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41만 명으로 2018년 대비 11% 증가하였음

나. 타깃별 전시주제

[표Ⅱ-23] 검단신도시박물관 타깃별 전시

구분	타깃의 특성	타깃에 맞는 주제선정
학생단체관람객	학생의 단체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교과분석, 교육현장모니터링, 교육전문가 참여) 교육 참여자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교육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청동기문화 경험을 넘어 발견과 분석의 고고학 체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수행과제나 체험학습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구분	타깃의 특성	타깃에 맞는 주제선정
가족관람객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며 공동의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필요 검단신도시박물관은 인근 신도시 입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소가족에게 적합한 교양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	검단의 시대별 문화체험 검단신도시에 대한 연대와 공감 형성
	자녀의 역사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해 방문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가족형 힐링 프로그램 개발	
20대 관람객	행위예술, 실험음악 등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박물관 내부에 도입하고 있음 일상적 문화공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접근을 통해 박물관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인식시킴	역사가 문화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곳. 박물관 역할과 기능의 확대
	문화이벤트, 뮤지엄나이트 등 신선한 소재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의 문화적 역량 강화	
시니어관람객	노인들로 하여금 박물관 소장품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유물이나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직접 만져보며, 신체적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	시대별 토기 고려시대 차문화 조선시대 음식문화(예빈사) 등을 직접체험
	강의식 '노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활동과 신체적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외국인 관광객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다국적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인천의 특성을 살린 박물관 네트워크를 관광자원화하여 제공 대한민국의 대표 고고학 박물관으로 브랜드화	관람의 편리함 문화의 한국스러움과 검단의 개성을 드러내는 고려 차문화 경험, 한국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신도시 검단
	외국어 가이드 북, 도슨트 제공 인천고고박물관의 브랜드화를 통해 관광과 연계	

선사시대문화, 고고학에 대한 다층적 체험	**즐거움과 휴식 편리함 체험**	**검단의 복합문화클러스터 비일상적 문화경험**

↓

세대가 함께 경험하고,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역사문화 체험의 장

Ⅲ

전시기본계획

1. 전시기본방향
2. 상설전시 기본계획
3. 유구전시관 기본계획
4. 기획전시 기본계획
5. 야외전시 기본계획
6. 특별전시 기본계획

1. 전시기본방향

1.1 검단신도시 박물관 비전과 미션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향유공간, 인천고고박물관'

검단의 시간을 간직하는 '고고학 박물관'	검단, 인천서북권 역사를 탐구하는 고고학 중심 박물관 검단신도시 및 인천의 발굴유물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고고학 중심의 교육문화공간
시민과 함께 활동하는 '체험 박물관'	검단주민의 여가와 문화향유의 중심 검단의 역사문화를 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중심의 복합문화공간
검단과 함께 성장하는 '역사 박물관'	검단신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제시 검단신도시 계획단계부터 건립, 성장을 기록함으로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미래로 성장하는 신도시 박물관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문화 박물관'	검단의 역사, 생활, 휴식, 교육이 집약되는 문화공간 박물관, 도서관, 근린공원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이 모이고 문화를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검단문화의 중추적 역할 수행

[그림Ⅲ-1] 검단신도시박물관 비전과 미션

1.2 추진전략

1)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경험 제공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첨단 기술을 활용한 VR,AR, 메타버스 뮤지엄

° VR, AR, 메타버스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몰입형 전시경험을 제공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입함

° 가상현실(VR), 움직이는 도구(mobile), 착용하는 도구(wearable), 삼차원 프린터(3d printing)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날로그적 전시체험 활동에서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디지털콘텐츠시스템 도입

모형+AR, 한성백제박물관

경복궁 정문 앞 미디어아트

[그림Ⅲ-2] 박물관의 디지털매체 활용사례

■ 유물과 지식전달에서 사람과 사건중심의 전시구성

° 유물 중심의 보는 박물관을 벗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몰입형 전시를 구성함

° 전시서비스 사용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를 구성함

[표Ⅲ-1] 박물관 트렌드 변화

유형의 **전시공간과 전시물이 가치를 제공** 유형의 **전시물 중심**으로 공간구성 **전시활동**을 통한 전시물 관람 유도	⇨	전시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가치 창출** 전시서비스의 **가치 창출 과정에 중점** 관람객과의 **공동의 경험가치** 생성

■ ICT 기반 디지털정보화를 통한 체계적인 유물관리시스템

° '검단아카이브'를 통해 소장품 및 박물관 활동의 디지털 정보 공유하고 이를 전시 및 교육자료로 활용함

°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인터랙티브한 소통형 전시환경을 구성함

■ 디지털 도슨트 도입

° 국내외 관람객들이 안내인의 도움 없이도 전시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도슨트를 도입함

° 전시해설의 경우 화상, 음성을 통해 전시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연령별 도슨트를 제공하여 적절한 전시해설과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관람객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활용하여 도슨트 뿐만 아니라 AR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숨겨진 'AR스팟'을 곳곳에 설치함으로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 'AR스팟'의 위치와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재방문을 했을 때에도 흥미를 갖고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가 협력을 통한 전시

■ 국내외 박물관,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고고학 중심의 역사전문박물관

◦ 인천서북권의 대표적 고고학 유물을 간직한 박물관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가,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교류 활동을 정례화함

◦ 고고학 박람회, 축제 등을 통해 대한민국 유일의 고고학 박물관으로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대중적인 고고학 문화 형성을 이끌어 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과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전시문화를 선도하는 박물관

◦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현대성과 품격을 갖고 관람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지역활동가와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의 토대를 제공

현대설치미술가와 국립중앙박물관 협업사례

넥슨과 국립민속박물관 협업사례

이흥재, 신라 그 푸른 밤 '신라를 다시본다' 시리즈 국립경주박물관

[그림Ⅲ-3] 박물관 협업사례

3)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복합문화공간

■ 문화향유와 재미를 함께 전달하는 아트뮤지엄

° 미디어아트, 디지털실감영상, 프로젝션 영상 등 역사와 예술이 결합을 통한 아트뮤지엄을 지향함

■ 도서관, 근린공원과 연결되는 박물관 활동

° 박물관의 야외전시공간, 고고학 체험장, 문화유산 답사, 고고학 축제 등 함께 건립되는 도서관, 근린공원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전시와 체험, 전시와 교육이 결합된 전시프로그램 구성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시관에서 자기주도적 체험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현

서울시립미술관 애플리케이션 활용 모바일 투어

대림미술관 모바일 투어

[그림Ⅲ-4] 박물관의 애플리케이션 사례

4) 관람객을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

■ 다양한 사용자층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 장애 유무나 성별,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환경과 휴게 편의시설을 조성함

국립중앙박물관 그래픽 패널 위치 | 평균치수가 아닌 모두에게 가능한 치수

[그림Ⅲ-5] 박물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무장애전시환경 및 휴게편의 조성

평균치수가 아닌 모두에게 가능한 치수 - 국립중앙박물관

[그림Ⅲ-6] 박물관의 무장애전시환경 사례

1.3 전시콘텐츠 구축방향

1) 전문성과 개방성이 확립된 박물관

- 검단신도시박물관은 신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그에 부합한 전시, 체험 콘텐츠를 구축함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고학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냄

2) 교육과 체험중심의 전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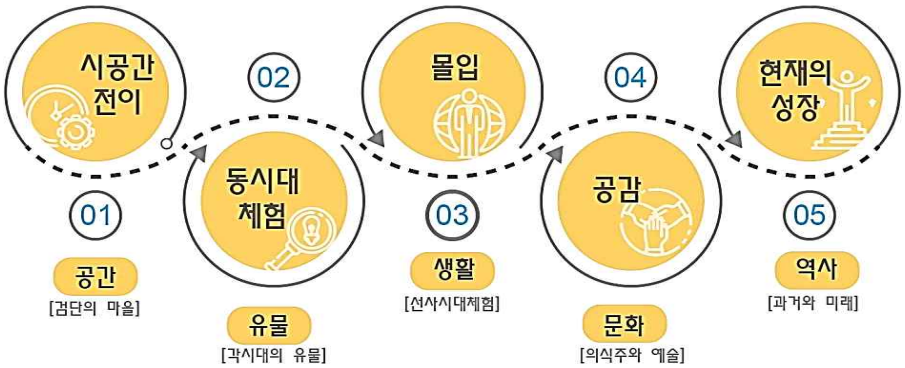
■ 체험형 전시의 목표 및 전략

° 사료와 사건 사이의 맥락 이해

° 아날로그적 요소와 디지털 요소의 효율적 결합

° 일차원적 감각적 체험을 벗어난 관람객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

■ 역사적사고(historical thinking)의 체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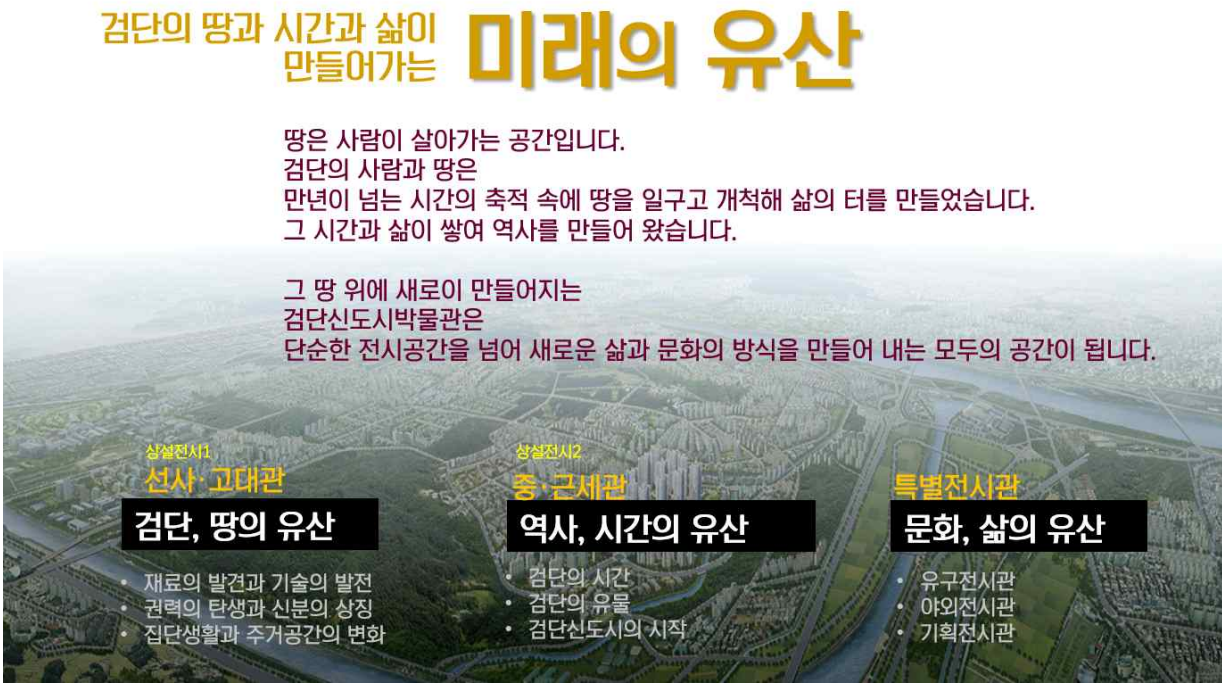
[그림Ⅲ-7] 역사적사고의 체험화 과정

3) 편안하고 풍요로운 문화기관

° 검단신도시박물관은 지역의 다양한 유적, 유물과 문화를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과 더불어 역사 이해와 문화체험을 넘어선 감성중심의 '브랜드 뮤지엄(Brand Museum)'으로 정체성을 확립

[그림Ⅲ-8] 감성중심의 검단신도시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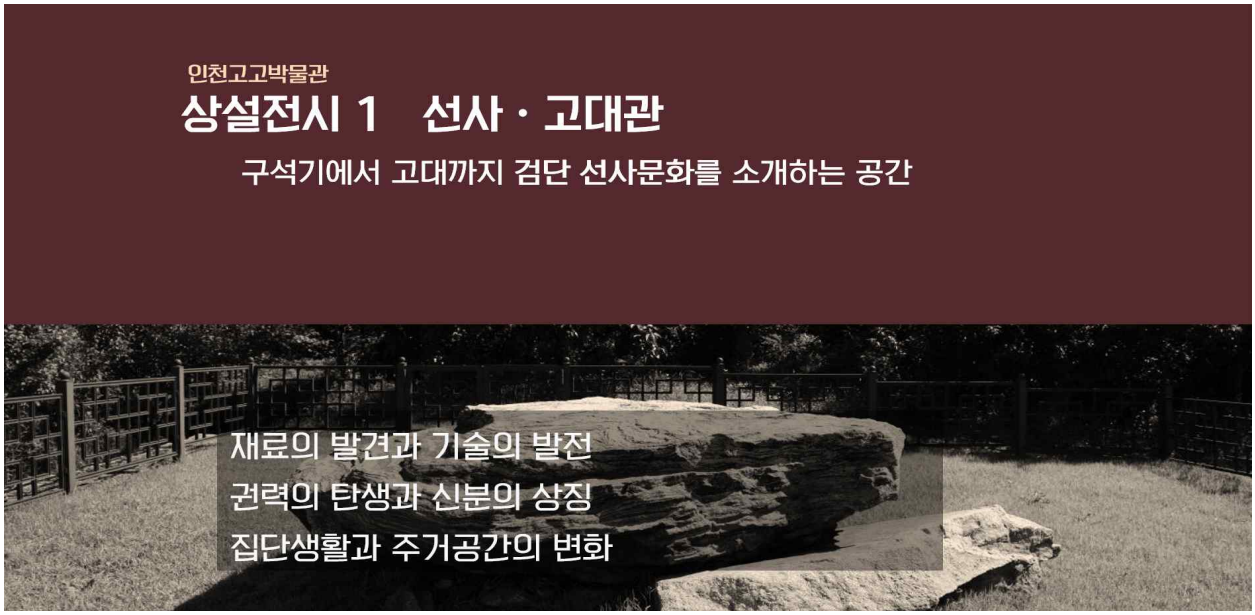
1.4 전시 스토리라인



[그림Ⅲ-9]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 스토리라인

2. 상설전시 기본계획

2.1 선사·고대관



가. 전시 개요

- 인천서북권과 검단의 발굴유물을 토대로한 선사고대 역사의 흐름과 사회상을 전시
- 매장유물 발굴의 의미와 발굴과정을 바탕으로한 고고학 특화전시
- 다양한 유물과 연출매체를 활용한 체험중심의 전시

나. 전시 주제 구성안

[표Ⅲ-2] 선사·고대관 전시구성

구분	전시특성	전시영역	전시주제	소주제
선사·고대관	구석기에서 고대까지 검단 선사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ZONE1	재료의 발견과 기술의 발전	1-1. 석제도구 및 생활도구 1-2. 도토류의 발전 1-3 계급의 탄생과 금속도구류
		ZONE2	권력의 탄생과 신분의 상징	2-1. 청동기문화의 시작 2-2. 신을 위한 도구 2-3. 권력의 상징
		ZONE3	집단생활과 주거공간의 변화	3-1. 주거의 공간 3-2. 종교의 공간 3-3. 조상의 공간

■ 상설전시1 선사·고대관 <ZONE 1>

전시주제

“재료의 발견과 기술의 발전”

1) 전시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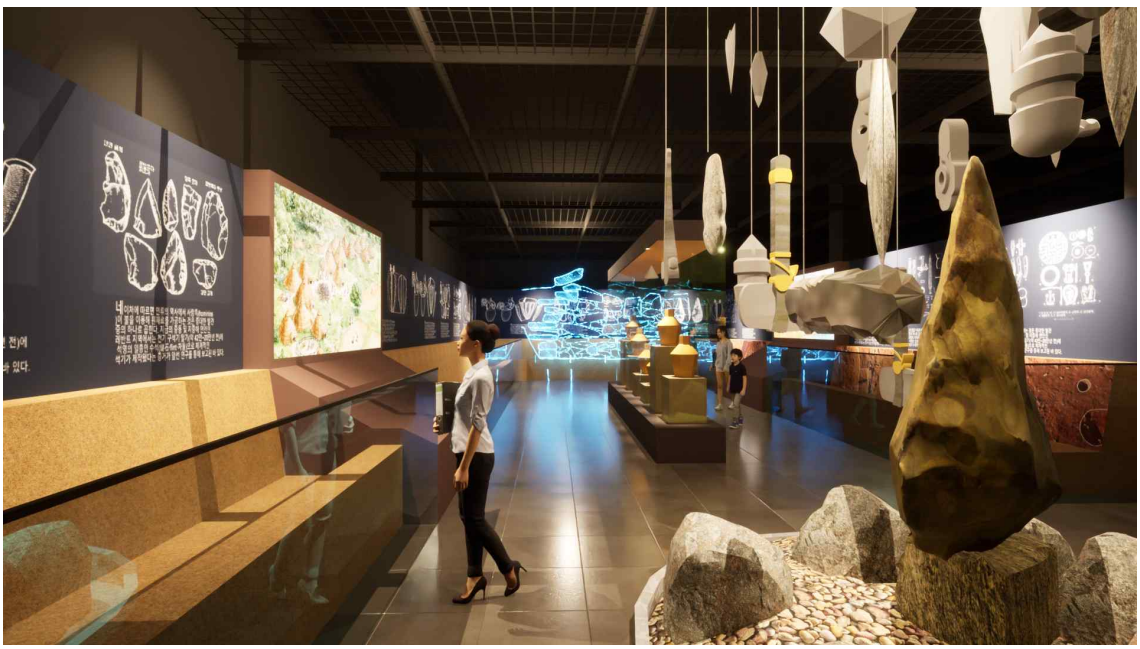
- 구석기에서 철기에 이르는 재료의 발견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구와 생활 모습의 변화 소개
- 돌, 흙, 금속의 재료를 활용하여 생산도구에서 장식 도구로 진화하는 과정을 사회적 맥락을 통해 소개

2) 대표유물 : 주먹도끼, 돌칼, 돌도끼, 석창, 석촉 등

3) 전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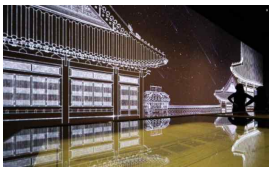
“검단 석제도구의 발전”	“검단 토기류의 발전”	“검단 금속도구의 발전”
자연의 재료 – 돌	자연의 재료 – 흙	가공의 재료 - 청동기,철기
구석기~신석기시대 석기	신석기~초기철기시대 토기	야금, 재련의 시작
청동기시대	원삼국~통일신라 토기	청동기~철기시대 금속도구

4) 전시연출 이미지(안)



상설전시1	대주제 <ZONE 1>	중주제
선사고대관	재료의 발견과 기술의 발전	석제도구의 발전

1-1-1 자연의 재료 '돌'

연출 개요	검단의 지도, 대표유물, 질문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인트로 이미지 영상 구성			
연출 방법	프로젝션 영상 / 인트로 인포메이션 월			
연출 내용	순서	화면구성이미지	구성내용	time
	Intro		[검단신도시 이전 타임슬립] # 검단신도시 건립과정을 거꾸로 전개하여 개발 이전으로 타임슬립 # 질문하기-우리가 살기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0:30
	Body 1		[대표유물 미디어아트] # 검단에서 출토된 대표유물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1:00
	Body 2		[유물 및 유적지 3D 복원 연출] #일부분만 남아있는 유물이나 유적지를 3D로 복원하는 영상을 통해 향후 관람과정에서 유물의 원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	1:00
	Outro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 # 선사시대 검단인들은 어떤 곳에 살았을까? # 발굴된 유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 검단은 어떤 과정을 걸쳐 오늘에 이르렀는가?	0:30

1-1-2 구석기~신석기시대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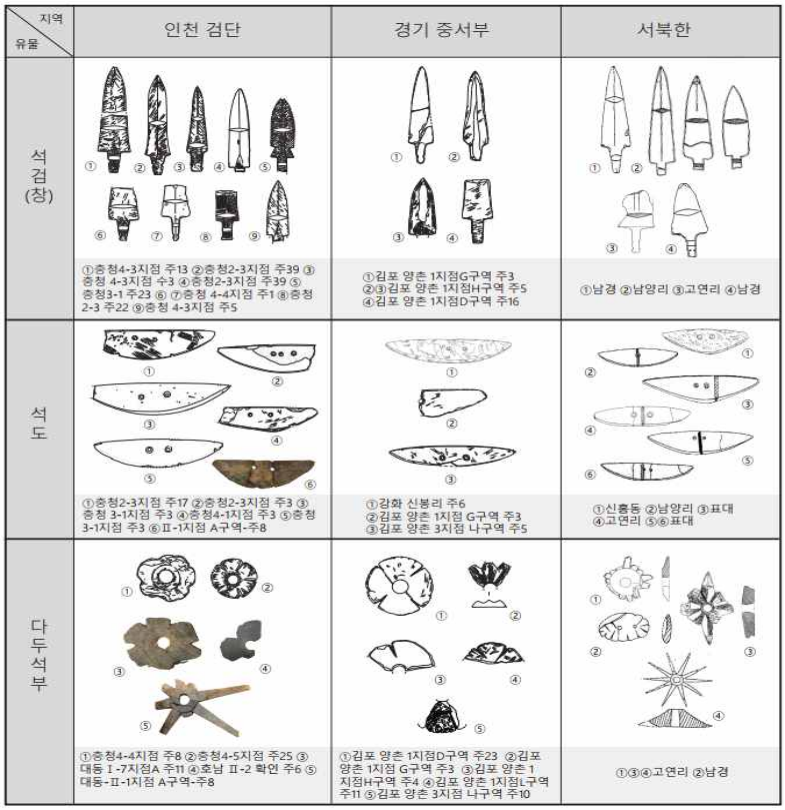
전시개요	1. 원당동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과 인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물의 의미 소개 2. 구석기시대 해안선과 신석기시대 해안선 비교를 통해 당시의 자연환경 소개 3. 구석기시대의 도구(찍개, 주먹도끼, 긁개, 밀개 등)의 종류와 제작방법 4. 구석기와 구별되는 신석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지 도구제작방법, 주거지의 변화, 사회구성의 변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벽부형 쇼케이스, 촉각모형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원당동 구석기 유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2000년 초까지 발굴유적이 없어 확신할 수 없었던 인천의 구석기유적을 서구 원당동에서 처음 찾았다. 원당동에서 인천 최초로 구석기유적이 찾아졌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인천 지역에서 가능성으로만 여겨졌던 구석기시대의 유적을 정식 발굴조사로 확인했다는 점, 둘째, 인천 역사의 상한선이 마침내 구석기시대로 상회했다는 점이다. 당시 원당동 일대의 주변 환경은 어땠을까. 지금의 검단선사박물관 일대인데, 유적 주변에는 해발 100m 정도의 높지 않은 만수산, 고산, 묘지산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유적은 구릉 끝부분에 위치한다. 현재 원당동 유적에서 서해안까지는 직선거리로 10㎞, 한강까지는 5㎞인데, 과거에는 해안가나 강가와 훨씬 더 가까웠을 것이다. 따라서 원당동 구석기인은 어로 활동이 쉬웠을 것이며, 주변 구릉성 산지가 많아 채집 및 사냥 활동에도 유리한 조건이었음이 분명하다. 발굴된 석기는 모두 99점이며, 돌감은 흔히 말하는 '차돌'인데 석영계통이다. 출토된 유물의 종류로는 석기를 만들고 남은 몸돌(Core),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Flake), 돌을 떼어서 공처럼 둥글게 만든 여러면석기(Polyhedron), 부엌-조리용으로 짐승의 가죽이나 나무껍질을 긁어내거나 밀어낼 때 쓰는 긁개(Side-scraper)와 밀개(End-scraper), 석기 제작을 위한 망치(Stone-hammer), 그밖에 부스러기(Debris) 등 다양한 도구가 발견되었다. **질문2. 구석기와 구별되는 '신석기 혁명'은 무엇일까?**

수렵채집 사회의 석기	석기를 통해 살펴본 청동기문화와 생업경제 돌화살, 돌칼, 돌도끼 등 사냥용 석기 청동기 석기의 분포
농경사회의 석기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농경의 시작임. 1만년 전 빙하기가 막을 내리며 농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인류는 더 많은 시간을 도구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됨
석기의 제작	뗀석기와 간석기 석기의 제작과정 이해와 체험 제작과정에 사용된 망치, 가죽 등 보조기구 석기의 아름다움

전시자료예시	검단선사박물관이 보유한 구석기,신석기 유물-주먹도끼, 긁개 등 주먹도끼 원당동출토 긁개

1-1-3 청동기시대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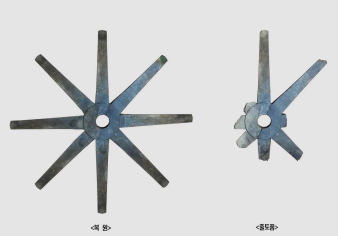
전시개요	1. 청동기시대 석제도구를 석검, 석도, 석촉 등 유형별로 나누어서 전시 2. 검단에서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많은 유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연출 3.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상되거나 조각난 유물의 원형을 입체적으로 돌려가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3D로 복원하여 전시 4. 촉각모형을 통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유물을 만져보고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함
연출매체	터치스크린, 그래픽패널, 조감형 쇼케이스, 촉각모형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검단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석제도구는 무엇이고 그 용도는 무엇일까? 질문2. 검단에서 발굴된 가장 특징적인 석제도구는 무엇일까?



유물 \ 지역	인천 검단	경기 중서부	서북한
석검(창)	①층청4-3지점 주13 ②층청2-3지점 주39 ③층청 4-3지점 주3 ④층청2-3지점 주39 ⑤층청3-1 주23 ⑥ ⑦층청 4-4지점 주1 ⑧층청2-3 주22 ⑨층청 4-3지점 주5	①김포 양촌 1지점G구역 주3 ②③김포 양촌 1지점H구역 주5 ④김포 양촌 1지점D구역 주16	①남경 ②남양리 ③고연리 ④남경
석도	①층청2-3지점 주17 ②층청2-3지점 주3 ③층청 3-1지점 주3 ④층청4-1지점 주3 ⑤층청3-1지점 주3 ⑥Ⅱ-1지점 A구역-주8	①강화 신봉리 주6 ②김포 양촌 1지점 G구역 주3 ③김포 양촌 3지점 나구역 주5	①신흥동 ②남양리 ③표대 ④고연리 ⑤⑥표대
다두석부	①층청4-4지점 주8 ②층청4-5지점 주25 ③대동 Ⅰ-7지점A 주11 ④호남 Ⅱ-2 확인 주6 ⑤대동-Ⅱ-1지점 A구역-주8	①김포 양촌 1지점D구역 주23 ②김포 양촌 1지점 G구역 주3 ③김포 양촌 1지점H구역 주4 ④김포 양촌 1지점L구역 주11 ⑤김포 양촌 3지점 나구역 주10	①③④고연리 ②남경

전시자료예시

Ⅱ-1지점 A구역 제24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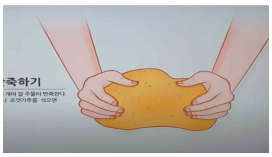
Ⅱ-2지점 A구역 제8호 주거지 출토유물

상설전시1	대주제	중주제
선사고대관	재료의 발견과 기술의 발전	검단 토기류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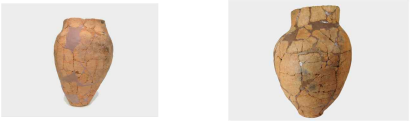
1-2-1 자연의 재료 '흙'

연출 개요	흙의 다양한 용도와 선사시대인들이 흙을 이용해 도구를 만드는 과정 소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직접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연출 방법	프로젝션 영상

연출 내용

순서	화면구성이미지	구성내용	time
Intro		[흙을 이용해 토기 만든 역사] #구석기와 달리 신석기시대부터 정착을 하면서 흙을 이용해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	0:30
Body 1		[토기만드는과정] # 신석기 토기제작 과정, 향후 물레사용 # 시대별로 토기에 넣는 무늬 알아보기	1:00
Body 2		[토기 굽기] # 도자기 굽기에서 열의 중요성 # 고려청자, 조선백자를 굽는 가마의 온도 # 신석기시대 토기는 어떻게 구웠을까?	1:00
Outro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 # 한국인의 자부심 도자기, 그 시작인 신석기토기부터 도자기 여행 시작	0:30

1-2-2 신석기에서 초기철기시대

전시개요	1.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를 구분하는 토기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던지기 2. 각 시대별 토기의 특징과 용도를 설명하는 그래픽패널 3. 대표유물을 360도 회전하며 전시할 수 있는 VR전시 4. 퀴즈 맞히기 - 검단에서 출토된 토기의 완형 또는 파편을 보고 어느 시대 유물인지 맞추는 퀴즈. 관람 중 주어지는 여러 퀴즈를 맞히면 포인트를 쌓아 뮤지엄샵에서 사용하거나 기부하는 프로그램 진행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벽부형 쇼케이스, VR체험장치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를 구분하는 토기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인천 검단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성격** 검단의 청동기시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조기 말~전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이중구연 토기문화는 그동안 유적 수가 많지 않고 유물 양상도 복합적인 요소가 일부 혼재되어 있다 검단지역에서 후기와 초기철기시대는 유적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기까지 성행 하던 역삼동유형의 문화는 급감하고,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어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수의 유구와 유물만 확인된다. 중기의 관련주거지(중앙 마지구 5·11호)와 주변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송국리문화가 이 시기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김권중 2018)
전시자료예시	신석기 빗살무늬토기, 청동기 무문토기, 초기철기시대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옹 등 Ⅱ-1D지점 신석기 주거지 유물  V-2-3 호형 무문토기 Ⅱ-2A 무문토기호 V-4-5 발형토기 무문토기호 Ⅲ-3A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옹 흑도호 V-1B 흑도장경호

1-2-3 원삼국에서 통일신라시대

전시개요	1. 검단은 신라시대와 원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토기 전시 2. 각 시대별 토기의 특징과 용도를 설명하는 그래픽패널 3. 대표유물을 360도 회전하며 전시할 수 있는 VR전시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벽부형 쇼케이스, VR전시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검단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 있을까?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주거지

[표 2] 인천 검단유적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현황표

조사기관	지점	유구명	평면형태	규모(m)	내부시설	출토유물
대동	Ⅰ-7지점 A구역	원삼국 주거지	타원형	4.4×3.7×0.34	주혈3	타날문토기편
대동	Ⅱ-2지점 A구역	삼국 주거지	말각방형	5.12×4.76×0.46	노지,주혈,벽구	장동호1
중부	Ⅳ-4지점	삼국 주거지	방형	2.05×3.55×0.36	주혈4	백제토기편
합계	3기					

인천 검단 유적의 사례는 소수이므로 주거공간과 생산공간, 분묘영역 등이 구분되는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포 운양동과 인천 구월동 유적의 경우, 분묘는 구릉 정상부 및 이와 가까운 사면부에 입지하고 주거지와 수혈은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여 참고가 된다.

인천 검단유적 인근에서 원삼국~백제 주거지가 조사된 곳은 인천 운북동, 중산동, 운남동 유적, 만수동 유적, 구월동, 연희동, 김포 운양동, 양촌 등이 있다.

인천 검단유적에서 조사된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는 선행연구와 인근 지역의 조사 사례를 참고할 때, 마한계 사주식 주거지의 분포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 3기는 모두 단독으로 구릉 끝단에 위치하고 주변에 연관되는 유구도 없어서 취락의 주 분포영역에서 벗어난 임시 주거지로 판단된다. 주거지와 관련된 유구로는 저장시설로 알려진 플라스크형 수혈이 있다.

출토유물

출토유물 중 위세품은 철검, 철창, 환두대도 등이 있고 장신구는 관옥 등 구슬류가 출토되었다. 철제 무기로는 철모, 철촉이 있고 공구류는 철부, 철겸, 철도자가 있다. 토기류는 단경호와 소호, 대옹편 등이 출토되었다

전시자료예시

원삼국시대 원저단경호, 토기소호, 통일신라 호형무문토기, 수막새, 대부완, 고배, 대부장경호 등

백제시대 출토토기

V-4-4 원저단경호

V-4-4 토기소호

V-2-3 통일신라 호형 무문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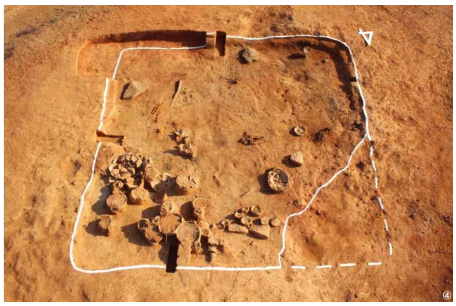
V-7-3 대부장경호

V-7-3 고배

상설전시1	대주제	중주제
선사고대관	재료의 발견과 기술의 발전	검단 금속도구의 발전

1-3-1 가공의 재료 – 청동기, 철기

연출 개요	청동기, 철기 재료에 대한 이해와 금속도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해			
연출 방법	프로젝션 영상			
연출 내용	순서	화면구성이미지	구성내용	time
	Intro		[청동기, 철기의 발견] # 질문하기-선사인은 언제 금속을 발견했을까? #기원전 8000년 전 중동에 살던 인류가 돌 속에 포함되었던 구리를 발견하여 금속에 열을 가해 추출하여 사용	0:30
	Body 1		[거푸집 만드는 과정] #돌판을 갈아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 #흙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	1:00
	Body 2	 출처:에듀넷	[금속도구를 만드는 과정] # 금속도구 제조과정 1. 돌을 갈아 거푸집 만들기 2. 돌판 2개를 묶어 거푸집 완성하기 3. 청동용액을 거푸집에 붓기 4. 숫돌에 갈아 다듬고 마무리 손질하기	1:00
	Outro		[금속도구가 만들어낸 선사시대 생활의 변화] # 청동기시대 청동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철기시대 철기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0:30

1-3-2,3	야금, 재련의 시작/ 청동기에서 철기시대까지 금속도구
전시개요	• 청동기 유물 제작과정과 한반도의 대표적인 청동기유물 소개 • 검단에는 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을까? • 검단에서 발굴된 철기유물과 한반도의 대표적인 철기유물 소개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조감형 쇼케이스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검단에서 청동유물은 발굴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청동기 유물] 한국의 청동기로는 세형동검·잔무늬 거울, 청동촉·구리창 등이 있다. 특히 세형동검은 만주, 한국, 일본의 규슈(九州), 러시아의 연해주에까지 걸친 광대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난날 한국에서 나오는 간석기 돌검은 동검의 모방품이라고 보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해석이 타당성을 잃고 있다. 그 외 경문청동기를 비롯하여 제사나 주술 등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가지방울이나 잔무늬 거울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인천 운북동 발굴유물** -영종도 북동쪽 해안가와 인접한 능선 정상부에 위치 -주거지 2기(3m/6m), 수혈 9기 -분형토기, 오수전, 철경동촉, 철갑편, 철부, 철겸 등 출토
전시자료예시	 인천 중산동 발굴유물 원색사진 7. 원삼국시대 토기 및 기와류 일괄(①), 원삼국시대 오수전 및 철경동촉 일괄(②) 인천운북동 발굴유물

■ 상설전시2 선사고대관 <ZONE 2>

전시주제

"권력의 탄생과 신분의 상징"

1) 전시목표

- 청동기시대 도구의 발전으로 지배계층이 탄생하고 권위와 상징의 도구로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 소개
- 검단만의 특별한 유물을 알아보고 그 유물들 속에 담겨있는 선사인의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2) 대표유물 : 철제검, 청동 허리띠, 별도끼, 구슬 등

3) 전시구성

"권력과 지배계층 탄생의 도구"	"신을 위한 도구"	"장식을 위한 도구"
농기구의 발달과 저장문화	고대신앙과 종교의식	위신재- 권위와 신분의 상징
사냥의 도구에서 전쟁의 도구로	제사장의 도구	유물에 새겨진 무늬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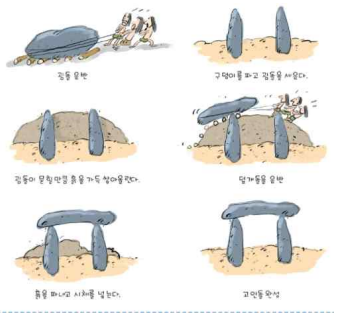
4) 전시연출 이미지(안)

상설전시1	대주제 <ZONE2>	중주제
선사고대관	권력의 탄생과 신분의 상징	권력과 지배계층 탄생의 도구

2-1-1 농기구의 발달과 저장문화

전시개요	1. 청동기시대 지배 계층의 탄생 배경을 유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2. 청동기시대 농사작물, 농지조성, 소유관계, 잉여생산물의 저장 등 농업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오라마, 영상, 그래픽패널 등 복합연출 3. 청동기시대 농경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중 검단신도시박물관에는 없는 유물을 복제 또는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전시하여 검단 유물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함
연출매체	디오라마, 그래픽패널, 벽부형 쇼케이스, 인트로 인포메이션 월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청동기시대 농기구 발달과 계급의 탄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청동기시대 농업의 발달로 잉여생산물이 발생하였고 이를 사유화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계급이 탄생하게 되었다. 계급의 탄생으로 선민사상이 출현한다. 선민사상이란 권력을 가지거나 경제력이 우수한 부족들이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믿는 것이다. **질문2,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까?** 진주 대평리에서 많은 종류의 탄화된 곡식 알갱이들이 출토됐는데, 보리와 밀, 조와 기장, 수수 등 10여 가지가 넘게 확인됐다. 당시 농경을 발전시킨 것은 발달된 농기구였다. 특히 나무를 가공하는 석기의 등장으로 목재 농기구가 다양하게 개발됐는데, 이런 개량된 농기구는 농업 생산의 혁신을 가져다줬다. 부여 송국리에서 발굴된 다량의 탄화미는 이 지역에서 논농사를 했음을 말해 준다. 송국리 토기에 찍힌 볍씨 자국도 당시 논농사의 직접적인 증거다. 농기구와 경작 기술의 발달은 농업 생산량을 크게 늘렸고, 사람들은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
전시자료예시	 석부 원형석기 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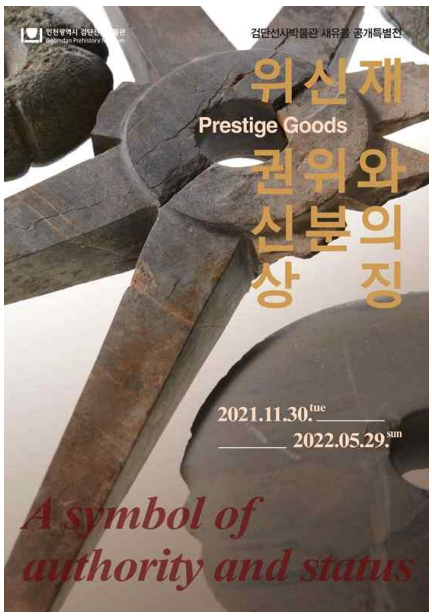
2-1-2 사냥의 도구에서 전쟁의 도구로	
전시개요	1. 청동기시대 이미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형을 만들어낸 무기류에 대한 설명과 나무와 돌, 끈을 이용해 당시에 사용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 2. 시각적인 데이터를 통해 당시 사용하던 돌화살, 돌창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VR 활쏘기 체험을 통해 실제 돌화살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넘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줌
연출매체	그래픽월, 벽부형 쇼케이스, VR 활쏘기 체험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신석기시대 수렵과 청동기시대 수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고고자료를 통해 상정한 청동기시대 수렵의 종류로는 활수렵과 창수렵, 함정수렵이 있다. 이 가운데 활(창)수렵은 구석기시대 이래로 존재한 반면, 함정수렵은 청동기시대에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활(창)수렵은 수렵 준비보다 짐승을 포획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함정수렵은 함정과 유도책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노동력이 함정에 갇힌 짐승을 포획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력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활(창)수렵과 함정수렵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은 수렵의 과정 가운데 준비와 포획에 분배되는 노동력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함정수렵이 활(창)수렵에 비해 손실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질문2. 수렵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렵에서 확인되는 변화의 방향으로 본다면 다른 생계 형태에 분배하는 노동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다른 생계 형태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아지면서 수렵에 분배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렵방법이 변화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청동기시대 수렵과 채집, 김동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청동기시대 전쟁** 비파형동검과 이를 모방한 석검은 실용성보다 신분을 나타내는 위세품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개인 무기형 단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은 전투 지휘자로서 유력자 또는 유력집단의 등장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석촉은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편평무경촉은 수렵구, 능형촉은 무기로서의 기능이 상정된다. 청동기시대 전쟁은 영토확장보다는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통한 상징적인 성격을 띠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청동기시대 전쟁의 성격, 손준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전시자료예시	 검단 출토 석촉과 석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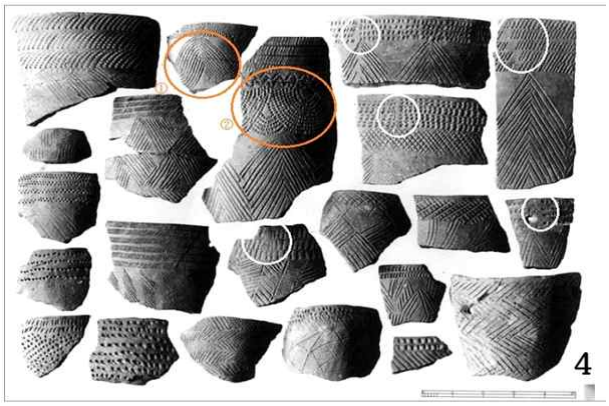
2-1-3 고인돌	
전시개요	1. 청동기시대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의 제작과정과 그에 소요되는 인력을 통해 청동기시대 부락의 규모 추정하여 보면서 한반도 다른 지역과 검단지역의 취락규모를 비교 2. 한반도 지석묘 분포를 알아보기 3. 검단지역에서 발굴된 3기의 지석묘 소개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모형, 디지털패널을 이용한 지석묘 만들기 체험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한반도에는 왜 고인돌이 많을까?** 고인돌은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영어로는 돌멘(Dolmen)이라고 한다. 고인돌은 거석기념물의 하나이며 피라미드(Pyramid), 오벨리스크(Obelisk) 등 이집트나 아프리카 대륙의 각종 석조물과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 카르낙의 열석(列石) 등이 모두 거석문화의 산물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적인 분포권에서 가장 밀집된 곳으로 그중 우리나라가 그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0여 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화순·강화고인돌유적(Gochang, Hwasunand Ganghwa Dolmen Sites)은 밀집분포도,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질문2. 왜 검단에서는 고인돌이 3기만 발견되었을까?** 고인돌은 총 3기가 조사되었다.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적극적인 해석은 어려우나 그중 2기는 탁자식으로 추정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가현산 일원 대곡동 고인돌군에는 고인돌이 100여 기가 분포하고 있는데, 검단신도시에는 3기만이 확인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생활지역과 매장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반도 고인돌 분포도  고인돌 제작 과정
전시자료예시	 검단 대곡동 지석묘 검단택지지구에서발굴된 지석묘위치

상설전시1	대주제 <ZONE2>	중주제
선사고대관	권력의 탄생과 신분의 상징	신을 위한 도구

2-2-1,2 고대신앙과 종교의식/제사장의 도구	
전시개요	1. 조명과 음향으로 신비롭게 연출된 공간에 들어서면 제사장이 별모양도끼를 들고 농사와 사냥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연출함 2. 청동기시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단의 유물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기 3. 특히 그 모양이 특이한 별모양도끼는 남한지역에서 발굴된 것 중 가장 큰 것으로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4. 청동기 지배층이 사용한 유물을 이용하여 제사장 꾸미기 체험하고 자신의 얼굴과 합성하는 포토체험. 사진은 미디어월을 통해 전시하며 메일이나 SNS를 활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함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벽부형 쇼케이스, 디지털패널, 촉각모형, 미디어월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제사장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제사장의 모습
전시자료예시	 별모양도끼 화순 대곡리 출토유물

상설전시1	대주제	중주제
선사고대관	권력의 탄생과 신분의 상징	장식을 위한 도구

2-3-1 위신재-권위와 신분의 상징	
전시개요	1. 힘과 부를 지니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착용한 위신재를 시대적 배경과 함께 소개. 장식적 요소가 많은 전시물로 실제 그 권위와 상징성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연출 2. 청동과대, 다두석부 모형을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마련 3. 오늘 나 또는 같이 관람을 온 가족, 친구가 착용하고 있는 위신재는 무엇인지 찾아서 공유하는 체험코너
연출매체	벽부형 쇼케이스, 그래픽패널, 디지털패널,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위신재를 착용하는 배경과 시대별 위신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위신재, 권위와 신분의 상징** (2021.11.30.~2022.05.29.) 검단신도시 출토유물 가운데 위신재 100여 점을 선별하여 기획한 특별전 **제1부 "계급의 탄생"** 청동기시대 차별적 위계질서가 발생하면서 처음 등장한 위신재인 간돌검, 별모양도끼, 옥으로 만든 장신구 전시 **제2부 "권력의 정착"** 환두대도, 철검과 같이 고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힘이 되었던 철기와 외국에서 수입된 구슬 목걸이 등 삼국시대 지배층의 대표적 위신재 **제3부 "특권의 확장"** 상류계층만 누릴 수 있었던 고급문화가 다양한 계층의 일상 속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청자 다기, 청동 거울,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통해 살펴본 출처 : 경인매일 질문2. 오늘 내가 착용한 위신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시자료예시	삼국시대 구슬 통일신라 청동과대 삼한시대 관옥 원삼국경식

2-3-2 유물에 새겨진 무늬	
전시개요	1. 검단에서 발굴된 유물, 토기 파편에 새겨진 무늬를 이용한 미디어아트 연출을 통해 선사인들의 예술적 감각을 재해석하여 관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 2. 각종 토기 파편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재료의 질감과 무늬의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 3. 디지털패널을 이용하여 검단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의 무늬를 활용해 새롭게 꾸미는 체험을 통해 창의적 활동과 관찰력을 이끌어 냄
연출매체	미디어아트, 조감형 쇼케이스, 모양체험, 미디어아트, 라이팅체험테이블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토기에 새겨진 다양한 무늬는 어떤 의미일까?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전체적인 모양은 타원포물면과 흡사하며 그릇 표면을 빗살같이 길게 이어진 무늬 새기개로 누르거나 그어서 점·금·동그라미 등의 기하학무늬를 나타낸 등의 특징이 있다. 한자어 명칭인 '즐문토기'의 즐문(櫛文)은 '빗 모양 무늬'라는 뜻이다. 빗살무늬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주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토기 이전에 사용했던 게 버드나무나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도구들이라 그것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새겼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이 같은 예술 행위가 발생된 원인으로 수렵채집 시절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농경시대로 가면 빗살무늬토기보다 좀 더 발전되고 기능적인 형태지만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들이 나온다.(나무위키)  암사동 빗살무늬토기(국립중앙박물관) 질문2. 청동기토기에 무늬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자료예시	 신석기 빗살무늬 삼국시대 호 삼국시대 호 삼국시대 도토류 무늬 통일신라 암키와 인화문토기병

■ 상설전시2 선사고대관 <ZONE 3>

전시주제

"집단생활과 주거공간의 변화"

1) 전시목표

- VR, AR을 활용하여 청동기시대 대규모 주거지를 소개하고, 주거지, 공지, 환구, 매장지의 공간 위계를 소개
- 매장문화와 유물을 통해 시대별 특징과 그 시대 검단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신분, 검단의 위상을 이해함

2) 대표유물 : 주거지 재현, 삼국시대 단경호, 석곽묘, 석실묘 출토유물 등

3) 전시구성

"주거의 공간"	"종교의 공간"	"조상의 공간"
검단지역 신석기 주거지	청동기시대 제사장의 역할	청동기시대 매장문화
청동기시대 대규모 주거지 및 취락구조의 변천	환구의 조성과 공지	원삼국시대 매장문화
철기시대~삼국시대 검단의 주거지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4) 전시연출 이미지(안)

상설전시1	대주제 <ZONE3>	중주제
선사고대관	집단생활과 주거공간의 변화	주거의 공간

3-1-1 검단지역 신석기 주거지

전시개요	1. 신석기 유적지가 표시된 지도를 터치하여 유적지와 발굴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2. 인천의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영종도, 신안리)의 위치와 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단에 신석기 유적지가 적은 이유와 그 유적지의 용도를 추측해 볼 수 있도록 유도 3. 디지털도슨트가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추론할 수 있는 힌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체험프로그램이나 디지털 아카이브를 소개
연출매체	터치스크린, 그래픽패널, 조감형 쇼케이스,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검단신도시에는 왜 신석기인의 마을이 조성되지 않은 것일까?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주거지 5기가 조사되었다. 발굴면적에 비해 매우 적은 수량으로, 영종도, 김포지역(신안리) 등에서 대규모의 취락이 확인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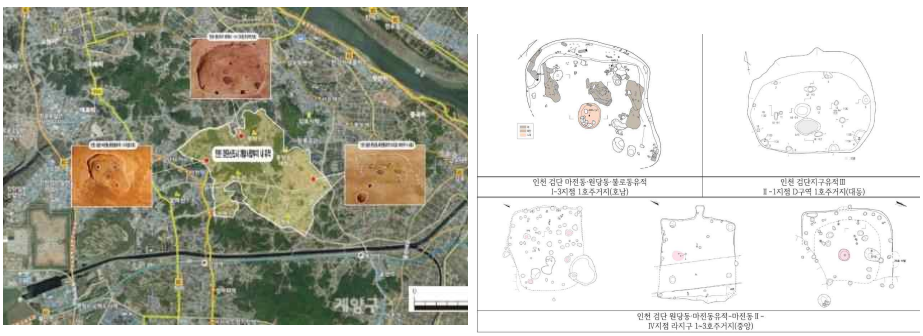
	유적	평면	내부시설	유물	연대
1	Ⅰ-3지점 1구역 1호	말각방형	수혈식노지(중앙), 단시설, 출입구, 주혈(4주)	즐문토기 (점열+횡주어골)	전기후반 -중기전반
2	Ⅲ-1지점 D구역 1호	말각장방형	수혈식노지(편향), 주혈(8주식)	즐문토기 (사격자+횡주어골)	후기 후반
3	Ⅳ지점 라지구 1호	방형	수혈식노지, 주혈(8주식), 내부공간분할	즐문토기 (횡주어골, 무문)	중기-후기
4	Ⅳ지점 라지구 2호	방형	무시설식노지(편향), 주혈(4주식)	즐문토기 (사선, 무문)	
5	Ⅳ지점 라지구 3호	방형	수혈식노지(중앙) 주혈(벽주), 내부공간분할	즐문토기 (횡주어골)	

표 96 검단신도시 신석기시대 주거지 현황(호남문화재연구원 2020의 글을 토대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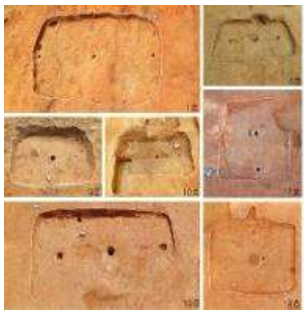
질문2. 검단신도시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용도는 무엇일까?

석기시대 취락은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바다나 강과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은 정주형태의 주거가 아닌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주거지가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전시자료예시



신석기시대 주거지 위치와 구조

3-1-2 청동기시대 대규모 주거지 및 취락구조의 변천	
전시개요	1. 검단에서 발굴된 대규모 청동기 주거지를 그래픽패널을 이용하여 설명 2. 터치패널을 이용하여 청동기 주거지를 클릭하면 당시 마을을 3D로 복원된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돌려보기 확대, 내부공간 보기 등이 가능하도록 연출 3. 가족공동체에서 취락공동체로 변화하면서 주거규모의 변화, 기능의 분화를 그래픽패널, 글라스비전을 이용하여 설명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글라스비전, VR 체험장치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점차 소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동기 중기, 농경의 발달로 잉여생산물이 증대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계층화가 진전되면서 기존의 가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세장방형의 주거지를 해체하고 취락공동체로 중심을 옮긴 (장)방형 주거지를 확산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취락공동체로 변화하면서 공방이나 창고 등 일반주거의 기능보다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유구도 발생하며, 이는 사회역할 분화의 한 단면으로 생각된다. 전기에 비해 중기의 유물에 큰 변화는 없으나 사회구조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한 결과 주거지의 소형화 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질문2. 청동기시대 정상부에 조성한 환호의 용도는?** 환호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 중부지역에서는 처음 확인된 사례이다. 2기 모두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지름은 2,200cm과 2,400cm로 유사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방어를 위한 시설로 보기보다는 주로 의례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시자료예시	 청동기 전기 세장방형주거지  청동기 후기 장방형 주거지

3-1-3 철기시대, 삼국시대 검단의 주거지

전시개요

1. 검단발굴지에서 발굴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2개를 소개
2. 초기철기시대 검단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개와 특징 이해하기
3. 삼국시대 한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패권을 겨루는 각축전이었는데 그럼 검단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소개
4. 삼국의 권력다툼에서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한강의 중요성을 당시의 한반도 주변 아시아의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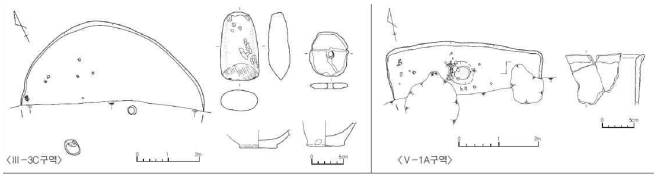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조감형 쇼케이스, 터치스크린, 애니메이션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청동기후기,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검단에서 발굴된 초기철기시대(10기) 유적은 주거지(2기), 목관묘(3기), 수혈(3기), 구(1기)가 전부이다. 초기철기시대 대표 유물로는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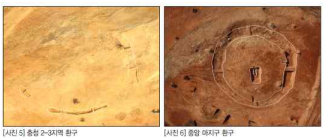


분기	토기	석기	주거지 등	비고
조기 말 – 전기 전반	이중구연, 단사선문, 거치문	-석도(주형, 어형), 갈판	-최대720cm, 너비 460~600cm 의 중소형규모 -노, 주혈, 저장공 등	-소규모 취락
전기 후반	구순각목 공열문 심발형호, 대부토기	-석부 (합인, 편인, 주상편인, 다두, 환상) -석검 (유경식, 이단병식, 유절병식, 혈구) -석도(주형, 장주형), 석창, 지석	-세장방형, 장방형 중심 -복수의 노, 수혈, 저장공, 벽구	-취락의 확산 -구릉정상 및 사면에 열상배치 -대형주거지 정상부, 중소형 사면
				-주거지 사면부 다중의 열상배치 -반복적 점유 -노지 미설치 주거지는 공방이나 창고 추정 -공지(광장)의 형성
중기	(구순각목)공열문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과 일체형석촉 -유구석부, 석겸 등	-주거지는 일반주거와 창고, 공방으로 구분 -세장방형 주거지 소형화 추세 -복수노지, 저장공, 벽구, 작업공 -환구, 고인돌, 수혈 등	-가장 성행한 시기 -송국리 영향 미미 -공지(광장)의 조성
후기	무문토기편	-일단경식석촉, 환상석부, 단주형석도	-방형, 장방형 주거지로 면적 20㎡이하 소형화	-유적 급감
초기 철기	원형·삼각형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장방형, 타원형(말각방형) 주거지	-주조철부 공반(철기 유입)

전시자료예시

초기철기 주거지 유구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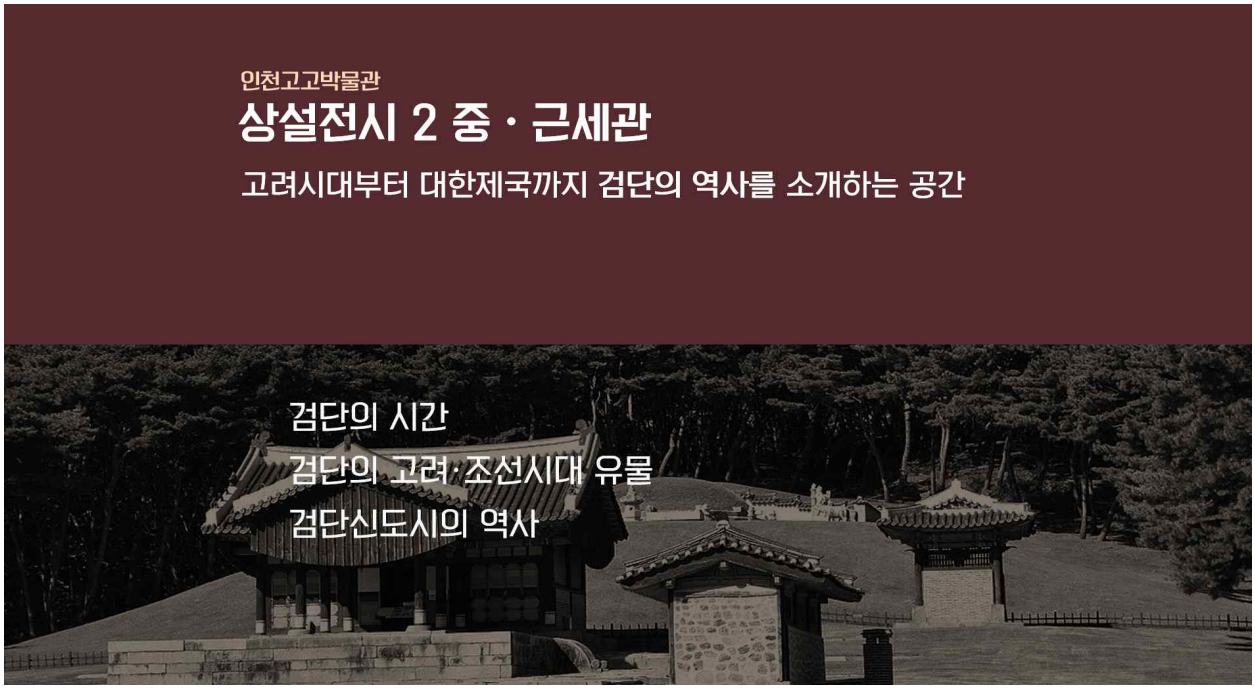
상설전시1	대주제	중주제
선사고대관	집단생활과 주거공간의 변화	종교의 공간

3-2-1, 2	청동기시대 제사장의 역할/환구의 조성과 공지			
연출 개요	청동기시대 계급의 탄생과 제사장의 역할, 환구와 공지의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자료			
연출 방법	프로젝트 영상			
연출 내용	순서	화면구성이미지	구성내용	time
	Intro		[검단에서 발굴된 환구의 기능에 대한 질문] # 환구와 공지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질문하기 # 왜 주거지와 분리된 곳에 환구를 조성하였을까?	0:30
	Body 1		[계급의 탄생과정] # 잉여 농산물을 통한 계급의 탄생,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각종 장신구가 발달하게 된 과정과 장신구를 착용한 제사장의 연출	1:00
	Body 2		[제사가 필요한 이유] #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제사의식의 발전하게 된 과정 소개	1:00
	Outro		[검단에서 발굴된 청동유물] # 검단에서는 애석하게도 청동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음 # 의례용이나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단의 청동기 유물소개	0:30

상설전시1	대주제	중주제
선사고대관	집단생활과 주거공간의 변화	조상의 공간

3-3-1,2,3 청동기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매장문화	
전시개요	1. 각 시대별 가장 상징적인 유구를 이전 복원 또는 재현하고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연출함 2. 유구와 함께 그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함께 전시함으로 당시 매장문화 및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 3. 유구 발굴과정을 담은 영상 및 사진과 함께 유구발굴의 중요성 설명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터치스크린, 조감형 쇼케이스, 홀로그램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청동기시대 고인돌은 누구의 무덤일까? 질문2. 우리가 분구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철제 장검과 철창, 관옥 등의 장신구가 부장된 분구묘가 가장 이른 시기의 최상위 분묘이며, 다인장인 사지구1호 분구 묘가 늦은 시기로 대체로 원삼국 후기인 3세기 중엽에서 백제 한성기인 5세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검단유적에서 원삼국~삼국시대에는 취락, 분묘, 생산유적이 모두 확인되어 이 일대의 중심 취락이 원삼국 후기에서 백제한성기까지 장기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철제 장검과 장신구 등의 위세품이 부장된 분구묘의 존재로 보아 상위 계급의 권력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충청 4-4 분구묘출토유물 대동 Ⅰ-7지점 B구역 철검 철제 장검은 漢 혹은 樂浪, 부여에서 사용되던 철제 장검과 동일한 형식으로 낙랑·대방지역에서 만들어진 제작품이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석실묘]** 석실묘와 석곽묘가 밀집된 Ⅳ-1지점인 원당동 고분군이 주목되는데, 고분의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장자의 신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석실묘의 비율이 석곽묘에 비해 높고, 평면 이 장방형인 것이 많으며 추가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부분 시상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 고리나 관정의 출토 수가 적어 목관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다. 석실 안에 부장칸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고분에 비해 토기 부장량이 많으면서 기종(器種)도 다양하며, 훼기된 토기도 있다. 이로 보아 원당동 고분군의 축조집단이 검단지역 안에서 위계가 높아 보이고, 거주기간도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단지역 고분 축조집단은 계양산성이나 수안산성과 거리가 있고, 무기류나 귀금속류가 거의 출토되지 않아 원당동과 당하동, 불로동을 중심으로 취락을 이루며 거주했던 신라인들의 무덤으로 보여진다.

2.2 중·근세관



가. 전시 개요

- 역사적 사료와 유물을 기초로 고려시대에서 검단신도시 조성까지의 역사를 전시함
- 검단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고려·조선시대 검단의 지리적 위상과 행정적, 외교적 역할에 대해 발굴유적을 토대로 검증하여 전시
- 검단신도시 조성과정과 박물관 건립과정, 미래 검단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전시공간

나. 전시 주제 구성안

[표Ⅲ-3] 중·근세관 전시구성

구분	전시특성	전시영역	전시주제	소주제
중·근세관	고려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검단의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	ZONE4	검단의 시간	4-1. 인트로 4-2. 검단의 연대기 4-3. 검단의 문화유산
		ZONE5	검단의 고려·조선시대 유물	5-1. 고려시대 검단유물 5-2. 조선시대 검단유물 5-3. 유물의 보존과 복원
		ZONE6	검단신도시의 역사	6-1. 20세기 검단의 마을 6-2. 검단신도시 발굴기록 6-3. 검단신도시

■ 상설전시2 중근세관 <ZONE 4>

전시주제

“검단의 시간”

1) 전시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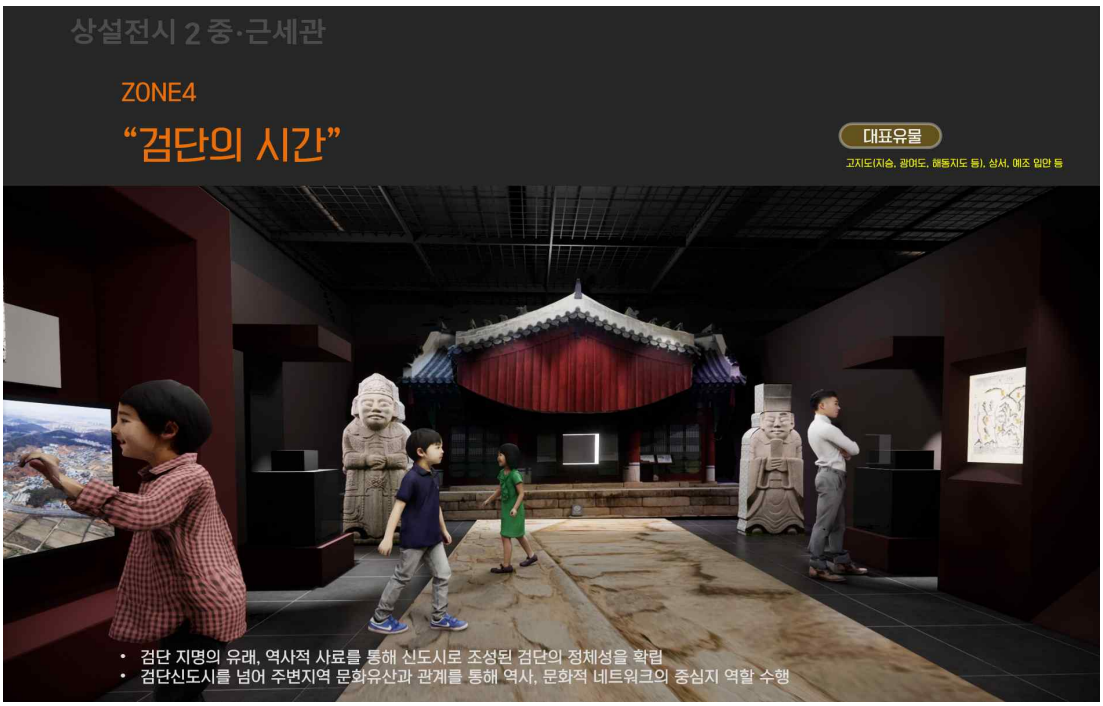
- 검단 지명의 유래, 역사적 사료를 통해 신도시로 조성된 검단의 정체성을 확립
- 검단신도시를 넘어 주변지역 문화유산과 관계를 통해 역사, 문화적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 수행

2) 대표유물 : 고지도(지승, 광여도, 해동지도 등), 상서, 예조 입안 등

3) 전시구성

“인트로”	“검단의 연대기”	“검단주변 문화유산”
검단 지명의 유래	고지도 속 검단	인천, 검단지역 고인돌과 검단의 관계
	사료 속 검단에 대한 기록	검단주변 발굴지를 통해 본 검단
	검단 행정구역의 변화	세계문화유산 장릉

4) 전시연출 이미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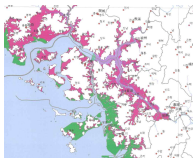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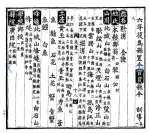


상설전시2	대주제 <ZONE4>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의 시간	인트로

4-1-1 검단 지명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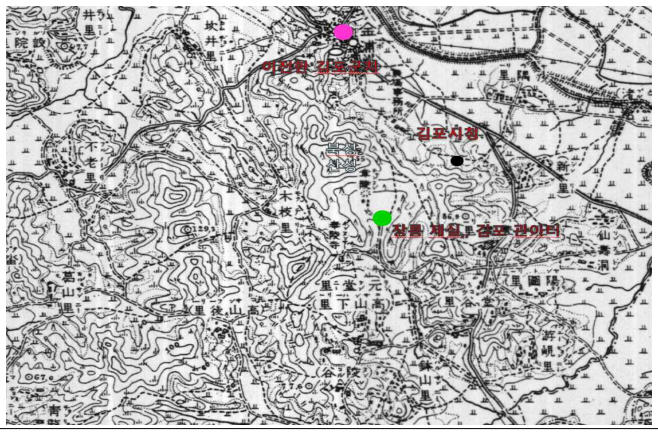
연출 개요	검단이란 지명의 유래와 행정구역의 변화를 앎으로 앞으로의 전시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정보제공
연출 방법	프로젝트 영상, 인트로 인포메이션 월

연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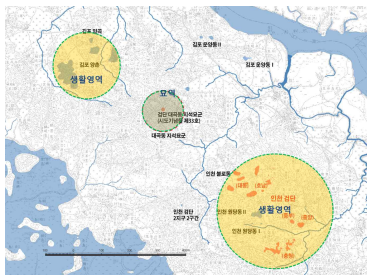
순서	화면구성이미지	구성내용	time
Intro		[검단 이름의 유래] # 김포라는 지명은 신라 경덕왕대(757) 처음 확인되는데 고구려의 검포현(黔浦縣)이었다고 전한다	0:30
Body 1		[시대에 따른 해안선의 변화] #해안선의 변화와 삼국시대 이후 1626년 장릉이전까지 김포의 중심지였던 검단의 위상	1:00
Body 2		[1626년 장릉조성과 현치의 이동] #장릉의조성배경과 장릉조성에 따라 김포현의 현치이동	1:00
Outro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선 검단의 미래는?	0:30

상설전시2	대주제 <ZONE4>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의 시간	검단의 연대기

4-2-1 고지도 속 검단	
전시개요	1. 해동지도, 여지도, 지승 등 고지도 속 김포현과 검단의 지명을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패널. 김포군과 검단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설명, 현재의 위치를 함께 표기하여 설명 2. 고지도에서 검단의 위치와 주변 주요 지형 맞추기 디지털 체험. 검단과 다른 지점을 선택하면 두 지점을 잇는 길, 교통수단, 걸린시간 등을 표시하여 주는 디지털패널 즉 고려시대, 조선시대판 내비게이션을 통해 검단과 주변지역의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
연출매체	디지털패널, 터치스크린,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검단이라는 특이한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 되었을까?** 본래 이 지역은 1995년 인천광역시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김포시(군)에 속하였던 곳이다. 김포라는 지명은 신라 경덕왕대(757) 처음 확인되는데 고구려의 검포현(黔浦縣)이었다고 전한다(삼국사기 제35권). 조선시대 현치는 북성산(현 장릉산) 남쪽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현재 검단신도시의 1단계 사업구역인 서구 원당동과 김포시 풍무동 일대이다. 이후 1626년 김포 장릉이 조성되면서 김포시 북변동 일원으로 현치를 이전하게 된다. 고구려 : 검포현 신　라: 경덕왕 김포현개명 　　장제군의속현 고　려: 명종 감무파견 　　신종 현으로 승격 조　선: 태종 14년 양천현과 통합 　　금양현으로개명, 부평관할 　　태종 16년 김포현으로 환원 조선전기 김포현치:현 장릉일대 장릉조성(1626년) 이후 군으로 승격 　　관아는 장릉산 서북으로 이전
전시자료예시	 지승, 김포군 광여도, 김포군 해동지도, 김포군

4-2-2,3 사료 속 검단에 대한 기록, 검단 행정구역의 변화	
전시개요	1.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검단에 관한 기록이 있는 자료의 복제전시 2. 금릉군지(1910), 홍재전서(정조), 여지도서 김포편 등 검단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제각각의 다양한 이유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도록 함 3. 검단행정구역의 변화를 통해 김포이면서 인천인 검단의 독특한 지위를 이해하고 두 문화를 잇는 경기서북부 지역의 문화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는 다짐을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연출
연출매체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복제유물, 그래픽패널, 디지털 터치 팝업북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역사 속에서 검단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1. 黔丹의지형과 주거환경** – 계양산에서 서북으로 가현산을 잇는 산줄기(한남정맥)에서 가지 뻗은 많은 구릉지대 – 농경과 방어에 유리하고, 한강, 임진강 그리고 서해를 통하여 육상 및 수로 교통이 원활 **2. 삼국시대 黔丹** – 3~4세기 분구묘의 분포로 보아, 百濟에 편입되기 전 뚜렷한 지역 정치체가 존재 – 검단의 분구묘와 조성시기가 중복되는 김포 운양동유적, 양곡유적의 조영집단은 밀접한 연계망이 상정 **3. 신라-조선시대 黔丹** – 1626년 장릉조성 전 金浦縣治는 북성산(현 장릉산) 남쪽에 위치 – 고구려 黔浦縣을 이은 신라金浦縣,고려시대 金浦縣의 중심부도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신라 고분의 분포, 金浦및金浦官家 銘 기와 출토 고려시대 건물지와 고려시대 토광묘와 석곽묘로 추정 –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엽(1626년 이전)까지 黔丹이 金浦의 중심지 
전시자료예시	 김포지역 행정구역변화 『輿地圖書』 補遺編 경기김포

상설전시2	대주제 <ZONE4>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의 시간	검단의 문화유산

4-3-1 인천, 검단지역 고인돌과 검단의 관계	
전시개요	1.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과 검단과의 관계를 통해 주거공간과 매장공간을 분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 이미 공간의 분화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과 또 다른 공간 분화의 사례로 환구를 설명 2. 터치스크린을 통해 대곡동 지석묘군의 대표 지석묘를 확인할 수 있는 연출
연출매체	복제유물, 그래픽패널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검단의 고인돌 분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검단지역은 생활공간으로서의 취락, 북서쪽 가현산 일대는 매장공간으로 구분 가능하다. 청동기시대 유적 중 취락과 묘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례는 진주 상촌리, 산청 사월리, 울산 검단리, 창원 덕천리 등에서 확인된다. 매장공간의 구분은 생과 사의 인식에 대한 구체화로서 개인적인 분묘의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집단의 묘역이라는 공간으로 치환하여 정체성 및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는 가현산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215m)이라는 상징성에 기반하여 의례에 적합한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험. 검단지석묘 찾기** 조선왕릉은 전체 형태나 석물의 예술적 표현에서 고유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능묘와 견주어 알 수 있듯이 조선왕릉의 봉분 축조방식이나 각종 석물배치는 주변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문무석인의 조형이나 병풍석과 난간석은 조선왕조 조형예술에서 달성한 독특한 경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홍살문에서 향로·어로를 따라 이어지는 정자각의 단순하면서 절제된 건축형태는 조선왕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엄숙하고 독특한 조형세계이다.

4-3-2 검단주변 발굴유적을 통해 본 검단	
전시개요	1. 검단주변의 계양산성, 수안산성과 대능리성, 문수산성 발굴성과와 발굴유물 소개 2. 통일신라시대 검단의 군사적 중요성을 당시 당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 3. 검단주변의 산성을 디오라마와 프로젝션 영상을 통해 연출
연출매체	복제유물, 그래픽패널, 검단지형 디오라마, 프로젝션 영상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통일신라시대 왜 검단주위에 성곽을 쌓았을까? **수안산성과 대능리성 조사성과** • 테뫼식석축성, 둘레 578.5m • 고구려 때 首爾忽縣, 신라 때 戌城縣 • 성벽 기단부는 자연암반층 위에 10~12단, 내외협축과 편축 혼용구간 • 건물지 6동 중 다구역에서 5동 확인 -건물지3에서 당초문 암막새와 완, 호, 뚜껑 출토 -건물지2에서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1단 고배 출토 **문수산성 조사성과** • 토기 뚜껑은 '卜'자형에 연속마제형문시문 • 평기와는 선문류가 많고, 중판과 장판타날된 것 확인 • 토제마 수습 **계양산성 조사성과** • 서성벽축조수법 : 풍화암반층정지→목탄깔고→점토충진→성벽쌓기 • 단면 사다리꼴의 협축식성벽→ 신라 축성수법의 특징 • 건물지는10여동, 5호 건물지정면 3칸 규모의 軍倉일 가능성 • 8호 건물지4칸x3칸 • 8호와 9호 건물지는 북문지와 인접해 있어 군포(城廊)일 가능성 • 건물지주위에서 길이 40cm의 대형기와 수습 • 대벽건물지-벽체 두께 170cm, 벽체 내부 판축 흔적 [검단지역 대표문화재] 경서동녹청자요지 신현동 회화나무 심즙신도비 선문염송설화권1-30 검단 대곡동지석묘군 한백륜묘역 김안정묘 출토 묘비 반남박씨대종중 묘역
전시자료예시	문수산성 발굴유물 계양산성 발굴유물 문학산 제사유구

4-3-3 세계문화유산 장릉	
전시개요	1. 장릉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미디어플로어를 떠다니게 연출. 그중 한 단어를 골라 클릭하면 그에 대한 영상과 설명이 미디어플로어에 나타남. (장릉의 건립배경, 조선왕릉의 건축형태, 문무석인, 병풍석, 난간석 등 조형미를 설명하는 키워드) 2. 터치스크린을 통해 곳곳에 담긴 축조방식과 조형미를 해설해주는 영상 구현 3.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의미 4. 디지털패널을 활용하여 장릉을 건축하고 문무석인들은 배치하는 퀴즈 체험하기 5.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장릉을 관람한 소감이나 가장 좋았던 유물을 그림이나 글로 기록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험 마련
연출매체	디지털패널, 그래픽패널, 인터랙티브 퀴즈체험, 글이나 그림 입력장치, 미디어월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적 가치는 무엇일까? [능의 구성]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와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한씨의 능으로 합장릉의 형식이다. 장릉은 원래 파주 운천리에 있었다가 1731년(영조 7)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면서 합장릉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옛 장릉의 석물과 천장하면서 다시 세운 석물이 같이 있어 17세기와 18세기의 왕릉 석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재실, 금천교, 홍살문, 향로와 어로, 수복방,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향로와 어로는 숙종의 명릉처럼 양옆에 변로를 깔았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모두 둘렀으며, 문무석인,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를 배치하였다. 혼유석은 합장릉의 형태로 2좌를 배치하였다. 특히 천장하면서 병풍석을 둘렀는데, 병풍석에는 기존의 구름문양과 십이지신상을 대신하여 모란꽃과 연꽃 문양을 새긴 것이 특이하다. [산릉도감] 조선왕릉과 관련한 풍부한 기록물 역시 주목할 가치이다. 능원을 조성하면서 작성한 산릉도감의궤는 석물의 배열이나 정자각의 조성과정은 물론 산릉조성을 위해서 흙을 지어 나르는데 참여한 단순노역자의 이름까지 작성한 모든 문서가 남아있다. 산릉도감의궤는 왕릉이 만들어졌을 때의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왕릉 중 일부가 불의의 사고로 훼손되거나 본래 모습을 상실했다고 해도 이들 의궤를 통해서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산릉도감의궤라는 뛰어난 기록물이 있음으로써 조선왕릉은 그 물리적 진정성을 견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조선왕릉이 갖는 고유한 가치의 또 다른 면이다.
전시자료예시	 장릉향로어로 장릉능침 장릉문무석인

■ 상설전시2 중근세관 <ZONE 5>

전시주제

“검단의 고려·조선시대 유물”

1) 전시목표

- 고려시대 건물터와 조선시대 건물터를 통해 검단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소개
- 고려청자 다기세트를 통해 고려시대 차문화 이해하기
- 회곽묘와 석회가마에 대해 알아보고 조선시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매장문화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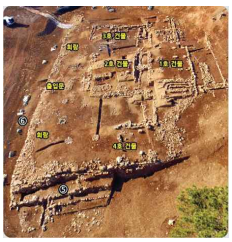
2) 대표유물 : 김포관가 명문기와, 청자완, 청자병, 예빈명의 인화분청사기, 백자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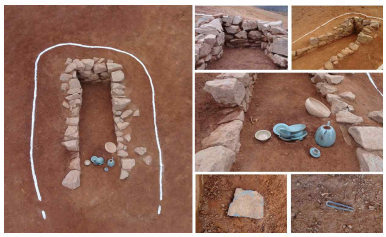
3) 전시구성

“고려시대 검단유물”	“조선시대 검단유물”	“유물의 보존과 복원”
고려 건물터의 용도는 무엇일까?	조선 관영건물 예빈사의 역할	보존과학실에서 하는 일
발굴유구와 고려청자	조선시대 검단 유물	보존과학체험
고려의 차문화	조선의 매장문화와 석회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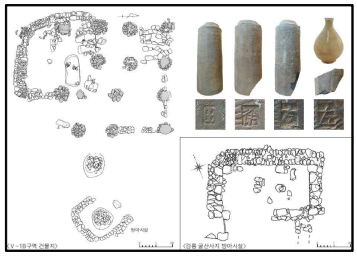
4) 전시연출 이미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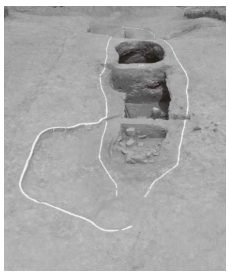
상설전시2	대주제 <ZONE5>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의 고려·조선시대 유물	고려시대 검단유물

5-1-1 고려 건물터의 용도는 무엇일까?	
전시개요	1. 원당동 고려건물지 유물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추정 2. 검단지도를 통해 발굴건물지가 경기서부에서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위치함을 통해 건물의 용도가 원, 역과 관련시설임을 설명 3. 김포관가 유물, 토우, 용뉴 등 출토유물 전시 4. 건물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3D 재현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벽부형 쇼케이스, 촉각모형, 프로젝션 영상(3D 복원)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고려시대 원당동·불로동 건물지의 용도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金浦' 銘瓦 출토 고려 건물지 분포  원당동 건물지에 대해서는 1호 건물지에서 범종의 고리(용뉴)가 출토된 것을 근거로 사찰로 보기도 하며, 교통로 상에 위치한 원(院)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후자는 건물지의 중심건물 좌우에 온돌방이 구비된 점과 탑지의 부재로 인해 사찰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교통로 상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과 울진 외선미리건물지 등과 입지 및 구조의 유사성을 들어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원(院)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의 운영시기는 청자의 연대를 통해 볼 때 10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중반까지로 추정된다. 불로동건물지 유물은 토제품, 김포관가(金浦官家)명 기와, 청자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에 새겨진 김포관가명문은 원당동 1유적 2구역 1호 소성유구 출토 기와와 동일한 타날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쌍조문기와는 원당동 고려시대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타날판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황화산과 장릉산 사이의 고개를 통해 북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는 점, 장릉산에 서서쪽의 만수산 쪽으로 가기 위한 최적의 교통로라는 점, 말(혹은 양) 모양 토우가 이동과 관련된 동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고려시대 역(驛)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전시자료	 원당동건물지출토유물 불로동건물지출토유물

5-1-2,3 발굴유구와 고려청자, 고려시대의 차문화	
전시개요	1. 검단에서 발굴된 고려청자다기세트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차문화에 대해 소개 2. 청자다구세트 발굴 고고학자의 인터뷰를 통해 고고학 발굴의 의미와 당시의 감동, 청자다구세트 발굴의 의미 등을 관람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출 3. 촉각모형을 통해 관람자들이 직접 청자다구세트를 만져볼 수 있도록 함 4. 전시관 중 포켓공간을 마련하여 호수공원을 내려다보면서 직접 고려시대 차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코너를 마련. 직접 차를 우리는 모습을 보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고려 귀족체험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실감영상, 조감형 쇼케이스, 촉각모형, 인터뷰 영상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고려시대 검단의 귀족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려시대 차문화] 고려시대 차문화의 중심 계층은 왕실과 승려, 문인이었다.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차를 마시는 진다의식이 행하여 졌으며 국제외교상의 예물로도 차가 이용되었다. 또한 궁중에서는 궁중연회나 의식이 있을 때 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다방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었다. 차문화는 불교와 인연이 깊기 때문에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는 차문화의 전성기였다. 왕은 고승들에게 차를 직접 하사하는 예가 많았고 경남 통도사 주위에는 차를 만들어 서원에 바치던 다촌이 존재하였다. 고려사회에서 사찰과 승려에게 많은 양의 차가 공급되었고 사찰은 고려 차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는 상류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도 차문화를 향유하였다. 고려 후기에 거리에는 백성들도 차를 사거나 마실 수 있는 다점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활발한 차문화를 통해 청자 다구가 발전하였다. 고려청자의 찻잔은 다양한 형태와 문양, 뛰어난 비색으로 당시 차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活火試芳茶 불 피워 향기로운 차를 달여보니 花甕浮白乳 꽃무늬 사발 위 우윳빛 감도네 香甛味尤永 향기롭고 달콤한 내음 더욱 짙어가는데 一啜空白慮 한 모금 마시니 온갖 근심이 사라지네 김극기의 황룡사조(黃龍寺條)中 **질문2. 청자다구를 부장한 석곽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호남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Ⅱ-1지점 19호 석곽묘에서는 청자다구세트가 온전히 출토되어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러한 다기는 고려시대 차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제작된 것으로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북송 및 원에 보내는 국신물(國信物)에도 등장할 정도로 그 격이 높은 물품이다
전시자료	 호남 Ⅱ-1지점 19호 석곽묘 출토 청자다구세트

상설전시2	대주제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의 고려·조선시대 유물	조선시대 검단유물

5-2-1 조선관영건물 예빈사의역할	
전시개요	1. 원당동(Ⅳ-가-2지점) 건물지에서 발굴된 '예빈'명이 새겨진 인화분청사기를 통해 건물의 용도 추정. 예빈사의 기능과 역사 소개 2. 당시의 건물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하고 그 속에서 재신과 빈객을 접대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연출 3. 각 건물지에서 발견된 명문기와 만들기 체험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홀로그램, 조감형 쇼케이스, 촉각모형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조선시대 건물지에서 출토된 禮賓'이 새겨진 인화분청사기는 무슨 의미일까? 원당동(Ⅳ-가-2지점) 건물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격이 있는 조선전기의 건물이다. 유물 중에는 예빈(禮賓)명이 새겨진 인화문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예빈(禮賓)은 예빈사(禮賓寺)로 고려 태조 4년(921) 처음 설치되어 고종 31년(1894)까지 장속한 중요 관청으로 그 역할은 빈객의 연향과 재신들의 음식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건물지에서 이와 같은 '禮賓'명이 확인되었음은 본 건물이 조선전기의 관영건물이었음을 반증해 준다고 하겠다. Ⅳ-가-2지점 조선시대 건물지  Ⅴ-1-B지점 조선시대 건물지 16세기대 일반가옥으로 건물지의 서편에 방아시설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백자류와 기와류, 철제솥 등이 출토되었고, 길이 2cm정도의 방형 인장 안에 '田', '徐', '方', '左', '山'자 등을 넣은 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전시자료	 Ⅳ-가-2지점 '예빈'명이 새겨진 인화분청사기

5-2-2,3 조선시대 검단유물과 매장문화	
전시개요	1. 조선시대 성리학 사상에 기초한 회곽묘의 조영과정을 소개하는 그래픽패널 2. 검단에서는 매우 드물게 석회가마가 2기나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석회가마의 용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시연출 3. 성종 5년에 편찬한 국조오례의 방식에서 17세기 중반 주자가례 방식으로 대체 4. 회곽묘, 석회가마 모형연출, 석회의 원리에 대해 소개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모형제작, 조감형 쇼케이스, 촉각모형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조선시대 매장문화의 배경이 되는 성리학 사상은 무엇인가?** 조선이 건국하면서 성리학의 사상에 기초한 회곽묘가 조영되게 된다. 회곽묘는 관곽의 유무에 따라 크게 구분되는데 이는 성종 5년(1474)에 편찬한 국조오례의방식과 주자가례의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전자는 역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곽을 놓고, 곽 주위에 삼물과 숯가루를 쌓아 다지는 방식인데 비해 후자는 곽을 사용하지 않고 얇은 판자를 사용하여 조성하는 것이다. 주자가례의 방식이 17세기 중반부터 본격 도입되어 국조오례의 방식을 서서히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시설은 토기가마, 기와가마, 삼가마, 목탄가마, 석회가마 등이 확인되었다. 그중 석회가마의 존재가 특이하다. 석회는 1000-1200도에서 석회석을 가소 시켜 만든 백색의 고체를 말하는데 이것에 물을 가하면 다량의 발열을 수반한 소석회가 된다. 소석회는 회곽묘, 벽석의 회칠 등에 이용되는데 석회가마에 대한 보고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 검단신도시에 확인된 석회가마는 2기가 나란히 축조되었다. 가마와 인접한 주변에 회곽묘 등이 있으나 축조시기를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일대에 석회를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석회가마 숯가마  기와가마
전시자료	 토기 자라병 분청자인화문합 구슬 백자병 백자발 Ⅱ-1E지점 석상

상설전시2	대주제 <ZONE5>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의 고려·조선시대 유물	유물의 보존과 복원

5-3-1,2 보존과학실에서 하는 일, 보존과학체험	
전시개요	1. 고고학이란 무엇일까? 질문에서 시작해서 발굴과 복원, 분석 등 고고학에서 하는 일들을 관람객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2. 검단에서 발굴된 유물을 복원하는 과정을 소개 3. 금속, 목재, 토기와 자기, 서화, 목칠공예, 목제-목칠기, 벽화, 석제 등 다양한 소재의 유물을 복원기술과 대표적인 사례와 인터뷰 4. VR을 활용하여 가상 유물복원 체험하고 포인트 얻기
연출매체	인터뷰 영상, 그래픽패널, VR, 인터랙티브 터치스크린, 모형, 현미경 등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유물의 제작 시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보존과학실 VR(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보존과학실'(국립민속박물관) 질문2. 보존과학실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파주관 보존과학실의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유물 분석의 기본이 되는 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X-ray 등의 빛, 생물 방제 설비인 저산소살충 챔버, 온습도와 유물과의 관계, 유물 가해 해충에 대한 내용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관람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질문3.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출예시이미지	

■ 상설전시2 중근세관 <ZONE 6>

전시주제

“검단신도시의 역사”

1) 전시목표

- 20세기 검단역사를 통해 검단 원주민에게는 추억, 신도시 주민에게는 지역사회 이해를 통한 정체성 확립
- 도시개발과정에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로 건립된 박물관 통해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가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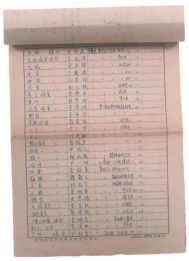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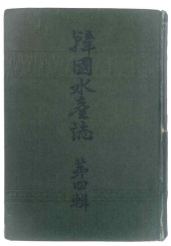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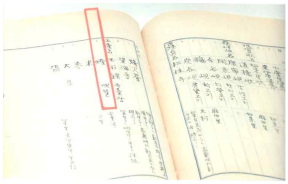
2) 대표유물 : 조선지지자료, 한국수산지, 경기도내편(염전), 무자위, 사진자료 등

3) 전시구성

“20세기 검단의 마을”	“검단신도시 발굴기록”	“검단신도시”
개항이후~ 택지지구 지정 전 검단	검단 발굴지와 유물발굴 과정	검단신도시의 현재
검단 마을에 대한 기억	검단의 고고학, 유물발굴 성과와 의미	검단신도시의 미래
	신도시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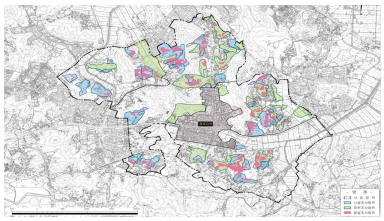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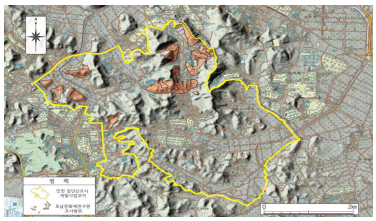
4) 전시연출 이미지(안)

상설전시2	대주제 <ZONE6>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신도시의 역사	20세기 검단의 마을

6-1-1,2 개항 이후 택지지구 지정 전 검단, 검단 마을에 대한 기억	
전시개요	1.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 70~80년대 산업화 속 검단의 모습, 검단신도시 조성 이전의 검단의 기록을 문헌, 사진, 음성 아카이브를 통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공간 2. 검단에 염전이 있었다고? 검단이 바닷가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검단의 산업, 농업 등을 이해하는 실타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연출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터치스크린, 조감형 쇼케이스, 디지털 터치 팝업북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검단신도시 이전, 검단은 어떤 마을이었을까? **<경기도내편, 인천시립박물관>** 1945년 이후 경기도의 염전명칭, 대표자, 주소, 규모, 비고를 작성한 표이다. 당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왕갈리에서 운영되던 이름이 기록돼있다. **<한국수산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 농상공부 수산국과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에서 전국의 연안, 도서 및 하천에 대한 수산의 실상을 기록한 책. 서구 왕길동에 위치했던 인포동 내용이 권 4의 김포군에 등장한다. 당시 인포동에 거주하던 총 40호 170명 중 10호 40여 명 가량이 어업에 종사하였고 숭어, 새우, 장어, 게, 굴 등을 잡았다. 염업도 상당히 발전하여 염전 면적이 27정보, 연간 소금 생산량은 1,282,000근을 웃돌았다. **<조선지지자료, 중앙도서관 >** 1911년 조선의 지명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우리나라 지명을 최소단위까지 기록하고 있다. 총 54책이며 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검단은 제3책에 내용이 수록. 동, 리, 촌에서 산골, 고개, 포구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 안동포 토산물로 '맛살'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그래서,검단'展] 검단선사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으로 '우리가 몰랐던 동네 이야기 ' 라는 부제로 진행된 전시
전시자료	 경기도내편 (인천시립박물관)  한국수산지 (1908-1911, 서울대 중앙도서관)  조선지지자료, (1911,국립중앙도서관)

상설전시2	대주제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신도시의 역사	검단신도시 발굴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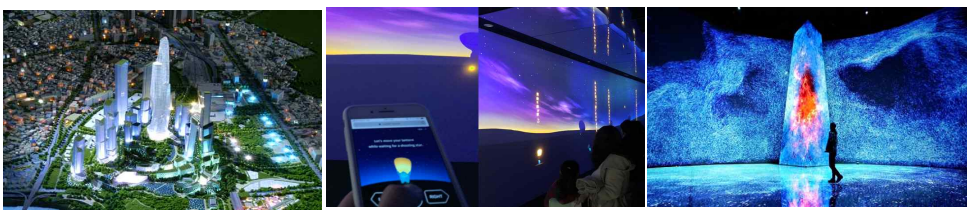
6-2-1,2,3 검단 발굴지와 유물발굴 과정, 검단의 고고학, 신도시와 박물관

전시개요	1. 2007년 지표조사에서 시작하여 2013.12~2020.12까지 약 7년 동안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을 소개 2. 신도시개발과정에서 유물발굴의 의미와 성과, 관련자 인터뷰 3. 박물관 건립과정을 드론 영상,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전시
연출매체	발굴과정을 소개한 사진, 영상, 발굴관계자 인터뷰 등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약 7년에 걸친 문화재 발굴의 성과를 어떻게 기록할까? 질문2. 검단신도시와 박물관 건립과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검단신도시 문화재 발굴 개요와 경과] 검단신도시 문화재 조사는 2007년 지표조사를 통해 시작되었다.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7년 동안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6개 조사기관이 참여하였는데 조사면적은 표본조사 99만㎡, 시굴조사 166만㎡, 발굴조사 55만㎡이다. 조사된 유적은 신석기시대에서 근대까지 약 3천 여기로 청동기시대와 고려·조선시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유적은 구릉지에 분포하며 곡간부, 저지대에서는 거의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매납유구 등은 산 정상부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검단신도시 발굴범위  발굴지지형도 [검단지역 출토유물 2021-01-14기준)]

연번	유적명	유물(점)	조사기관
1	인천 검단 원당동, 불로동유적 등	4,554	한국문화재재단 등
2	인천 검단 당하동 유적	1,653	충청문화재연구원
3	인천 검단 불로동·당하동 유적	2,088	대동문화재연구원
4	인천 원당동 유적	709	중부고고학연구소
5	인천 검단 원당동·마전동 유적	545	중앙문화재연구원
6	인천 검단 마전동·원당동·불로동유적	2,031	호남문화재연구원
7	인천 검단 불로동유적	501	한빛문화재연구원
유물수량		12,081	

전시자료 및 연출예시 이미지	 문화재 발굴 현장 모습 고려청자 석곽묘 발굴 현장 전곡리선사박물관 발굴재현

상설전시2	대주제	중주제
중근세관	검단신도시의 역사	검단신도시

6-3-1,2 검단신도시의 현재, 검단신도시의 미래	
전시개요	1.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현재 검단신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전시구성 2. 검단신도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다양한 색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검단신도시를 형상화하는 실감영상 3. 관람자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 소원, 전시소감을 영상 속에 새겨져 함께 실감영상을 구성 4. 인터랙티브 실감영상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에너지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
연출매체	그래픽패널, 도시모형, 인터랙티브 실감영상, 문자입력장치(어플리케이션)
전시내용 및 연출참고자료	질문1. 좋은 도시란 어떤 곳일까? 검단은 좋은 도시일까? 질문2.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재생 전시회' 서울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질문을 던지는 전시 '역사: 보존 혹은 재해석' '유목 도시에서의 정주' '입체도시 서울' '서울 시민을 위한? 동네 주민을 위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게스트시티전 ' '회복력 있는 도시의 미래 ' 라는 주제 하에 오늘날 세계의 도시들이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할 각양각색의 방법을 소개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
연출예시 이미지	

3. 유구전시관 기본계획

3.1 전시개요

° `19.12月 전문가 검토회의(5차)에서 박물관 건립을 권고하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립방안 추진 중 현지보존 시 지형적 특성과 인근 거주지로 인해 시설물 관리와 민원 발생 등 어려움이 예상 발굴 유적과 유물을 박물관 및 연계한 역사공원으로 이전하여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문화시설로 추진

° 검단지역을 상징하는 지방 국립박물관 수준의 대표적 역사교육 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가. 문화재청 조치사항

[보존내용] 1) 유 적 명 : 인천 검단지구 내 유적 2) 보존유형: 이전보존 및 박물관 전시 3) 보존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47번지 일원 검단신도시 근린14호 공원 내 '검단신도시박물관' 내·외부 4) 보존대상 및 구체적인 보존방법 -1구역(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 석곽묘 2기, 석실묘 3기), 2구역(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의 유적을 박물관 외부에 실물 크기로 이전보존(1,500㎡) -Ⅱ-1지점 A구역(15,080㎡), 2-5구역(12,884㎡)을 박물관 내부에 축소전시(1000㎡, 축소비율 1/17), 대형스크린(미디어월) 1개소, 프로젝션 맵핑 2개소 설치

나. 유구전시관 이전 유구 현황

1)Ⅱ-1 지점 A구역 발굴 현황

° Ⅱ-1 지점 A구역에서는 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굴되어 집단 취락형태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유물로는 무문토기편, 방추차, 석촉, 석창, 반월형석도 등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함께 출토됨

° 주거지 63기 중 5기 야외전시 이전복원

° 통일신라시대 석곽묘도 20여 기가 발굴되어 검단 주변의 신라시대 문화유적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임

° Ⅱ구역에서는 388기의 고려조선시대 유적이 발굴되었으나 Ⅱ-1 지점 A구역에서는 조선시대 유적인 묘 5기, 수혈 3기가 발굴되어 상대적으로 그 수량이 매우 적음

° 따라서 Ⅱ-1 지점 A구역 유구보존 후 전시주제로 청동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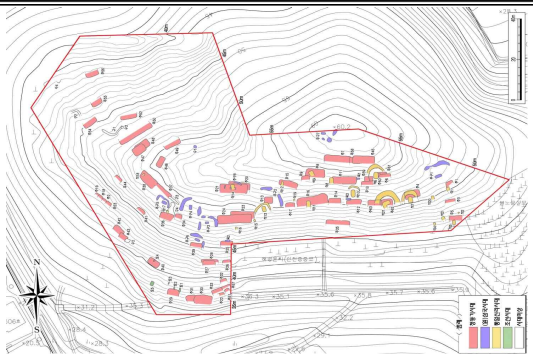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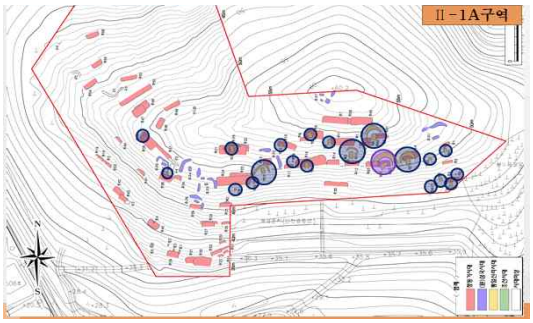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유구전시관은 주거지, 공지, 환지, 매장지 등으로 공간의 기능을 구분하고, 공동저장공간, 공동생산공간을 형성하면서 주거지 규모가 작아지는 현상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동기시대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청동기시대 출토유물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고 싶을 때 관련 전시관의 위치를 안내해주는 도슨트시스템을 통해 상설전시관으로 유도함
- 구릉지 사면에 위치한 주거지의 모습을 통해 신석기, 철기시대 주거지가 줄어드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함
-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유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유물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AR, 유물의 전시위치를 알려주는 도슨트를 활용함

[표Ⅲ-4] Ⅱ-1지점 A구역 발굴 현황

구역	시대	유구	수량	대표유물
Ⅱ-1지점 A구역 (15,080㎡) 불로동 산 74임 일원, 대동문화재연구원	청동기	주거지	63	공열토기, 관옥, 적색마연토기, 환상석부(달도끼), 다두석부(별도끼), 석도, 석창, 석촉, 석검 등
	원삼국	주구묘	8	단경호, 철검, 철모, 철촉, 관옥, 도자
		목곽묘	3	대도, 철모, 철부, 도자, 철모, 구슬
		수 혈	1	철부
		구	4	토기편
	통일신라	석곽묘	20	대금구, 호 편, 완, 병, 도자, 기와
		석실묘	1	관고리
	조선 이후	묘	5	관정, 백자 편
		수 혈	3	-
	소계		108	

[표Ⅲ-5] Ⅱ-1지점 A구역 발굴유물

시대	Ⅱ-1지점 A구역 유구위치	출토유구 및 유물사례
청동기시대		Ⅱ-1지점 A구역 제16호 주거지
	• Ⅱ-1지점 63기.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규모가 클수록 세장방형. 내부시설은 평면형태의 구분 없이 노지, 벽구, 주혈, 수혈, 주거지간 중복조성된 예도 확인되지만, 내부구조와 유물 양상으로 보아 조성의 시간차는 크지 않음. • 유물의 빈도는 토기류에 비해 석기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경기 서부권에서 주로 확인되는 역삼동유형에 속하며, 조성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로 판단됨 • 주거지 63기 중 5기 야외전시 이전복원	Ⅱ-1지점 A구역 제24호 주거지
통일신라시대		Ⅱ-1지점 A구역 제6호 석곽묘
	• 석곽묘는 횡구식이 대부분이며, 석실묘는 횡혈식 1기가 발굴됨. 입구는 모두 경사면 하단, 내부에는 관대, 시상 등이 마련. 유물은 인화문토기와 대금구, 관정 등이 소량 출토됨	Ⅱ-1지점 A구역 제16호 출토유물

2) 2-5구역 발굴 현황

■ 발굴현황

° 청동기시대 주거지 14기, 삼국시대 석곽묘 5기, 옹관묘 1기, 조선시대 토광묘 29기, 회곽묘 1기, 건물지 2기 시대미상 수혈 8기, 구상유구 1기, 유물은 무문토기, 석촉, 반월형석도 등 61점 출토

° 주거지는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와 장방형 주거지로 형태로, 주거지의 축조시기는 시간 차이가 발생 하나 청동기시대 전기에 발생한 취락으로 출토유물의 형태가 역삼동식 유형을 따르고 있음

■ 이전사유

° 현지 보존 시 기존 주거지와 검단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주거공간이 물리적으로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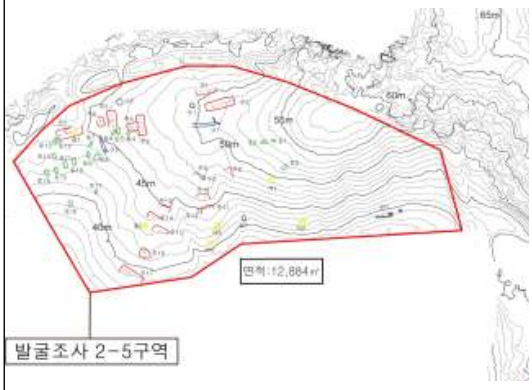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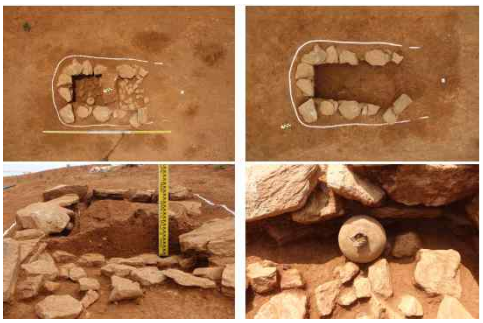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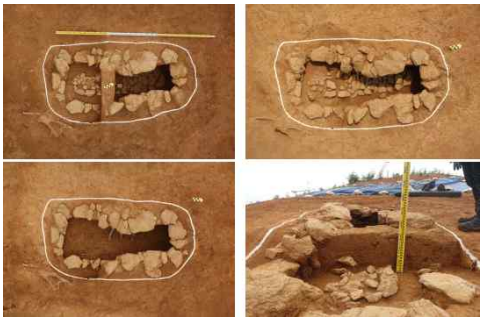
° 발굴구간이 약10~20m 높이의 구릉에 위치하여 사면 처리를 위한 보완 공사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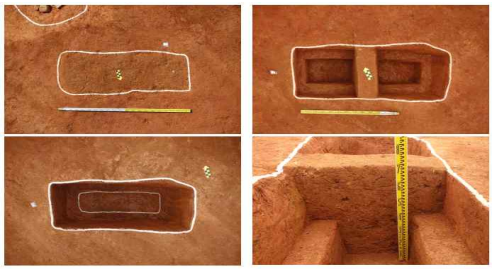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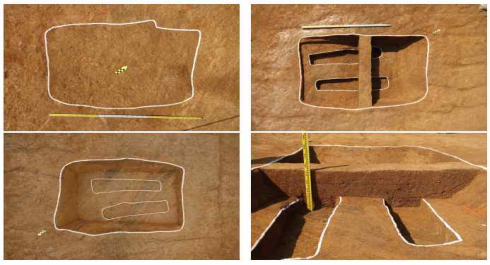
° 기존 주거지(불로지구) 공동주택 전면에 위치하여 경관 저하, 조망 차단 등 민원 예상 (약 3~4층)

[표Ⅲ-6] 2-5지점 발굴 현황

구역	시대	유구	수량	대표유물
2-5구역 (12,884㎡) 불로동 일원, 한빛문화재연구원	청동기	주거지	14	무문토기, 반월형석도, 환상석부(달도끼), 다두석부(별도끼), 관옥, 석도, 석창, 석검 등
	삼국시대	석곽묘	5	병, 단경호
		옹관묘	1	옹관
	조선시대	토광묘	29	-
		회곽묘	1	-
		수 혈	8	-
		구상유구	1	분청자 편, 암키와, 수키와
		건물지	2	-
	소계		61	

[표Ⅲ-7] 2-5지점 발굴유물

시대	2-5지점 유구위치	출토유구 및 유물
청동기시대	 • 세장방형 주거지 6기-주거지 내부에는 노지, 주혈, 벽구가 확인되며, 노지는 대부분 장축의 중앙열에 배치되며, 2~3개가 확인됨. 유물은 무문토기 발, 석부, 반월형석도, 지석 등이 출토 • 장방형 주거지 8기-내부시설은 노지, 주혈, 벽구가 확인되며,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에 1~2개가 배치되었고, 무시설 평지식으로 평면형태가 원형임. 유물은 구순각목문 토기, 무문토기, 반월형석 도, 지석 등이 출토됨 • 방형주거지 2기-장단비는 1:1.5 미만으로 내부에는 중앙부에 평지식 노지가 확인됨. 유물은 석도와 지석이 출토됨 • 주거지 14기 중 4기야외전시 이전복원	2-5주거지 3호 2-5주거지 4호
삼국시대	• 대부분 등고와 직교하게 설치하였으며, 경사지에 위치하여 단벽 일부가 삭평된 유구가 다수 • 유구의 벽석은 할석을 평적하여 축조하였지만, 대부분 삭평되어 1~3단 정도 잔존함 • 내부시설은 시상이 모든 석곽묘에서 확인되었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매장 주체부 전면에 깔아줌. • 유물은 대부장경호, 완, 고배, 청동과대 등이 출토됨	2-5 석곽묘 1호  2-5 석곽묘 3호 

조선시대	• 토광묘는 모두 18기가 발굴됨. 유구는 모두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목관이 흔적이 명확하지 않은 유구도 있지만 보강토 등을 통해 목관 규모를 알 수 있음. 보강토는 점성이 있는 회백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움 • 회곽묘는 2-5구역에서 1기가 조사됨. 유구는 구릉 사면에 등고선과 직교되게 위치하고 있으며 회곽은 회와 토양을 섞어 사용함. 목관은 모두 안치하였고, 개는 목개를 사용함	2-5 토광묘 1호  2-5 토광묘 8호 

3.2 유구전시관 전시연출

가. 유구전시관 기본방향

■ 상설전시특별전 <유구전시관>

전시주제

"청동기시대 집단거주 문화"

1) 전시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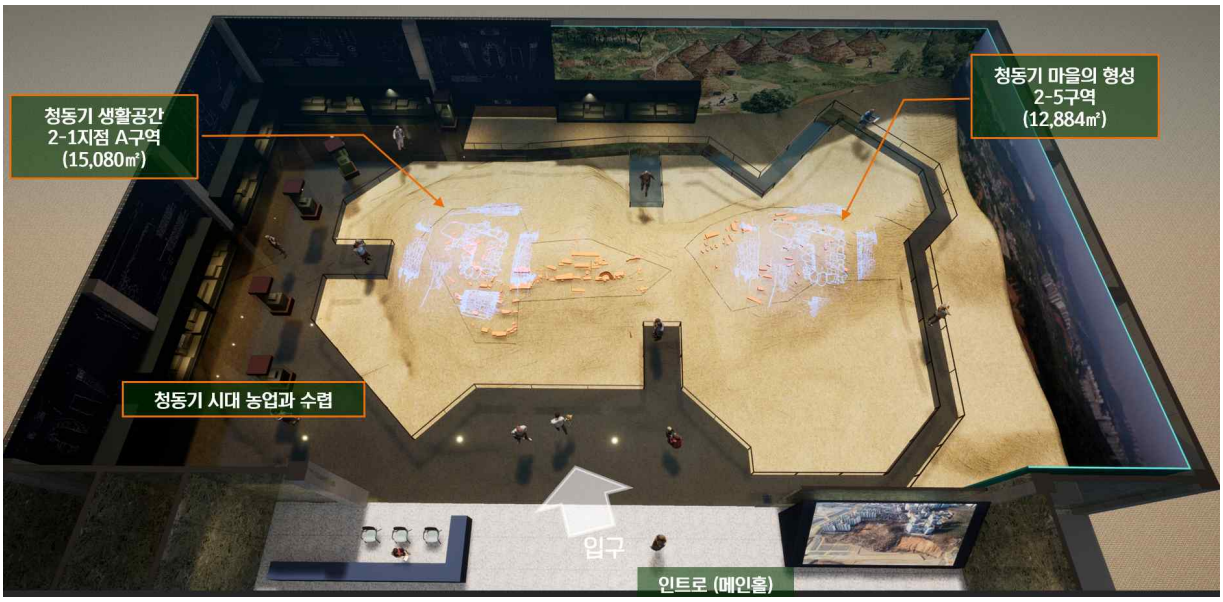
- 문화재청 유적 보존조치(2-1지점 A구역(15,080㎡), 2-5구역(12,884㎡)를 1/17모형으로 전시) 이행
- 마을 일부를 보존함으로 청동기시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문화에 대한 심층적 전시 가능
- 유물이 아닌 공간을 통해 청동기시대 주거문화, 생산활동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미디어월, 프로젝션맵핑을 통한 복합연출

2) 대표유물 : 2-1지점 A구역(15,080㎡), 2-5구역(12,884㎡)를 1/17모형

3) 전시구성

"청동기 마을의 형성"	"청동기 생활공간"	"청동기시대 농업과 수렵"
청동기마을 재현	주거, 저장, 종교, 매장 공간 이해	청동기시대 농업활동
프로젝션맵핑을 이용한 사계절	AR을 통해 청동기인의 삶 엿보기	수렵도구를 준비하는 사람들

나. 유구전시관 배치(안)



[그림Ⅲ-10] 유구전시관 배치도

다. 유구전시관 연출방안

개방형 전시실로 구성하여 로비로 입장하는 관람객의 시선유도

도입부에 대형 디지털파사드를 통해 인트로영상 연출

발굴유적 모형 위로 맵핑영상, 배경으로는 선사시대 생활상 영상이 오버랩

발굴유물을 활용한 쇼케이스 전시

[그림Ⅲ-11] 유구전시관 연출안

■ 개방형 전시실로 구성하여 관람객의 시선유도

° 유구전시관을 1층에 배치하고 중앙홀과 열린공간으로 구성하여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 전시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휴게와 전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게의자, 포켓영상관, 미디어월 등을 여유롭게 배치함

° 뮤지엄샵,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른 공간에서도 시각적으로 열려 있도록 설계함

■ 디지털파사드 인트로 영상

° 왜 박물관 내부에 유구전시관을 설치하였는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관람객들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인트로 영상을 제공

° 청동기 생활상의 이해, 고고학적 관점, 검단의 정체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유구전시관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유구전시관에 프로젝션 매핑 영상 투사

° 유구전시관을 크게 3가지 주제 1. 청동기마을의 형성, 2. 청동기 생활공간, 3. 농업과 수렵으로 구분하고 그 주제에 맞는 프로젝션 매핑을 투사하여 박제된 유구전시관이 아닌 인터랙티브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 계절에 따른 미디어아트, 청동기시대 생활상(고인돌만들기, 사냥하기 등)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정해진 시간에 상영함으로 유구전시관인 동시에 아트뮤지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함

■ 유구전시관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동선계획

° 강화유리를 활용한 보행통로를 마련하여 유구전시관을 걸어다니며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함

° 미니어처나 VR로 재현된 주거지, 농경지, 토기 등 당시의 유물과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함

라. 유구전시관 사례

■ 영국 런던 미트라에움

° 영국 런던의 Bloomberg 본사 아래에 건립된 박물관으로 빛, 안개, 소리를 사용하여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한 미트라신전. 조명을 이용하여 후면부에 미트라가 황소를 죽이는 장면을 재현하고 종소리, 뿔피리소리 등을 통해 공감각적 경험과 생기를 불어넣고 있음

[그림Ⅲ-12] 미트리신전 재건

■ 공평도시유적전시관

° 2015년 공평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 한양에서 근대 경성에 이르는 역사도시 서울의 골목길과 건물터가 온전하게 발굴.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도시유적과 기억을 '원 위치 전면 보존'한다는 '공평동 룰'을 적용한 첫 사례임

° 핵심 콘텐츠로 각 건물지 별로 1/10 축소 모형, 가상현실인 VR체험, 출토된 유구 위에 1:1 복원 모형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통해 16~17세기 한양의 모습을 전시함

[그림Ⅲ-13] 공평도시유적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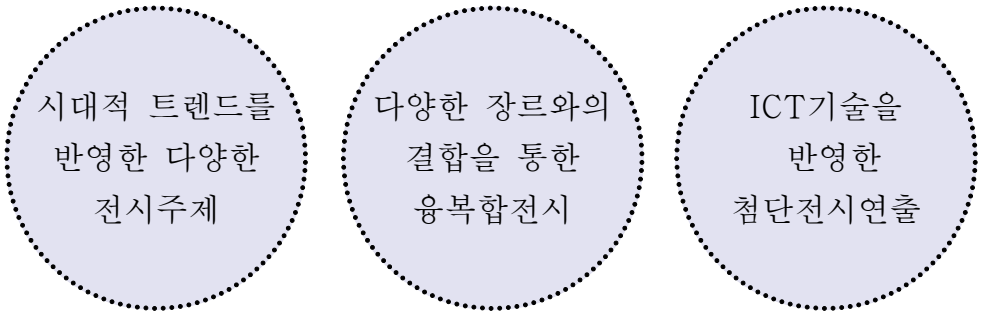
4. 기획전시 기본계획

가. 전시개요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기획전시는 방문객의 접근이 가장 높은 공간으로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 등을 목적으로 함
- 주로 1년에 2~3회 정도 기획되며 상설전시에서 적용하기 힘든 주제 및 최신 연출기법을 도입하여 관람객에게 즐겁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람객 유입을 유도하고 재방문을 향상시키도록 함
- 검단신도시의 역사, 행정, 문학, 생활문화, 놀이 등 다양한 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함으로 동시대의 공감대 형성 및 관람객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획함
- 기존 박물관의 전시기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장르와의 결합을 통한 융복합적 전시를 통해 검단신도시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전시목표

- 주제와 장르를 넘어선 새로운 전시경험 제공
- 입체적 전시구성을 통해 동시대적 공감대 형성
- 사람이 모이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 연구 및 발굴성과를 소개하는 전시



[그림Ⅲ-14]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기획전시운영방안

다. 운영전략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기획전시는 관람자들의 흥미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검단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경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검단의 역사를 연대기적 측면이 아닌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 상설전시공간에서 다루기 힘든 구체적인 사건이나 장소, 혹은 인물에게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전시 방향을 설정함
- 기획전시는 전시의 규모에 따라 기획전시1, 기획전시2로 구분하거나 혹은 하나의 대형 전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변적 전시공간 구성과 동선을 분리함
- 국내외 주요 박물관과의 학술교류 및 유수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시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
- 박물관 건립 이후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획전시를 진행함

라. 기획전시 예시(안)

[표Ⅲ-8] 기획전시 프로그램 제안

구분	전시주제	전시기획배경	전시개요
개관1년차	신도시박물관이 설립되는 과정 (개관기획전)	유물의 발굴에서 박물관의 건립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기획	• 검단신도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지표조사에서 문화재 발굴까지의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 연표를 이용하여 소개 • 문화재발굴 성과에 따른 박물관 건립계획, 건축국제공모, 박물관의 건축과정과 전시실 설치 과정을 영상을 통해 소개함으로 관람객에게 박물관 건립의 이면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 • 검단신도시 박물관의 설계 및 건축과정 등 단계별, 역할별로 검단신도시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보여주는 전시
	고고학과 예술가의 만남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유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 전시방법 차별화 시도	• 상설전시와는 차별화된 전시방법과 유물의 해석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가, 활동가와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전시기획. 여러 작가와 협업하며 시리즈로 꾸준한 전시기획

구분	전시주제	전시기획배경	전시개요
개관 2년차	검단을 둘러싼 산성	검단을 둘러싸고 있는 문학산성, 계양산성 수안산성, 문수산성의 발굴성과를 통해 검단의 군사적 위상에 대한 제고	• 검단지역은 김포평야를 관할, 통제하고 서해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적을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 중국으로 해상무역을 떠나는 선박의 무사귀환을 축원하는 장소이기도 했음 • 각 시대별 외침과 검단 주변의 산성들의 역할까지 발굴유물과 연구자료를 활용해 소개 • AR과 디오라마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대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현
	VR로 경험하는 선사시대의 하루	선사시대의 구체적인 하루를 VR 영상을 통해 실감나게 경험	• 사냥에 성공한 날, 고인돌을 만드는 날,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날 등 선사시대의 하루에서 사냥꾼, 아이, 제사장, 여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하루를 경험하는 VR을 통해 선사시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
개관 3년차	찬란한 고려문화 다시 검단에 세우다	고려시대 건물지에 홀로그램을 통해 웅장했던 재현하고 검단의 위상을 재구성	• 고려시대 검단은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었음 • 그 길목에 설치되었던 고려의 건물과 말을 타고 개경을 향하던 사람들의 행렬. 휴식을 위해 찾아드는 건물에서 고려청자를 이용해 차문화를 즐기는 모습 재현 • 고려의 건축 및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전
	철학의 중심에 선 죽음 이후의 세계	시대별 매장문화와 그 부장품을 통해 검단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세계를 추리해 들어가는 전시	• 검단에서 발견된 유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매장유구 • 각 시대별로 매장문화가 달라지는 이유를 심도있게 들여다 봄으로 우리 선조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철학을 따라가는 전시 • 미술, 무용 등 타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우리시대의 철학으로 검단의 조상들에게 천도재를 지내는 이벤트 기획

■ 기획전시실 <개관특별전>

전시주제

"선사시대의 어느 하루"

1) 전시목표

- 개관특별전으로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정체성과 향후 전시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 기획
- 관찰하는 유물에서 체험하는 역사로, 사람이 중심이 된 콘텐츠 기획
- VR, AR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참여와 놀이를 기반으로 콘텐츠가 살아있는 전시
- 개관전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당시의 시대를 체험하는 인터랙티브한 전시

2) 대표유물 : VR, AR 디지털 콘텐츠

3) 전시구성

"청동기, 일상"	"사냥하는 날"	"제사장의 하루"
청동기 여성의 하루 청동기 아이들 청동기 농사도구와 추수하기	사냥도구 준비하기 사냥 체험하기 사냥에 성공한 날	고인돌 만들기 하늘님께 제사 지내는 날

4) 전시연출 이미지(안)

5. 야외전시 기본계획

5.1 전시개요

■ 특별전시 <야외전시>

전시주제

"문화재발굴과 이전보존"

1) 전시목표

- 문화재청 유적 보존조치(주거지 9기, 석곽묘 2기, 석실묘 3기 동일크기로 이전보존) 이행
-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물도 함께 이전하여 야외전시공간 구성
- 연출된 발굴유구를 중심으로 생활상 재현, 구조의 복원 AR 영상기법을 활용하여 실감콘텐츠 제작
- 야간경관까지 고려, 전시와 휴식을 함께 어우러진 힐링전시공간

2) 대표유물 : 청동기 주거지, 석곽묘, 석실묘 등

3) 전시구성

"청동기 주거지"	"석곽묘, 석실묘"	"문화재 발굴·보존"
청동기시대 주거 재현	석곽묘, 석실묘의 특징	유물 발굴과정 이해
AR을 통해 생활도구 체험	시대별 매장문화 이해	발굴체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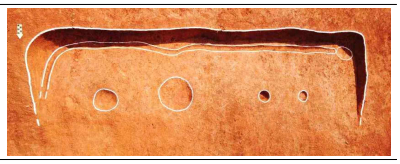
나. 운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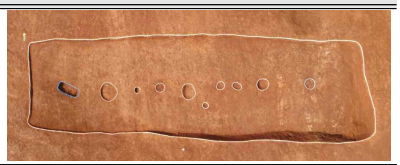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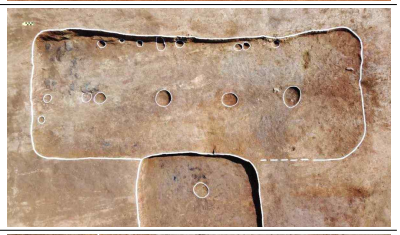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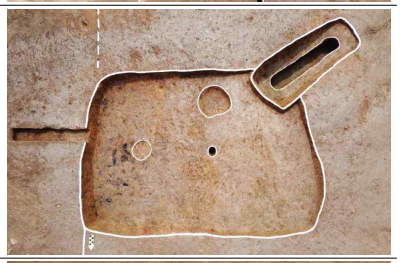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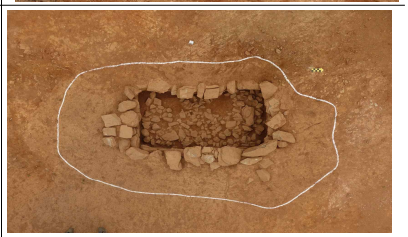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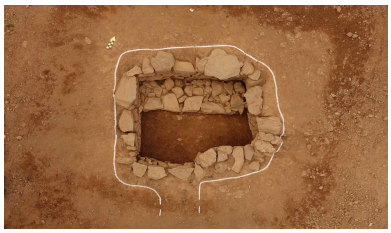
- 유구 특성과 역사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역사 공원 조성 추진
- 중요 발굴유적을 이전보존하고, 당시 주거 형태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가옥 등을 복원·전시함
- 발굴 모습, 집터 구조 등을 생동감 있는 AR(증강현실) 서비스로 제공
- 검단신도시 내 발굴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과 전시와 보존을 위해 신설 박물관 추진 중, 대상 유적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박물관 내외부로 이전 복원 추진
  - 이전복원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 후 구체적인 보존 및 특화 설계 등 추진
  - 박물관 건립과 연계한 야외전시, 역사문화 산책로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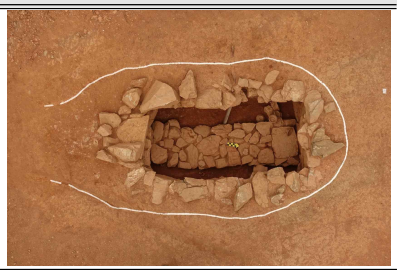
5.2 야외전시유구

1) 문화재청 유적보존조치

[표Ⅲ-9] 문화재청 유적보존조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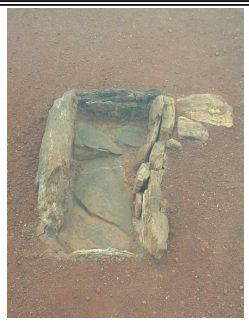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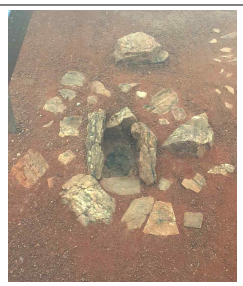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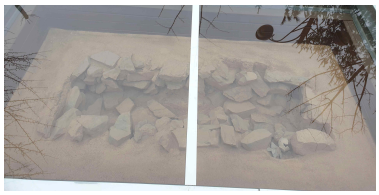
구분	위치 및 크기	사진
2-A구역 청동기 주거지	2-A구역 23호, 24호 주거지 23호: 길이10.9m×너비4.46m 24호: 길이15.9m×너비4.12m	
	2-A구역 40호 주거지 길이5.88m×너비3.31m	
	2-A구역 62호, 63호 주거지 62호: 길이5.96m×너비3.4m 63호: 길이12.58m×너비4.2m	
	2-5구역 01호 주거지 길이8.5m×너비1.8m	

구분	위치 및 크기	사진
2-5구역 청동기 주거지	2-5구역 02호 주거지 길이12.5m×너비3.8m	
	2-5구역 03호 주거지 길이8.7m×너비3.4m	
	2-5구역 04호 주거지 길이5.0m×너비3.3m	
석곽묘	1구역 석곽묘 4호 묘광길이2.37mx너비1.33m	
	1구역 석곽묘 17호 묘광길이4.62mx너비2.64m	
석실묘	1구역 석실묘 2호 묘광길이3.9mx너비3.07m	
	1구역 석실묘 4호 묘광길이3.55mx너비2.72m	

구분	위치 및 크기	사진
	1구역 석실묘 5호 묘광길이4.41mx너비2.20m	

2) 검단신도시박물관 야외전시 유구 이전설치

[표Ⅲ-10] 검단신도시박물관 야외전시 유구 이전설치

구분	위치 및 크기	사진
석관묘	원당동 유적1호 석관묘 묘광길이 0.55mx너비0.25mx높이0.35m	
	원당동 유적3호 석관묘 묘광길이 0.34mx너비0.22mx높이0.15m	
	원당동 유적4호 석관묘 묘광길이 0.45mx너비0.23mx높이0.30m	
석곽묘	경서동 유적 1호 석곽묘 묘광길이 2.10mx너비0.90mx높이0.50m	

5.3 야외전시 구성(안)

가. 야외전시 기본방향

1) 유구전시 보존사례

■ 종로 시전행랑 유구 이전복존

° 서울역사박물관이 복원·공개하는 조선시대 시장의 가게 터인 '시전 행랑 유구'. 복원된 집터 위에 강화 유리를 덮어 관람객이 걸어 다니며 관찰할 수 있게 함

° 광화문 D타워 앞에 시전행랑이 복원된 모습

° 시전행랑 유구지 위에 강화유리를 덮은 후 기와집으로 시전행랑을 복원한 경우로 작지만 현대적 건물을 지으면서 공공의 보행통로를 문화재 복원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작업임

종로시전행랑 유구 이전복원
서울역사박물관

시전행랑 유구지 보존
광화문 D타워

[그림Ⅲ-15] 종로 시전행랑 유구보존사례

■ 서울 암사동 유적 유구 보호각 외부

° 2016~2017년 조사를 통해 발견된 중요한 역사적 자취를 보존하고,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2021년 8월 개관함

° 보호각 내부 관람 동선을 따라 발굴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재현하고, 영상 및 음성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도록 조성함

암사동 유구보호각 외부

암사동 유구보호각 내부

[그림Ⅲ-16] 암사동 유적 보호각

2) 유구보호시설의 새로운 트렌드

- 2013년 발굴된 고려시대 남진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인 홍련봉 보루에 대한 보호시설을 2022년까지 설치할 예정임.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길이 100m, 폭 51m, 높이 17.9m의 보루를 넘는 시설을 만들고 그 내부에 교육·전시공간, 내부 관람로, 산책로 조성을 할 예정임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4일원, 조선시대의 최고 관정인 의정부가 위치했던 핵심 유적지로 2016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됨. 서울시는 이곳에 전시관과 유규보호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진행함. 당선작은 의정부 중심건물이 갖고 있던 상징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현함
-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구보존공간에 대해 매장문화재를 보존·전시하는 보편적 형태에서 벗어나 문화재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통해 관람과 휴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홍련봉 보루 유구보존시설 조감도(안)
사진:디지털광진

의정부지 유구보존 설계공모 당선작
자료:원오원아키텍스

[그림Ⅲ-17] 유구보호시설 트렌드

나. 야외전시 기본계획 방안

1) 주변경관을 고려한 전시설계

- 유구의 보호계획, 외부공간의 조성, 주변의 도시적 맥락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함
- 검단신도시 야외전시의 경우 현지보존이 아닌 이전복원이므로 이전유구의 배치를 건축, 공원 계획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구의 보호, 외부공원 및 전시관과의 경관, 외부공간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유구 이전 및 보호시설 설치를 계획해야 함

2) 건축설계단계에서 야외전시 및 유규보호시설에 대해 고려

- 기존의 유구보호시설은 외부공간 조성 및 외부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야외전시는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건물의 선큰을 활용한 야외전시, 야외전시공간과 건물의 필로티를 연결하는 방식, 박물관과 도서관의 중정 공간을 활용한 야외전시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야외고고학체험장은 야외전시장과 인접하여 480㎡로 계획하여 현장체험, 교육, 캠프 등의 활동에 활용

3) 야외전시면적 확대

- 현재 야외전시 면적을 1,500㎡로 계획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주거지 9기, 석실묘, 석곽묘 9기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야외연출 (인물연출모형, 유물모형, 설명패널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약 1,800~2,000㎡로 전시면적을 확장하고 다양한 야외전시연출,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휴게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므로 공원, 도서관과의 완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표Ⅲ-11] 검단신도시박물관 야외전시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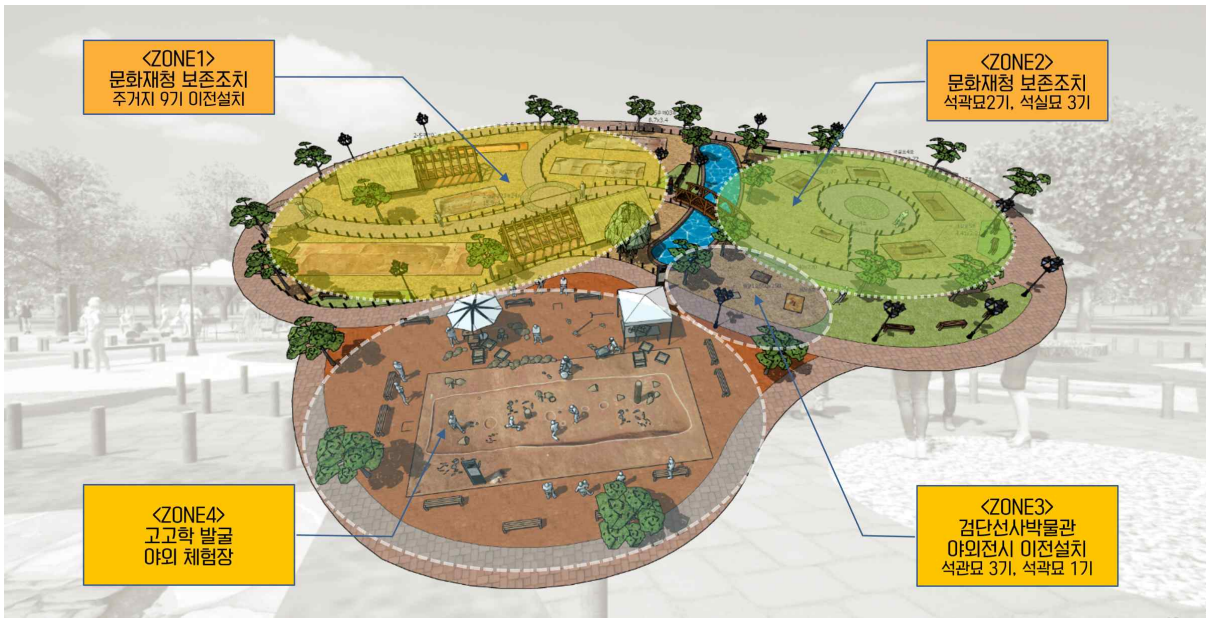
구분		이전유구	현재 계획면적		개선 계획면적
야외전시 야외 체험장	ZONE1	주거지 9기	800㎡	▶	1,200㎡
	ZONE2	석곽묘,석실묘 5기	285㎡		300㎡
	ZONE3	석관묘,석곽묘 4기 (검단선사박물관)	65㎡		80㎡

	외곽산책로, 녹지	–	350㎡	420㎡
	합계		1,500㎡	2,000㎡
	ZONE4	고고학체험장	480㎡	480㎡
총합계			1,980㎡	2,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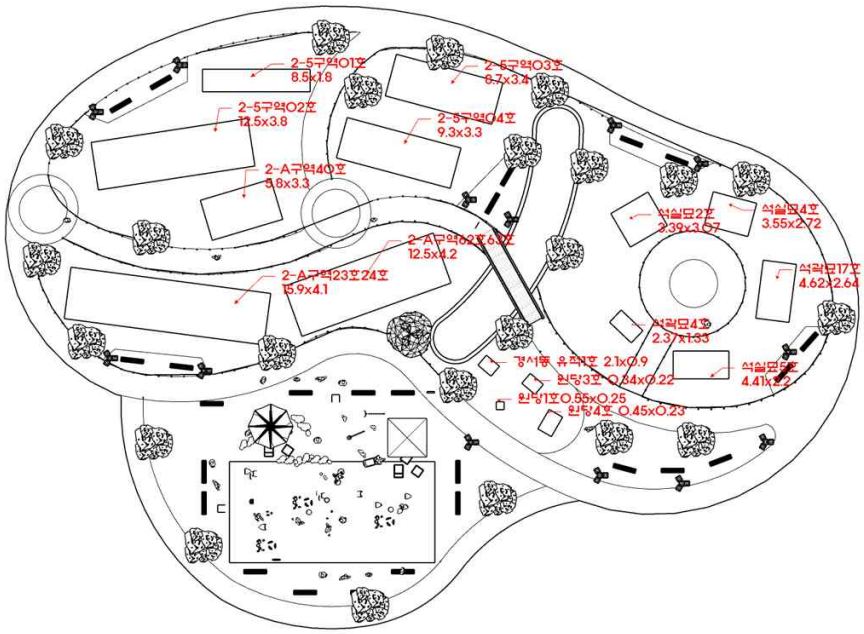
4) 야외전시 구성안

■ 전시구성

- 검단의 유적분포를 살펴볼 때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매장지가 구분되어 조성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ZONE1>에 주거지 9기로 집단취락지역을 조성하고, <ZONE2>는 매장유구지로 구분하여 조성함. <ZONE3>은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 유구를 이전설치하고, <ZONE4>는 고고학 발굴 야외 체험장으로 구성함
- 야외전시장에 선사시대 주거지 재현, 선사인 브론즈 모형, 선사유물 모형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재미있게 연출함. AR을 통해 실제 청동인이 활동하는 모습을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
- 인접한 고고학 발굴체험장을 두어 야외전시 관람 후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고고학 발굴 체험을 하거나 혹은 야외 놀이형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치함



[그림Ⅲ-18] 야외전시 공간구성



[그림Ⅲ-19] 야외전시 유구배치도

[그림Ⅲ-20] 야외전시 연출이미지(안)

다. 야외전시물 보호시설

■ 매장유구 보호시설

◦ 야외전시의 경우 매장유구의 전시유형에 따라 노천형, 개방형, 밀폐형으로 구분됨.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검단신도시박물관 야외전시 유구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보호시설을 선택하거나 복합적으로 활용

[표Ⅲ-12] 전시유형에 따른 유구보호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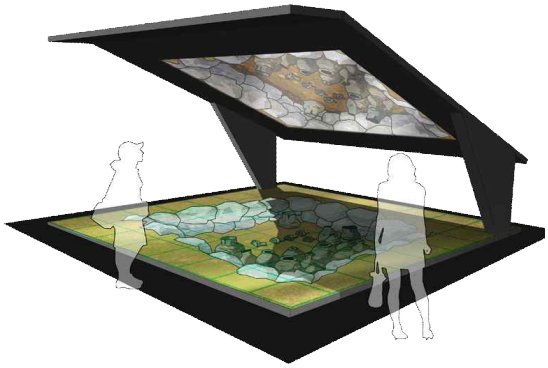
전시유형 구분	장·단점
노천형	보호시설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노출시키는 유형 석재 재질로 손상이 적고 강도가 강한 지석묘나 규모가 커서 야외에 보존할 수밖에 없는 성벽, 축대에 사용됨
개방형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어 외부공기에 노출시키는 유형 관람자들이 유구 관람을 하는데 자유롭고 편리하며 휴게공간과 연계 가능 낙엽과 같은 이물질에 의한 오염의 염려가 있음
밀폐형	강화유리로 덮어 놓는 형태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끼가 끼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유구가 비, 바람에 잘 보존되는 반면 난반사가 발생하며 고온에 취약함

유구보호시설 이미지

3) 견고성, 내구성을 고려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캐노피 디자인(안)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야외전시는 유구보존과 더불어 교육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므로 최근 유구보존공간의 트렌드에 맞춰 유구보존과 관람객의 체험활동 및 휴식공간 등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의 캐노피 형태를 제안함

[표Ⅲ-13] 캐노피형 유구보호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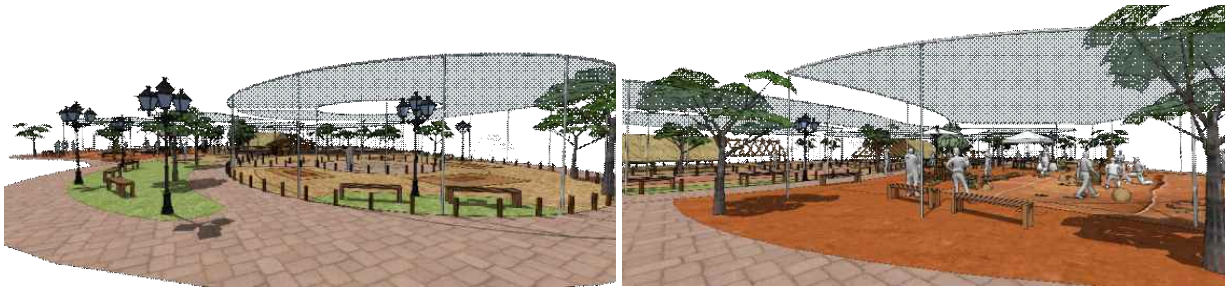
하우징캐노피형	미디어캐노피형
	
대표유적을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캐노피를 설치하고, 내부에 미디어 콘텐츠 연출	LED미디어패널 천정구조물을 이용하여 영상연출 바닥은 배수시설 적용한 강화유리 덮개 설치

- 생생한 발굴현장의 느낌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 발굴과정을 알 수 있도록 집터 구성, 출토유물을 재현하여 함께 배치함
- 유구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효용성과 접근성이므로 보호펜스를 지양하고 투명성과 투과성을 보장하는 외부구조, 유구와 주변공원 사이의 경관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활용함
- 전시유구 중 특별히 외기에 취약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는 개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캐노피 형태의 보호시설과 함께 복합적으로 활용함
-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영상 및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함께 적용함
- 유구보호시설의 유려한 디자인을 통해 주변경관을 향상시키고 교육, 체험, 휴식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조명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함
- 유구안내시설물은 투명, 반투명 강화유리에 '발견위치', '유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인쇄하여 방문자의 시선을 가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유적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선과 유적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동선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

[표Ⅲ-14]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사례

스페인 molinete park의 고대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반투명 폴라카보네이트 루프 캐노피



[그림Ⅲ-21] 야외전시 유구보호시설 제안

4) 관련법규 검토

■ 매장문화재 관련 법규

°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1년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별도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음

[표Ⅲ-15] 매장문화재 관련법규

구분	항목	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함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2. 이전보존 3. 기록보존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보존조치 결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따라 문화재청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소결** : 현재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전부임.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결정하는 시점에 원형보존, 이전보존의 결정사항과 보존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보존조치에 대한 허가는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통해 받으나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법 등은 보존조치를 시행하는 담당자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상황임

■ 관련 건축법 검토

◦ 일반적으로 필로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함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소결** : 따라서 검단신도시박물관 야외전시 캐노피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위해 공중의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함

[표Ⅲ-16] 캐노피관련 건축법

구분	항목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특별전시 기본계획

6.1 어린이체험관

1) 어린이체험관 기본방향

- 놀이와 배움을 지향하는 핸즈온(hands-on)박물관
-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
- 박물관전문가, 유아발달전문가 등이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경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층적 체험 유도
- 학교 및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 및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어린이 문화공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 동반 성인을 배려한 가족 박물관

2)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안)

[표Ⅲ-17]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구분	주제	연출내용
영유아 키즈존	촉감놀이	다양한 재료와 유물을 만지며 체험
	동굴탐험	동굴을 통과하며 소리, 빛, 냄새 체험
	모양 맞추기	전통무늬를 이용해 작품만들기
어린이박물관	모래 속 보물찾기	모래 속 검단유물 찾기
	어린이 고고학	어린이 고고학 체험 탐험대 결성
	검단사람의 비밀	각 시대 검단인들의 특징을 퀴즈로 풀기
	디지털 박물관	디지털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영상관	어린이 실감영상, 애니메이션

6.2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1) 기본방향

[그림Ⅲ-22] 메이커스페이스 전시기본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 스스로 만들고 공유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창의력과 호기심이 성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설계, 다양한 창작 보조기구를 통해 누구나 흥미롭고 편리하게 검단신도시 박물관의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함
- 개인의 창작이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 확장되고 박물관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2) 전시목적

"제작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시연할 수 있는 전시물의 제작·설치"

"다양한 재료와 제조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연출"

전시콘텐츠	전시연출	전시공간디자인
디지털 제작기술을 활용 직접 창작에 참여 원리의 이해와 공유	창작 스토리 발굴 생생한 경험의 제공 창작활동의 본질 이해	개방감 있는 공간 안전이 우선되는 공간 팀웍이 가능한 공간

[그림Ⅲ-23] 메이커스페이스 전시목적

3) 메이커스페이스 프로세스

■ 1단계 - 무엇을 만들지 결정

- 창작활동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 구성
- 연령별, 관심도별로 제공된 프로그램 중 체험할 프로그램을 선택
- 도구, 재료, 기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 제공

■ 2단계 - 만들기 체험

-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설계 및 재료 준비하고 나서 실제 창작활동을 하는 곳
- 디지털 설계 방법 및 제작 과정을 도우미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가 어려워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도
- 개인별 체험, 단체 체험 등을 모두 제공함으로 다양한 경험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함

■ 3단계 - 사진촬영 및 공유(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결과물의 사진을 찍고 제조과정에서의 지식, 방법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박물관 SNS를 통해 각자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 4단계 - 개선방안 연구

- 피드백에 따른 결과물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메이킹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4) 프로그램(안)

[표Ⅲ-18]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스튜디오 프로그램

구분	존	주제	연출내용
메이커 스페이스	발견의 장	‘우리 상상으로 '	재료에 대해 이해하기
			상상라운지-창작활동지원, 아이디어 토론의 장
			디지털설계도 만들기
	창조의 장	‘우리 손으로’	Woodwork-목재가공, 플래닝, 체험, 청동기 목재도구
			Metalwork-금속가공, 플래닝, 체험, 청동기 금속도구
			Stone work-돌, 흙 가공, 플래닝, 체험, 청동기 토기, 석재도구
		‘디지털 기술로’	디지털로 만들기-3D프린터, 레이저커팅, 3D로 청동기 도구제작
		키즈메이커체험	키즈메이커스튜디오-몸체험, 놀이체험 공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공유의 장	‘우리가 함께’	메이커작품 디지털 전시장 (대형미디어월, 검단신도시박물관 홈페이지, 유튜브)
			사진 및 동영상 제작-메이커 활동 및 박물관 관련 동영상 제작지원(유튜버, 학생, 학술단체 등)

6.3 영상관

가. 영상콘텐츠 기본방향

■ 박물관문화의 중심공간

- 최근 박물관에서 영상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개관기념행사, 특별전, 국제학술대회, 지역축제 등 이벤트가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영상을 통해 이벤트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협업과 융합의 공간

- 미디어아트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주요 유물을 모티브로 한 영상, 검단신도시의 형성과정과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영상 등 지속적으로 관람객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연출함

■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공간을 벗어나는 영상관

- 영상관은 필요에 따라 교육, 소규모 공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기획함
- 최근 박물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영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영상관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전시공간, 박물관 도입부, 브릿지 공간 등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에도 영상미디어를 계획할 때 영상관으로 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도입부 공간에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
프랑스 파리(Paris)에 자리한 케 브랑리 박물관
전시 도입부

엡손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이는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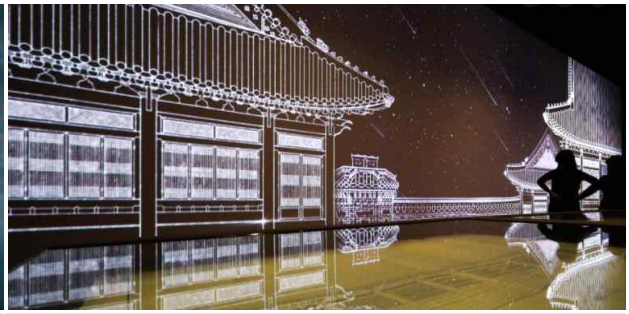
[그림Ⅲ-24] 디지털 미디어 연출

나. 영상관 활용방안

1) 인트로영상 또는 에필로그 영상으로 활용

- 전시동선의 도입부에 위치해 프리뷰 형식의 인트로 영상을 통해 전시관람을 위한 선행적 지식습득, 전시주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제공
- 전시동선과 영상관의 배치에 따라 에필로그 영상관으로도 활용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에필로그 영상



국립고궁박물관 '고궁연화'

[그림Ⅲ-25] 박물관 전시 인트로 영상 사례

2) 디지털 실감영상관

- 인류의 기원과 진화, 검단의 역사와 자연 등을 주제로한 스토리기반 실감영상관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디어아트 전시실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영상

강릉 아르떼뮤지엄 실감영상

[그림Ⅲ-26] 디지털 실감영상관 사례

3)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하는 공연장

-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영화상영, 청소년 연극제, 댄스공연, 작은 음악회와 같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영상관의 특징을 살려 영상과 결합된 공연기획을 통해 다채롭게 연출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적 문화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계획되는 교육시설의 규모가 작으므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뮤지컬-가야의 노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계 공연

서울패션위크
서울공예박물관

[그림Ⅲ-27] 박물관 문화행사

다. 영상관 기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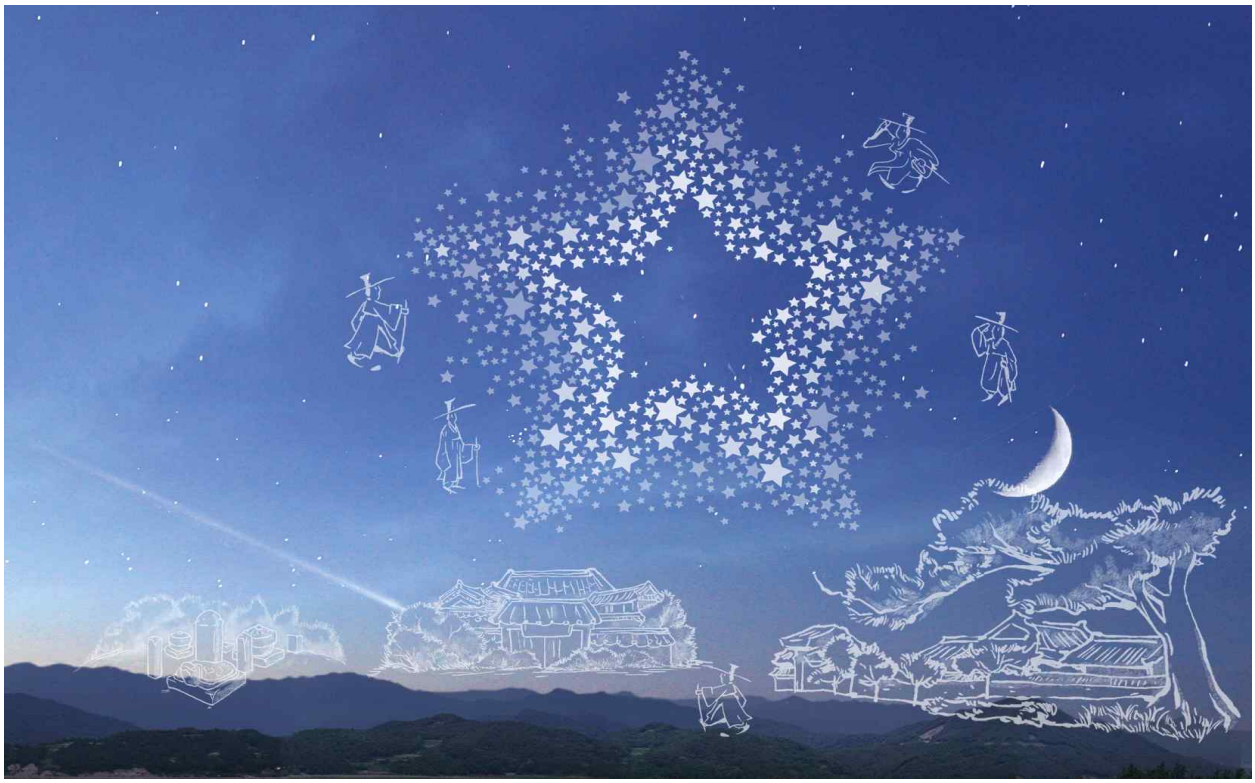
■ 영상주제

검단여정(黔丹旅程)

인천의 별, 검단을 찾아서

검단신도시박물관은
새로운 검단을 발견하는 공간이 됩니다.
검단신도시박물관은 “검단의 땅과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검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의 별들을 만나봅니다.
검단의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 속 이야기, 함께 누리는 검단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 검단여정 핵심 이미지와 스토리라인



구분	내용
#1 인트로	영상이 시작되면 화면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나타난다. 카메라가 점차 앞으로 이동하며 사람들을 지나치고 어느 순간 블랙홀에 빠져든다.
#2. 검단의 키워드	블랙홀 속에서 검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검단의 별모양도끼 모양으로 모여진다.
#3. 타임슬립	검단의 땅과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검단신도시박물관에서 검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의 별로 이동
#4. 검단의 역사	청동기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검단의 땅과 시간과 사람이 하나둘씩 지나가고 점차 다양한 유물과 사람들이 전체 화면을 가득 채워 간다.
#5. 아웃트로	각각의 파편들이 다시 흩어지면서 검단의 별을 만들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검단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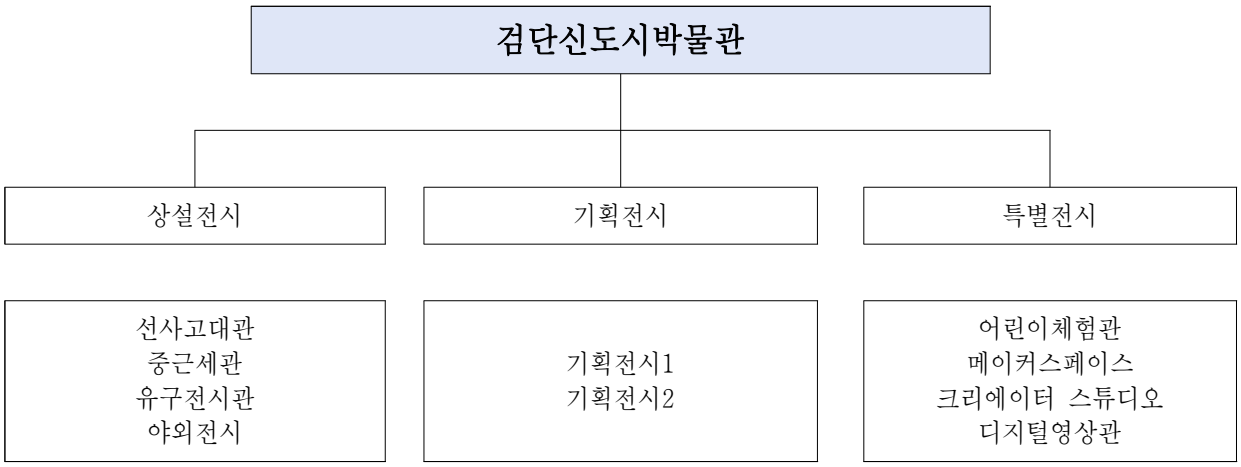
운영기본계획

1. 전시운영방안
2. 교육·체험 프로그램
3. 온라인 전시
4. 검단선사박물관 활용방안
5. 조사연구계획 및 국내·외 교류방안
6. 검단신도시박물관 MI(안)
7. ‘특별전시’ 추가인력산정(안)
8. **전시공사 로드맵**

1. 전시운영방안

1.1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구성

[표Ⅳ-1]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구성



1) 상설전시

■ 상설전시운영

[표Ⅳ-2] 상설전시운영

구분	운영형태	주기	운영시기
상설 전시	소장유물, 역사중심, 아카이브 중심으로 전시	5~10년 주기로 교체	개관즉시

- 상설전시는 검단신도시박물관 소장 콘텐츠(유물, 작품, 아카이브 등)를 중심으로 전시하는 형태
- 최근 상설전시를 일종의 장기적인 기획전의 형식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시교체주기도 빨라지고 있음
- 따라서 전시설계단계에서 부분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고려함. 쇼케이스, 포켓공간을 활용하여 부분적 교체가 용이하도록 초기단계부터 설계함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는 내부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전시교체가 가능함

■ 상설전시구성

[표Ⅳ-3] 상설전시구성

구분	콘텐츠	전시운영방안
선사·고대관	고고학의 이해와 발굴/ 구석기에서 통일신라시대 검단의 선사, 고대사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형태 인천지역 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유물의 증가를 고려하여 부분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쇼케이스, 포켓공간 활용
중·근세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 이후 검단신도시 건립과정의 역사	검단 지역사 중심의 전시. 유물 중심에서 벗어나 고려, 조선시대 검단과 수도, 주변지역, 서해무역 등 주변지연과의 관계를 집중조명 홀로그램, 디지털매체를 적극활용
유구전시관	청동기시대 주거지발굴현장 보존전시	기존의 유구보존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션 매핑, 시노그래픽을 활용. 매핑영상의 변화를 통해 기획전과 타박물관과의 교류, 지역축제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함
야외전시	청동기 유구 이전 전시	AR, VR을 활용하여 생생한 복원현장으로 구현. 야외체험장과 연계된 학습 및 휴게공간 제공. 유구보존시설이 주변경관 및 박물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함

2) 기획전시

■ 기획전시운영

[표Ⅳ-4] 기획전시운영

구분	운영형태	주기	운영시기
기획 전시	트렌드, 연구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전시	연 2~3회 교체	개관즉시

° 박물관의 연구성과와 연계된 전시기획, 새로운 유물 취득에 따른 특별전 등 상설전시와 구분되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전시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기획전시실은 492.69㎡로 계획되고 있음. 기획전시실은 기획전시실 1,2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합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변적 구조로 설계하여 다양한 기획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전시는 보통 1년에 2~3회 정도 교체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양한 장르와 결합된 융복합전시를 통해 박물관의 문화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

° 지역작가와의 정례화된 기획전 개최를 통해 박물관 학예인력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국내외 공동기획 전시는 순회전시를 고려하여 가변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기획함

■ 기획전시 구성

[표Ⅳ-5] 기획전시 구성안

효과	복합문화공간	국내외교류방안	지역소통의 공간
방안	▲ • 타 분야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전시문화 조성 • 유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아트뮤지엄 지향	▲ • 국내 문화유산 관련기관 • 해외 유수기관과의 교류협력 • 전시콘텐츠 공동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및 콘텐츠 질 확보	▲ • 인천지역박물관 공동 기획전, • 기증특별전, 지역작가와의 정례화된 콜라보레이션, 지역축제 연계

3) 특별전시

■ 특별전시운영

[표Ⅳ-6] 특별전시운영

구분	운영형태	주기	운영시기
특별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연1회 관람객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개편	개관즉시

° 어린이체험관,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는 주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됨

° 타 전시시설에 비해 운영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정례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관람자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은 유지하고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개편을 진행함

1.2 중장기 전시계획

- 검단선사박물관의 전시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설전시, 기획전시 운영방안 제시
- 개관 2년차 국제교류 및 학술대회와 연계된 기획전시 주제선정
- 검단유물을 기반으로 전시주제를 확장하여 대한민국 대표 고고학박물관으로 자리매김

[표Ⅳ-7] 검단신도시박물관 중장기 전시계획

<table>
<tr><th colspan="2">연도</th><th>2025</th><th colspan="4">2026</th><th colspan="4">2027</th><th colspan="4">2028</th></tr>
<tr><td colspan="2">월</td><td>12월</td><td>1~3</td><td>4~6</td><td>7~9</td><td>10~12</td><td>1~3</td><td>4~6</td><td>7~9</td><td>10~12</td><td>1~3</td><td>4~6</td><td>7~9</td><td>10~12</td></tr>
<tr><td rowspan="4">상설전시</td><td>선사 고대관</td><td colspan="13">고고학의 이해와 발굴/ 구석기에서 통일신라시대 검단의 선사, 고대사</td></tr>
<tr><td>중근세관</td><td colspan="13">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 이후 검단신도시 건립과정의 역사</td></tr>
<tr><td>어린이 체험실</td><td colspan="13">어린이 체험전시</td></tr>
<tr><td>유구 전시관</td><td colspan="13">청동기시대 주거지발굴현장 보존전시</td></tr>
<tr><td rowspan="2">기획전시</td><td>기획전시 1</td><td colspan="2">개관특별전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과정</td><td colspan="2">검단에서 예술로 피어나는 고고학</td><td colspan="2">한강하류 수호성 검단을 둘러싼 산성</td><td colspan="2">VR로 체험하는 선사시대 하루</td><td colspan="2">찬란한 고려문화 검단에 피어나다</td><td colspan="2">철학의 중심에 선 사후세계</td></tr>
<tr><td>기획전시 2 (특별전)</td><td colspan="4">개관특별전 검단발굴유물의 의미와 고고학의 중심 검단</td><td>국제 교류 전1</td><td>검단의 토기</td><td>검단의 청동유물</td><td>검단 석기 유물</td><td>국제 교류 전2</td><td>한국의 차문화</td><td>한국의 제사</td><td>한국의 의복</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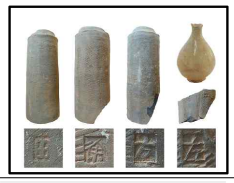
1.3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 및 소장 가능한 전시 소장품 현황조사

1) 검단신도시박물관 주요 소장유물

■ 검단지역 발굴 유물 (전시활용유물)

° 검단지역 발굴 유물 12,081점 중 전시에 활용할 대표 유물 선정

[표Ⅳ-8] 검단지역 주요 발굴유물 목록 (단위:m)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다두석부		청동기 길이 21.7 폭 8.5 두께 2.4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청자다구세트		고려시대 Ⅱ-1지점 29호 석곽묘에서 완형으로 발굴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명문기와		조선시대 Ⅴ-1-B지점 건물지발굴 명문기와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인화문토기병		Ⅴ-1-B지점 조선시대 건물지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무문토기발		청동기 길이 35.8 폭 36.5 두께 8.9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무문토기발		청동기 길이 46.0 두께 10.8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인화분청사기		조선시대 Ⅳ-가-2지점 '예빈'명이 새겨진 인화분청사기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경식		삼한시대 길이 0.9~2.4 폭 0.9~2.4 두께 0.7~3.3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용뉴		고려시대 청동용뉴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장동옹		삼국시대 길이 34.9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절구		삼국시대 길이 12.5 폭 9.0 두께 9.0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단경호		삼국시대 길이 43.0 두께 12.4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단경호		삼국시대 길이 16.7 두께 7.8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목걸이		조선시대 길이 0.95~5.2 폭 0.5~3.3 두께 0.6~1.1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반월형석도		청동기 길이 16.1 폭 5.2 두께 0.85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합인석부		청동기 길이 13.5 폭 6.4 두께 3.5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석촉		청동기 길이 5.1 폭 1.5 두께 0.2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석촉		청동기 길이 7.7 폭 1.6 두께 0.3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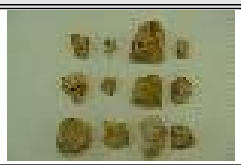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석검		청동기 길이 18.7 폭 4.1 두께 0.9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석검		청동기 길이 19.5 폭 5.2 두께 0.8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망치돌		청동기 길이 9.2 폭 9.3 두께 8.8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환상석부		청동기 길이 7.5 폭 7.5 두께 2.3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구슬		삼국시대 길이 1.3 폭 1.3 두께 1.1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원저단경호		삼국시대 길이 28.3 폭 18.2 두께 1.0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토기소호		삼국시대 길이 7.5 폭 7.1 두께 6.3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인화문토기병		통일신라 길이 14.2 폭 10.41 두께 12.3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단경호		삼한시대 길이 15.1 폭 11.2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철검		삼한시대 길이 1002.7 폭 8.7 두께 1.9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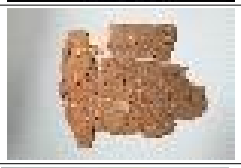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철검		삼한시대 길이 113.7 폭 2.9 두께 1.8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환두도자		삼한시대 길이 25.3 폭 2.5 두께 0.6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환두도		삼한시대 길이 46.8 폭 4.8 두께 0.7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청동과대		통일신라 길이 2.4 폭 2.6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관옥		삼한시대 길이 3.8 폭 1.5 두께 1.5	검단 택지 개발지구 발굴 유물

■ 검단선사박물관 이관 유물(전시활용 유물 위주)

° 검단지역 발굴지에서는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지 않음. 원당동 유물발굴로 확보된 검단선사박물관 소장자료 중 구석기, 신석기시대 유물을 검단신도시 상설전시자료로 활용함

[표Ⅳ-9] 검단선사박물관 이관유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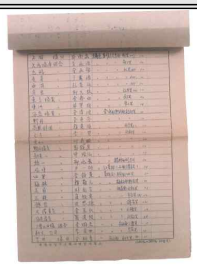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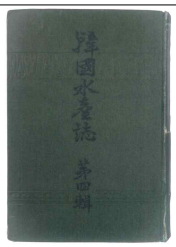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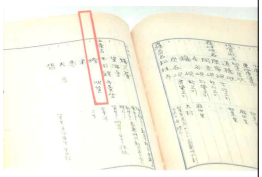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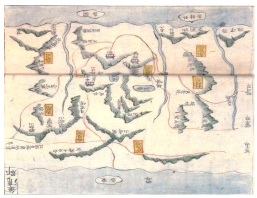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몸돌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격지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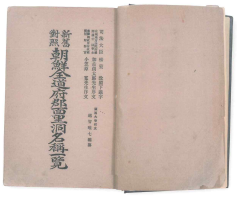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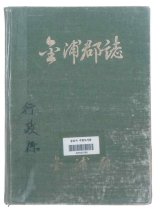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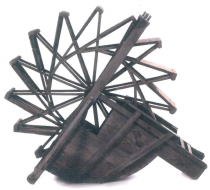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긁개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여러면석기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뚜르개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홈날석기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몸돌-밀개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찍개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석기		한국-구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위탁
즐문토기 구연부		한국-신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보관
고석		한국-신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보관
갈판		한국-신석기	공립-인천검단-검단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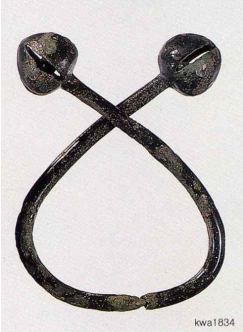
2) 복제 및 대여가 필요한 유물

- 검단신도시박물관 전시에 필요한 유물 중 다른 박물관이나 기관이 소유하고 있어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대여나 복제를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체험형전시와 디지털전시가 일반화되면서 복제품(레플리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건립방향성에 부합하고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물 확보 방안이 필요함

[표Ⅳ-10] 복제 및 대여가 필요한 유물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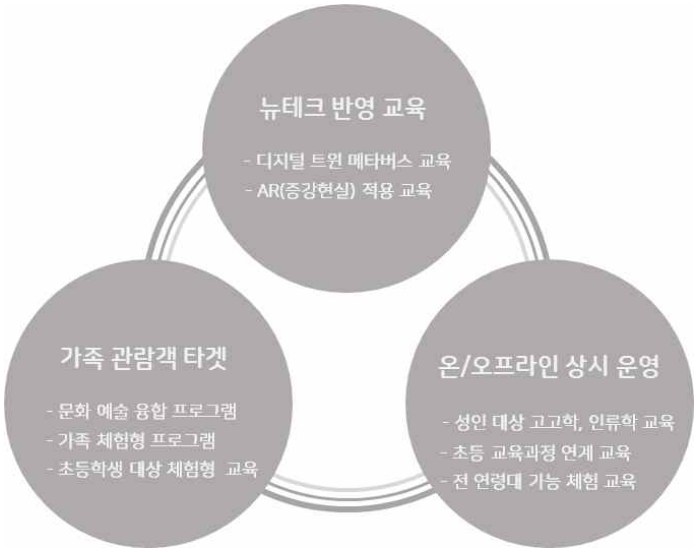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경기도내편		각 지방 염전 1945년 이후|19.6*26.8cm 경기도 염전명칭, 대표자, 주소, 규모 비교를 작성한 표. 당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왕갈리에서 운영 중이던 염전의 이름이 적혀 있음	인천시립박물관
한국수산지		한국수산지 1908-1911|15.5*23.0cm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 농산공부 수산국과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에서 전국의 연안, 도서 및 하천에 대한 수산의 실상을 조사, 기록한 책	서울대 중앙도서관
조선지지자료		조선지지자료 필사본 1911|28.2*20.1cm 1911년 조선의 지명을 정리한 책. 이 책이 출판됨으로서 비로소 19세기 말~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지명을 최소단위까지 알게 됨	국립중앙도서관
지승		김포군지도(18세기 후반)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인 부,목,현을 그린 지도집. 김포군지도에 검단면, 노장면, 마산면 등의 지명이 보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여지도		김포군지도(18세기 후반)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인 부,목,현을 그린 지도집. 김포군지도에 검단면, 노장면, 마산면 등의 지명이 보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호구총수		호구총수영인본(1972) 조선시대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기록한 책으로 1789년(정조13) 전부 9책을 간행. 검단지역 검단면, 노장면, 마산면에 속한 '리'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일람		1914년 군면동리 통폐합 이전과 이후의 지명변화를 대조한 책. 조선총독부에 의해 330개 군 행정구역을 220개 군으로 대폭 축소함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부동산 매도증서		부동산 매도증서 1926년 39.0*27.2cm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457번지에 대한 매매증서로 매도인은 이광문, 매수인은 김상묵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호패		조선후기 호패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 남자에게 발급된 신분증으로 김포군에서 발급된 것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김포군지		김포군지 1977|19.5*26.1cm 김포의 역사, 지리, 정치, 행정, 산업 등 분야별로 다양한 내용을 수록	김포중봉도서관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1861) 철종 12년 김정호가 만든 목판본 대축척 지도집. 검단지역에 해당하는 지명으로 검단면, 백석산 등이 확인되며 백석산 정상부에는 봉수대가 표시되어 있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무자위		무자위 1945년|210.0*80.0*170.0cm 물을 퍼 올리는 농기구 중 하나로 염전에서도 많이 사용됨.	인천시립박물관
한국식동검		청동기시대 길이 29.4cm, 너비 3.6cm, 길이 29.9cm, 너비 3.4cm	국립중앙박물관

구분	사진	내용	소재 및 기타
조합식 가지방울		청동기시대 길이 11~15cm	국립광주박물관
잔무늬거울		청동기시대 지름 15.6cm	국립광주박물관
거푸집		청동기시대 세로 7.4cm, 가로 4.9cm, 두께 1.2cm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검, 청동 꺽창 거푸집		초기철기 길이 33cm, 너비 7.3cm, 두께 3.1cm, 길이 31.9cm, 너비 7.9cm, 두께 2.3cm	국립중앙박물관
팔주령		형태에 따라 쌍두령, 팔주령(八珠鈴)으로도 불림. 대체로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것임	국립중앙박물관

2. 교육·체험 프로그램

2.1 교육프로그램 기본방향



[그림Ⅳ-1] 교육프로그램 기본방향

가. 시대에 걸맞는 뉴테크 반영 교육 구성

- 박물관의 개관 시점인 2026년에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더욱 발전해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경우 가상 세계를 현실과 접목하여 교육에 활용하면 더욱 실감 나는 체험이 가능.
- CES 2022에서 소개된 기술 중 현실 일부를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성하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트윈 형태의 메타버스'라고 일컬음

■ 프로그램 구성 방향

- 디지털 트윈 형태의 메타버스를 반영하여 과거의 현장을 보다 실감 나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구성
- AR(가상현실)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현실을 접목한 게임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나. 주말 가족 방문객 참여 유도

- 1기 신도시 유입 인구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30대 젊은 가족의 비중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음(남소희, 2015)
- 혁신 도시 조성 후 이주 대상 비율을 살펴보면 3,40대 가족 구성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또한 입주 초기 9세 이하 인구 증가 추세를 보임.(정유선, 2019)
- 이에 따라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 관람객을 타깃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

■ 프로그램 구성 방향

- 전시와 연계하여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구성.
- 키트를 활용하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향후 단체 교육 혹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 구성 가능

다. 문화 예술인 참여를 통한 인문, 철학적 접근

- '포용'과 '참여'를 목표로 하는 박물관의 방향성에 맞게 교육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영역을 포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 역사라는 다소 무겁고 협소한 영역의 콘텐츠를 문화 예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승화.
- 문화 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인문, 철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익성 확대

■ 프로그램 구성 방향

- 다양한 문화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구성
- 화가, 웹툰 작가의 고유성을 살린 프로그램 자율 구성으로 다채로운 경험 추구
-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의 경우 직업 체험과의 연계 가능

라. 초등학생 역사 교육 프로그램 연계

° 2015년 개정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3,4학년부터 역사를 다루기 시작함 (교육부, 2015)

° 가정 내에서 체험활동 등의 니즈가 가장 높은 시기로 3,4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타깃으로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 등의 시대를 다루는 역사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구성하여 가족 관람객 참여를 도모함

[표Ⅳ-11]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중 사회 분야 일부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3~4학년 내용요소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자연-인간 상호작용	인간 생활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자연환경은 인간 집단의 활동에 의해 변형된다.	• 고장별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 모습 간의 관계 • 고장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 모습 간 관계, 고장의 생산활동
역사 일반	역사의 의미	역사학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모두 다루는 학문으로서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고장과 관련된 옛이야기, 고장의 문화 유산, 고장의 지명)
정치, 문화사	선사시대와 고조선의 등장	한반도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거친 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였다.	• 시대마다 다른 생활모습(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와 주거 형태)

※ 출처: 교육부

■ 프로그램 구성 방향

° 초등학생 사회 중 역사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구성

° 평일 오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 권장

마. 성인 대상 교육을 통한 상시 운영(온/오프라인)

- 혁신도시의 경우 직업 및 주택을 이유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음(정유선, 2019)
- 가족 구성원의 직업으로 인해 이주했을 경우 가정주부의 비중이 높아지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평일 낮 시간 교육프로그램이 박물관 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온라인에 익숙한 3,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 SNS 홍보 채널 연계를 할 경우 교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홍보 역할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프로그램 구성 방향

- 분기별 역사, 문화예술 등 인문학 강좌 구성
- 평일 오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 참여 유도
- 동일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도 운영 가능

2.2 교육프로그램 사례

가. 전곡 선사 박물관

■ 박물관 프로그램 특징

- 어린이/가족, 유아단체, 학교단체, 청소년/성인의 구분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초등학생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가장 비중이 높음
- 가족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 '우리집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선사 도시 樂', 주말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매번 세부 프로그램이 바뀜
-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지질해설사, 고고학자 등의 섭외를 통한 직업 체험 및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 성인 대상으로 '선사예술 아틀리에'라는 프로그램 운영. 레진아트, 압화 등의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주제와 연결시켜 짧은 강의식 구성이 포함됨

[그림Ⅳ-2] 전곡선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 사례: 선사 도시樂

- 선사 기술, 선사 예술, 선사 문화 등을 접목한 프로그램
- 매월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벤트형으로 1일 동안 총 7가지 체험을 진행하기도 함

° 참여자가 직접 여러 미션을 해결하면서 선사시대 선물을 획득하는 놀이형 교육체험

° 참여대상: 5세~13세 유아 및 어린이 가족

° 프로그램 구성

- 퍼즐을 맞추는 고고학자: 고고학자가 하는 일을 배우고, 유물 복원 과정을 체험
- 박물관캐릭터가 들려주는 박물관 이야기: 구연동화 전문가와 함께 전시장 투어
- 두개골로 보는 인류진화: 두개골 모형 관찰과 활동지
- 형형색색 조개목걸이: 조개, 상아, 구슬을 이용하여 선사시대 예술품 만들기
- 구석기인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나뭇가지로 만드는 선사시대 민박집
- 하하호호 우리가족 ver.2: 나무액자에 가족의 얼굴을 클레이로 빚어보는 체험활동
- 주먹도끼 제작시연: 전문가가 직접 주먹도끼 만드는 과정 시연

[그림Ⅳ-3] 전곡선사박물관 도시락 교육프로그램

나.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 박물관 프로그램 특징

° 자연예술 주말/평일 프로그램, 주말가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일 평균 3회 상시 운영

° 자율체험 프로그램도 편성해 해당 존(zone)에 가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어린이 예술학교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린이와 만날 수 있는 융합의 장 마련

■ 프로그램 사례: 어린이 예술학교

-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심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 참여대상: 초등학생 어린이 대상(전문가에 따라 연령대 구분하여 운영. 어린이 10명 내외 구성)
- 운영방식: 주말(토,일) 중 1회 오전 10시~12시
- 다회차 강의:한명의 전문가가 4회~6회 정도 진행

[그림Ⅳ-4]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 사례: 자연예술 프로그램

- 솔방울, 나뭇가지, 찰흙 등 자연물을 소재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구성
- 참여대상: 5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 운영방식: 주말/ 평일 日 3회 운영 (10:30/13:30/16:00)
- 체험시간: 15분 내외

[그림Ⅳ-5]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박물관 프로그램 특징

-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인 만큼 활발하게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 이후로는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

■ 프로그램 사례: MOKA Museum Day(온라인 줌교육)

-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온라인 줌교육
- 미술관 큐레이터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경험
- 온라인 패밀리 아트 프로그램
- 참여대상: 6세-초4 (20명 내외)
- 운영방식: 주말
- 체험 구성: 키트와 식사(Greating) 자택 배송 + 온라인 클래스 120분

[그림Ⅳ-6]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활동사진

2.3 교육 프로그램(안)

가. 뉴테크(메타버스, AR, VR) 적용 프로그램 '생생체험 그 날'

1) 검단 메타버스

■ 프로그램 목적

- 과거의 현장을 메타버스라는 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체험해보며 배우는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중복 운영 가능
- 인증 방식 및 초대 등으로 자체적인 마케팅 효과 가짐

■ 운영 방식

- 대상: 초등학생 이상
- 장소 및 공간: 교육실/온라인
- 참여 인원: 30명/제한없음
- 진행시간: 약 1시간
- 기념품: 메타버스 내에서 돌아다닌 기록 영상 및 캡쳐
- 프로그램 구성: 메타버스 내 지역 전문가 설명

■ 프로그램 내용

-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다룸
- 실제와 유사한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통해 보다 실감나는 학습
- 연령별 맞춤화 된 교육 제공

[표Ⅳ-12] 검단 메타버스 프로그램

순번	주제	내용	비고
1	유물 발견	현대 시대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과정을 메타버스 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게임 형식의 콘텐츠 구성	
2	청동기시대 검단	실제 청동기시대의 자연경관 및 마을 모습을 메타버스 내 체험 가능하도록 콘텐츠 구성	
3	현대의 검단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느끼며 현대의 검단을 인지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그림Ⅳ-7] 검단 메타버스 연출예시

2) 가상현실 고고학자 체험

■ 프로그램 목적

° 뉴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 형식 교육 프로그램

° 유물을 발굴하는 형태의 게임을 통해 청동기의 유물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음

■ 운영 방식

° 대상: 초등학생 이상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 참여 인원: 약 10명

° 진행시간: 약 1시간

° 기념품: 가상현실 게임 스크린 샷

° 프로그램 구성: 고고학자가 되어 청동기 유물을 발견하여 미션을 완료

■ 프로그램 내용

° 게임하듯 검단의 유적지 발견 장소에 도달하여 실제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견하는 과정을 가상현실 내에서 실행

° 유물 발견 미션을 완료하면 퀴즈 등의 게임 요소를 통해 간단한 내용 확인 후 교육 수료

[그림Ⅳ-8] VR을 활용한 고고학자 체험

나. 전시 연계 & 가족 체험형 주말 프로그램 '우리동네 역사관'

1) 토기 액자 만들기

■ 프로그램 목적

- 청동기시대의 유물 모양(원형점토대토기)을 직접 만들어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액자 형태의 기념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
- 가족 간의 협업을 통해 작품 완성하는 경험과 시대의 유물에 대한 이해도 향상
- 키트 활용: 온라인 집콕놀이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가능

■ 운영 방식

-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 방문객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 참여 인원: 약 10가구
- 진행시간: 약 2시간
- 기념품: 직접 펜 등을 담을 수 있는 토기 액자
- 프로그램 구성: 캔버스에 그리기 활동 50분 + 토기 모양 만들기 50분

■ 프로그램 내용

- 제공키트: 각 시대 유물을 본 뜬 토기 모양 틀, 캔버스, 찰흙, 유화 물감
- 강사의 간단한 시대적 설명 후 키트 제공을 통한 제작 활동

[그림Ⅳ-9] 우리동네 역사관

2) 유물 복원 체험

■ 프로그램 목적

- 토기가 발견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복원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유물의 가치를 이해함
- 키트활용: 온라인 집콕놀이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가능

■ 운영 방식

-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 방문객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 참여 인원: 약 10가구
- 진행시간: 약 1시간
- 기념품: 복원한 토기 모양 기념품
- 프로그램 구성: 강사의 유물발굴 과정 설명 15분 + 토기 복원 체험 40분

■ 프로그램 내용

- 제공키트: 조각난 토기 모형, 접착제, 토기 복원 설명서
- 유물의 발견 과정 설명 후 키트 제공을 통한 제작 활동

[그림Ⅳ-10] 유물 복원 체험

다. 문화 예술 융합 프로그램 : '청동기예술시대'

1) 화가와 함께 그리는 '그 때'

■ 프로그램 목적

- 다양한 장르의 화가들이 해석하는 시대의 풍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
- 다양한 작가의 화풍을 접하고 미술을 이해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 운영 방식

- 대상: 초등학생/청소년/일반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or 야외 전시 공간
- 참여 인원: 10명 내외
- 진행시간: 약 2시간
  - 프로그램 구성: 강사 주도 30분 + 드로잉 시간 60분 + 발표 시간 30분

■ 프로그램 내용

- 시대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작가가 해석하는 관점과 시각을 살펴보는 시간
- 유적이나 유물을 살펴보며 작가의 화풍을 이해하는 시간

[그림Ⅳ-11] 문화 예술 융합 프로그램

2) 웹툰 작가와 함께하는 청동기시대 만화 그리기

■ 프로그램 목적

- 웹툰 작가의 작업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만화를 그려볼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
- 다양한 웹툰 작가의 작업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 운영 방식

- 대상: 초등학생/청소년/일반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 참여 인원: 10명 내외
- 진행시간: 약 2시간
  - 프로그램 구성: 작가와의 대담 60분 + 웹툰 그리기 60분

■ 프로그램 내용

- 작가의 작품과 작업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웹툰 제작과정을 이해하는 시간
- 시대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작가가 해석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
- 직접 네 컷 만화를 그려보는 시간

[그림Ⅳ-12] 웹툰 창작활동

라. 초등학생 대상 평일 교육 프로그램: '청동기야 놀자'

1) 우리동네 청동기 지도 만들기

■ 프로그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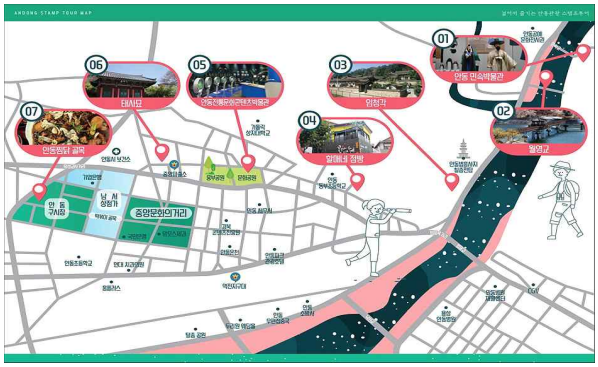
- 검단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유물에 대한 학습 효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 자율적인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박물관 활성화 도모

■ 운영 방식

- 대상: 일반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 전시관
- 참여 인원: 제한 없음
- 진행시간: 약 1시간
- 기념품: 지도 완성 시 소정의 기념품 지급
- 프로그램 구성:지역 전문가 설명 15분 + 자율 작업 시간 40분

■ 프로그램 내용

- 제공키트: 검단지역 내 유물발굴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 판, 각 유물을 나타내는 스티커, 유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스티커, 설명서
- 지역 및 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체험프로그램
- 지역 전문가를 통해 지역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듣고 난 후, 전시관을 돌며 관련 유물을 찾고 지도를 완성하는 프로그램



[그림Ⅳ-13] 청동기야 놀자 활동지 예시

2) 반달 돌칼 만들기 체험

■ 프로그램 목적

◦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반달 돌칼을 직접 만들어보고 반달 돌칼의 활용에 대해 이해함

■ 운영 방식

◦ 대상: 초등학교 4학년까지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 참여 인원: 10명 내외

◦ 진행시간: 1시간 30분 내외

◦ 프로그램 구성: 만들기 30분+ 강의식 청동기시대 이야기 30분 + 만들기 30분

■ 프로그램 내용

◦ 제공키트: 반달돌칼 모양 석고 틀, 석고, 마끈 등을 제공하여 반달돌칼 만들기

◦ 석고가 굳는 시간 동안 스토리텔링 형식 역사 이야기를 접목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끔

[그림Ⅳ-14] 반달 돌칼 만들기 체험

3)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박물관 여행

■ 프로그램 목적

° 초등학교 교과 과정 연계를 통한 박물관 투어

°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통해 박물관의 유익성 강조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직업체험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추가 생성 가능

■ 운영 방식

° 대상: 초등학생

° 장소 및 공간: 전시실 + 야외전시실

° 참여 인원: 20명 내외

° 진행시간: 60분 내외

° 프로그램 구성: 고고학자와 함께 박물관 투어

■ 프로그램 구성

[표Ⅳ-13]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박물관 여행 프로그램 구성

순번	주제	내용	비고
1	역사의 의미	기록으로서의 역사, 해석으로서의 역사	
2	자연과 인간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의 관계	야외 전시장
3	검단의 지리적 특성 검단의 유물	고인돌과 검단의 관계 산성 발굴지를 통해 본 검단	
4	선사시대와 고조선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에 따른 생활 모습 (생활 도구/주거형태의 비교)	내부 전시관 관련 유물 관람

마. 성인 대상 정기 교육 프로그램: 검단 박물관 대학(온/오프라인)

1) 나의 역사, 나의 전기(글쓰기)

■ 프로그램 목적

° 글쓰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글을 다듬고 온라인 책을 발행하는 과정까지 진행해 보는 교육

° 역사의 기록, 해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사를 서술해 보는 교육

■ 운영 방식

° 대상: 글쓰기에 관심 있는 성인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교육

° 참여 인원: 약 30명

° 진행기간: 주 1회씩 8회 진행

■ 프로그램 구성

[표Ⅳ-14] 검단 박물관 대학 프로그램 구성

순번	주제	내용	비고
1	나의 역사란?	역사, 현대사, 개인사의 차이	
2	나의 역사 쓰기	사례를 통해 보는 나의 역사, 자서전	
3	글쓰기의 준비	글쓰기를 위한 준비	글쓰기 계획서
4	자서전 쓰기 실습	자서전 쓰기 실습 및 감수	
5	자서전 쓰기 실습	자서전 쓰기 실습 및 감수	
6	나의 역사 소개	참여자 발표 및 토론	
7	글 다듬기	자서전 다듬기 및 감수	원고 최종본
8	e북 제작	개인별 e북 제작 진행	나의 역사 e북

2) 전통소재의 일상화 (공예)

■ 프로그램 목적

° 역사를 이해하고 유물과 관련된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교육프로그램

°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다채로운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음

■ 운영 방식

° 대상: 일반 성인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 참여 인원: 약 10명

° 진행시간: 주 1회씩 4회 진행

■ 프로그램 내용

[표Ⅳ-15] 전통소재 체험 프로그램 구성

순번	주제	내용	비고
1	한지공예	한지 사각 접시 만들기	
2	도예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3	전통 매듭 공예	나비 노리개 만들기	
4	나무 공예	나무 공예 조각 만들기	

3) 아는 만큼 보이는 우리동네(역사)

■ 프로그램 목적

° 검단이라는 지역을 매개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 박물관 투어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교육과정

■ 운영 방식

° 대상: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

° 장소 및 공간: 교육실/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교육

° 참여 인원: 약 30명

° 진행기간: 주 1회씩 8회 진행

■ 프로그램 구성

[표Ⅳ-16] 아는 만큼 보이는 우리동네 프로그램 구성

순번	주제	내용	비고
1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해석	역사학자 강의
2	한반도의 역사	한반도 역사의 맥을 이해	
3	전시관 투어	학예사와 함께하는 전시관 투어	학예사
4	검단의 역사	유적을 중심으로 배우는 검단의 역사	
5	선사, 청동기와 철기시대	각 시대의 생활상, 주거형태의 비교	
6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유물과 함께 보는 삼국시대의 생활상	
7	조선시대와 근현대사	유물과 함께 보는 근대사	
8	전시관 투어	알고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학예사

3. 온라인 전시

3.1 온라인 전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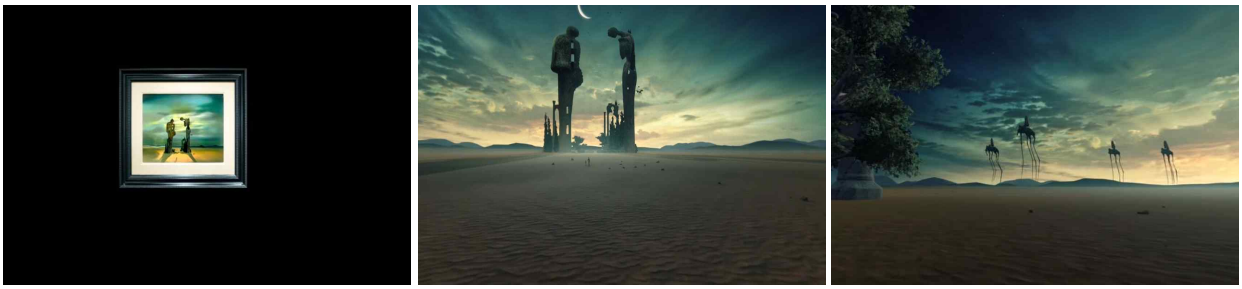
- 최근 박물관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온라인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오프라인 전시공간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소셜 미디어는 참여, 개방, 커뮤니케이션을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을 콘텐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현재 박물관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여전히 온라인전시관에서 일방적, 수동적이며 문화소비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문화의 글로벌화,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고, 박물관 역시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영국의 후퍼 그린힐은 이를 포스트뮤지엄이라 함
- 포스트뮤지엄이란 관람객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박물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양한 매체와 장르와의 교류를 의미함
- 포스트뮤지엄시대 온라인박물관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교류적 활동이 일어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의 박물관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박물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3.2 온라인 전시사례

1)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

- 2016년 1월 1일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에서는 ‘디즈니와 달리:상상의 건축’ 전시 개최를 기념하여 달리의 작품 ‘Archaeological Reminiscence of Millet's Angelus’를 VR 콘텐츠로 개발하여 선보임. 직접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오큘러스를 착용하고 VR 콘텐츠 ‘Dream of Dali’를 체험할 수 있었음. 달리 미술관은 4분 분량의 360도 인터랙티브 동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여 전시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스마트폰과 VR기기만으로 달리의 작품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상박물관을 방문해 오프라인 전시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많은 VR 콘텐츠와 달리, 직접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 그림 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입체사운드와 압도적 공간감을 주는 몰입형 콘텐츠를 체험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전시를 시도함으로 2022년 기준 540만 조회 수를 거두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임



[그림Ⅳ-15] 살바도르 달리의 'Dream of Dali' 유튜브 영상

° 'Dream of Dali'의 VR 콘텐츠는 오프라인 전시의 보조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관람자의 경험의 확대, 작품을 감상하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온라인전시관의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음

2) 게티미술관 – 명작 따라하기 첼린지

°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이 휴관 중이던 2020년 '미술과 격리 사이에서'라는 뜻의 네덜란드 인스타그램 계정 투센 쿤스트 & 쿠아란타인은 전 세계 팔로워들에게 미술 프로젝트 <명작 따라하기 챌린지>를 제안함

° 챌린지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째, '좋아하는 작품을 고를 것', 둘째, '집에 있는 물건 세 가지를 활용할 것', 셋째, '그 물건으로 작품을 재창조할 것'

° 챌린지는 많은 팔로워의 호응을 이끌어 냈고 게티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등의 온라인전시관으로 확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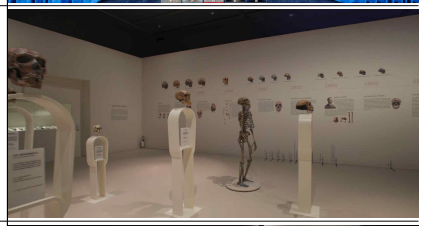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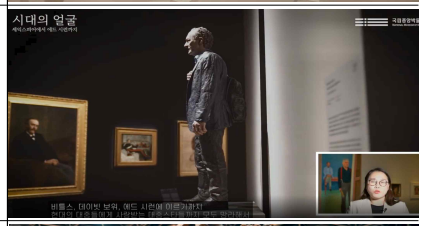
° 온라인전시관이 작품을 감상하는 기존 전시관의 수동적 관람행위에서 벗어나 유쾌한 재해석을 통해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이 확대된 사례라 할 수 있음

[그림Ⅳ-16] 명작 따라하기 챌린지 사례

3)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

-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전시관에는 총 78건이 전시되고 있는데 전시해설 동영상, VR전시, 메이킹 영상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됨
- VR전시의 경우 전시해설, 스킵 버튼, VR이 혼합된 형식으로 VR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마치 가이드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표Ⅳ-17]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유형

온라인전시유형	내용	사례 및 이미지
VR전시	<중국 고대 청동기_신에서 인간으로> <호모 사피엔스 : 진화∞ 관계& 미래?>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 등의 특별전을 VR로 제공	
전시해설 동영상	특별전 [호모 사피엔스 : 진화∞ 관계& 미래?]에서는 각 전시공간에 담당학예사의 짧은 설명을 곁들인 동영상이 재생하고 부분적으로 VR을 곁들임. VR만 재생될 때보다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VR만 있을 때 보다 전시관람이 용이함	
작품 및 전시해설	전시, 작품에 대한 해설. 담당학예사의 전시설명, 박물관장의 유물해설, 전문가의 작품해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 및 전시해설을 제공 전시영상 외 진로탐색, 작가 강연 등도 제공	
메이킹 영상	전시기획단계부터 제작설치, 유물의 디지털 작업화 과정 등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영상으로 제공함	

메타버스 뮤지엄	제페토 '힐링 동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2점이 함께 존재하는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융합세계로 방문자는 맵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들판에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 반가사유상을 빛나게 하고 신비로운 동굴 속에 들어가 반가사유상의 자세를 따라하며 함께 셀피 촬영	

■ 시사점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에도 존재했던 온라인전시관이 오프라인 전시관의 보조적 수단에서 벗어나 관람자들과 소통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전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달리의 <Dream of Dali>에서는 일반적인 뷰잉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몰입감 넘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명작 따라하기 챌린지>의 경우 관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음. 국립중앙박물관의 메이킹영상은 실제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박물관 뒤편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 냄

° 위의 사례를 통해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온라인전시관은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시경험과 관람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함

3.3 온라인 전시콘텐츠 구축

1) 콘텐츠개발

■ 온라인의 상호작용 기능 활성화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콘텐츠는 일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박물관들의 온라인 전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대부분 박물관이 오프라인 전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시를 오프라인 전시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온라인공간의 특징은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온라인 전시공간을 관람자와 박물관, 관람자와 관람자의 상호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

■ 관람자 중심의 전시구성

- 팬데믹시대를 걸치면서 많은 박물관이 VR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VR 전시관은 오프라인 전시공간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며 관람자는 그러한 온라인 전시공간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전시는 오프라인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해설사의 가이드를 받으며 VR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관에 설치된 동영상도 천천히 관람할 수 있었음
- 연예인과 함께 관람하는 전시관, 명사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할 수 있는 전시, 분해하고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전시경험 등 오프라인 전시가 가질 수 없는 온라인전시관만의 장점을 살려 관람자 중심의 전시구성이 필요함
- 즉 온라인전시관과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서로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상호보안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라인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력 강화

- 디지털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 온라인콘텐츠 개발자에 의한 콘텐츠 구축이 필요함. 디지털 세대의 이해를 기반으로 관람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재미,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함
- 정보 과잉의 시대일수록 기획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되므로 박물관 인력구성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콘텐츠 구축을 위한 기획인력 구성이 필요함

■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의 상호보완

- 기획·특별전의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 VR을 이용한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를 병행을 통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 최근 들어서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임
- 과거 온라인 전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기반 플랫폼 관점에서 벗어나 전시 본연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온라인 전시방법을 지속해서 탐구할 필요가 있음
- 오프라인 전시를 다양한 시점으로 재해석한 온라인 전시콘텐츠를 통해 홍보의 장, 새로운 체험의 장, 더 넓은 관람객과 만남의 장 모색하여야 함

<국립중앙박물관-하나의 전시로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기획전 <한겨울 지나 봄 오듯 - 세한평안(2020.11.24.~2021.04.04.)>는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관련 콘텐츠들이 제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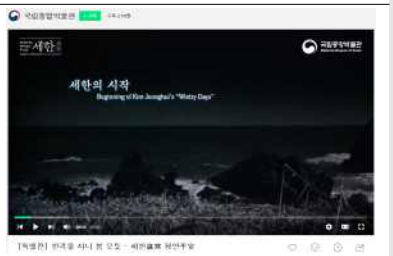
전시 포스터

국립중앙박물관 오프라인전시관

전시디자이너의 시선- 유튜브

큐레이터 전시소개-유튜브

전시연계강연-유튜브



전시회소개-네이버TV

-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통해 관람자를 유입하고 적극적으로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내며, 전시연계강연을 통해 전시와 교육을 결합하고 심화된 정보를 제공함. 특히 큐레이터의 전시소개영상과 전시디자이너가 전시제작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은 전시연출 의도와 전시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음

2) 온라인전시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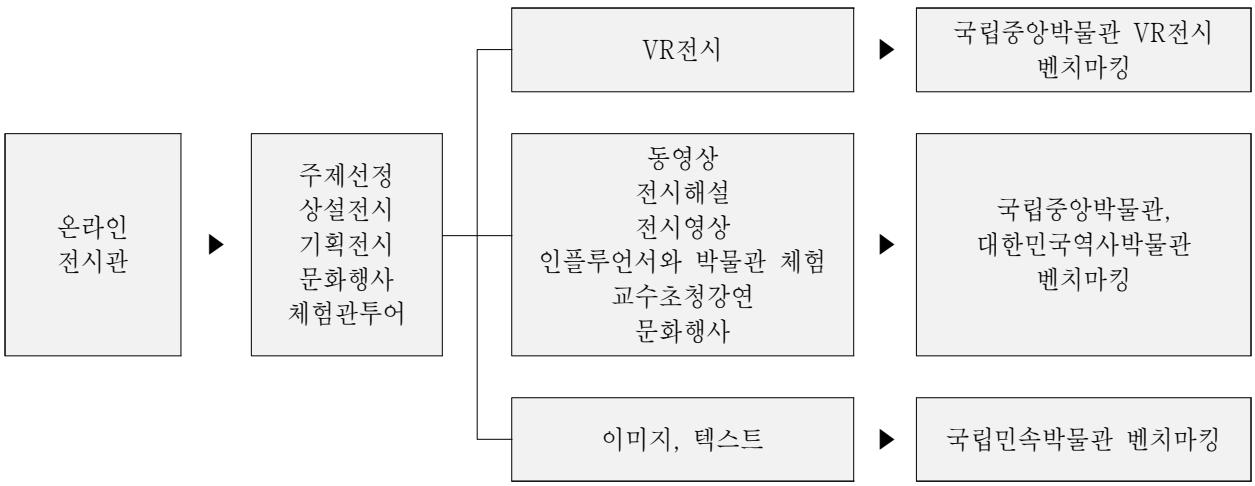
■ 온라인전시관 분석

- 서울역사박물관의 온라인전시관에는 2012년부터 진행된 전시를 VR전시관으로 구현하여 전시하고 있음. 메인 페이지에는 전시포스터와 전시기간, 간략한 전시소개가 있으며 클릭해서 들어가면 VR전시관으로 연결됨
- 국립민속박물관의 온라인전시관에서는 VR 또는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안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들어가면 전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전시포스터, 주요 전시물, 전시관 내부 사진을 볼 수 있어서 VR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자들이 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온라인전시관은 VR전시관, 박물관 홍보영상, 문화공연영상, 교수 및 전문가 초빙영상, 인플루언서의 박물관체험영상 등 오프라인의 온라인 재현을 넘어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만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전시를 구성함

■ 검단신도시박물관 온라인 전시구성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온라인전시관은 국내 우수 박물관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람객의 만족도가 우수한 온라인전시관을 구현
- 다양한 온라인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관람자들이(1단계) -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고(2단계) - 관람의 형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표Ⅳ-18] 검단신도시박물관 온라인 전시 브리프



3.4 메타버스 뮤지엄 개관

■ **프리뷰 '2026 검단신도시박물관'**

° 검단신도시박물관은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실제 유물이 발굴되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을 건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개관 전 메타버스 뮤지엄을 오픈하고 전시, 공연,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 검단신도시박물관의 홍보 및 전시프로그램 개선 등을 진행함

■ 디지털 시공간 이동

° 메타버스 뮤지엄의 가장 큰 특징은 박물관 자료가 원래 존재했던 시간 속 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임.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타임슬립을 통해 검단의 선사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특정장소로의 여행을 통해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전시유물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

■ 공간과 소통의 확장

° 메타버스 뮤지엄은 아바타를 만들고 이 아바타를 통해 단순히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벗어나 유물에 감추어진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와 지식을 찾아 체험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

4. 검단선사박물관 활용방안

4.1 검단선사박물관 유물 이전 방안 및 전시 활용방안

[표Ⅳ-19] 검단선사박물관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인천 서구 고산후로 121번길 7
개 관	2008.11.27.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 지하1층: 수장고, 유물보존처리실, 기계실 • 1층: 안내데스크, 상설전시실(642㎡), 기획전시실(137㎡) • 2층: 체험학습실(179㎡), 하늘정원(430㎡)
대지면적 연면적	10,216㎡(공원면적 포함) · 1,894㎡(576평)
관람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정기휴일)
관람요금	무료
관람인원	41,193명

- (제1상설전시실)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의 인천 출토유물 약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음. 구석기시대 유물로는 원당동 유적과 불로동 유적에서 출토된 긁개, 찍개 등이 있고 동양동 유적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빗살무늬토기의 편이 전시되어 있음.
- (제2상설전시실) 동양동과 원당동에서 발굴 조사된 집터를 복원해 놓은 공간으로,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이 전시되어 있음.
- 원당동 집터에서는 구멍무늬토기(공열문토기), 둥근점토띠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반달돌칼, 돌창, 방추차 등 다양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면서 학술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그림Ⅳ-17] 검단선사박물관 제1전시실

[그림Ⅳ-18] 검단선사박물관 제2전시실

- **(선사문화체험장)** 뗀석기, 간석기 등 선사시대 유물모형을 직접 만져보고 활비비, 갈돌·갈판 등을 이용해 선사문화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선사시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공간임
- **(아동도서실)** 어린이를 위한 도서와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1,500여 권이 비치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선사문화체험장	아동도서실

[그림Ⅳ-19] 검단선사박물관 체험학습실

- **(하늘정원)** 박물관 2층 야외에 자리 잡은 하늘정원은 여러 가지 초화류와 나무들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임
- **(야외공원)** 박물관 뒤편에 위치한 공원에는 돌널무덤들이 전시되어 있음.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정식 조사된 이 돌널무덤은 대곡동 고인돌군과 더불어 이 일대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하늘정원	야외공원

[그림Ⅳ-20] 검단선사박물관 야외공간

4.2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 이전 전시 활용방안

1) 이전 야외전시물 현황

[표Ⅳ-20]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물 현황

야외전시유규	크기	현황사진
원당동 유적 1호 석곽묘	묘광길이 55㎝x너비25㎝x높이35㎝	
원당도 유적 3호 석관묘	묘광길이 34㎝x너비22㎝x높이15㎝	
원당동 유적 4호 석관묘	묘광길이 45㎝x너비23㎝x높이30㎝	
경서동 유적 1호 석실묘	묘광길이 210㎝x너비90㎝x높이50㎝	

■ 원당동 유적 1호 석곽묘

° 원당동 유적 1호 돌널무덤은 만수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낮은 구릉의 북서 사면(해발 36m, 현 원당 우체국의 남서쪽 인근)에서 1기만 확인된 것이다. 무덤은 구덩이를 판 후, 널빤지 같은 돌널을 한 장씩 사용하여 네 벽을 둘렀으며, 넓은 돌판 1장과 작은 돌판 2장을 바닥에 깔았다. 돌널의 규모는 길이 55cm, 너비 25cm, 높이 35cm이며, 조사 당시 무덤의 장축은 남북방향으로 구릉의 정상부를 향하였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돌널무덤은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양식으로 이 돌널무덤은 인천에서 최초로 정식 조사한 중요한 학술자료이다.

■ 원당동 유적 1호 석곽묘

° 1호 돌널무덤이 발견된 지점 서쪽에 위치한 해발 40m의 구릉 정상부에서 2,3,4호의 돌널무덤이 나란히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무덤의 장축 방향은 구릉의 정상부를 향하고 있었다.

° 3호 돌널무덤은 장방향의 돌널을 축조한 후, 그 주위에 돌들을 원형으로 돌린 것으로 돌널의 규모는 길이 34cm, 너비 22cm, 높이 15cm이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돌널의 규모가 시신에 비해 작은 것으로 보아, 유아를 묻거나 뼈만 매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원당동 유적 4호 석곽묘

° 1호 돌널무덤이 발견된 지점 서쪽에 위치한 해발 40m의 구릉 정상부에서 2,3,4호의 돌널무덤이 나란히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무덤의 장축 방향은 구릉의 정상부를 향하고 있었다.

° 4호 돌널무덤은 장방향의 돌널을 축조한 후, 그 주위에 돌들을 장타원형으로 둘렀다. 조사 당시 덮개돌은 서쪽으로 밀려난 상태로 발견되었다. 돌널의 규모는 길이 45cm, 너비 23cm, 높이 30cm이며, 무덤주위 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길이 8.3cm의 돌끌이 출토되었다.

° 지표상에서 납작한 삼각형 돌화살촉, 돌칼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돌널무덤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경서동 유적 1호 석실묘

° 2010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공사 중, 바다로 향해 뻗은 서남향의 낮은 구릉(해발 19m)에서 확인되었다. 매장자의 머리는 구릉의 정상부인 동쪽을 향하여 놓았다. 돌무덤의 크기는 길이 210cm, 너비 90cm, 깊이 50cm이다.

° 매장자가 들어간 벽체 안쪽은 길이 180cm, 머리 쪽 너비 48cm, 발치 쪽 너비 40cm로 머리쪽을 조금 넓게 만들었다.

° 무덤의 네 벽은 깬돌로 쌓았으며, 매장자가 놓인 바닥에도 같은 돌로 깔아서 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다. 이 때문에 매장자를 나무널에 놓고, 그 둘레는 돌로 쌓은 위석식목관묘일 가능성도 있다. 무덤 안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쪽 벽의 동쪽 모서리 위에 검은 간토기 2점이 부서진 채 발견되었다.

° 매장 기법과 출토된 토기로 볼 때 기원전 3~4세기에 해당하는 무덤으로 마한이 형성되던 시기, 인천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4.3 검단선사박물관 건물 향후 활용 및 운영방안

°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행정·문화·교육의 중심도시, 친환경적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된 자족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진행됨. 2023년 12월 준공 이후 약 19~20만 명의 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임

° 현재 검단신도시 내에 조성계획된 문화시설로는 14호 근린공원에 들어설 박물관과 도서관, 근린공원 17개, 어린이공원 22개, 소공원 11개, 역사공원 1개, 수변공원 1개가 설치 예정임

° 검단신도시의 경우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의 개수가 타 도시 및 전국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음

[표Ⅳ-21]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2020년, 통계청)

전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검단신도시	
6.0	4.4	3.9	4.1	5.1	4.2	4.1	6.5	전국기준 11개	인천기준 8개

°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검단신도시의 필요 문화시설수는 전국평균기준 11개, 인천기준 8개로 추정됨

° 따라서 검단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검단선사박물관은 검단신도시의 중추적인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가. 제안1-미디어아트 기반의 복합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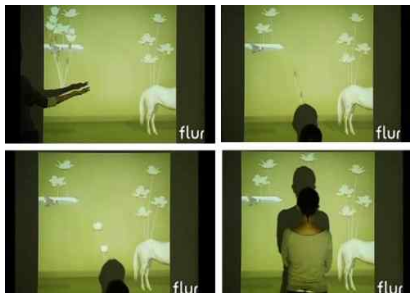
° 최근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기반 복합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박물관에서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기법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 2025”를 수립하는 등 박물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서비스 가속화 중에 있음.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실감영상관>은 박물관 상설전시공간에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한 첫 사례이며 국립청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에도 순차적으로 개관을 하고 있음

- 아르떼뮤지엄은 대규모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제주, 여수에 이어 2021년 12월에 강릉에 전시관을 오픈하였으며 하루 3천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이렇듯 <디지털 실감영상관>에 대한 사람들의 문화수요는 검증된 만큼 검단신도시박물관 유물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 검단신도시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 기능 강화와 더불어 이를 이용 새로운 전시문화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대문 라뜰리에와 같이 실감영상 외에 공연, 공간체험, 카페 등 다양한 활동까지 가미하여 전시와 휴식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색적인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국립중앙박물관
대형불화 미디어아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라뜰리에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그림Ⅳ-21] 미디어아트 사례

나. 제안2-개방형수장고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1)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수장고 확대 필요성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유물은 검단택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유물 약 12,081점과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이관될 소장품 4,319점으로 총 16,400점이며 수장고 면적은 1,000.66㎡으로 계획됨
- 현재 유물은 대부분 발굴유물이며, 검단신도시의 역사를 기록할 1989년~2025년의 유물은 유물의 구입, 기증, 이관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유물의 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인천서북권에 계양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소장유물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인천 서북부 중심박물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유물수집 확대 및 충분한 수장고 면적확보 필요함

° 이를 위해 검단선사박물관을 수장고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수장고 면적확보와 지역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로 계획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개방형 수장고

° 근래 들어 대중을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생산과 작품해석의 주체로 조명받으면서 전문가에게만 개방되었던 수장고가 대중에게도 개방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유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요구는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음. '보이는 수장고'는 학예사들이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게, 내가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소장품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자기주도적 관람이 가능해짐

° 개방형 수장고는 수장고의 개방정도 및 방법, 성격,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표Ⅳ-22] 개방형 수장고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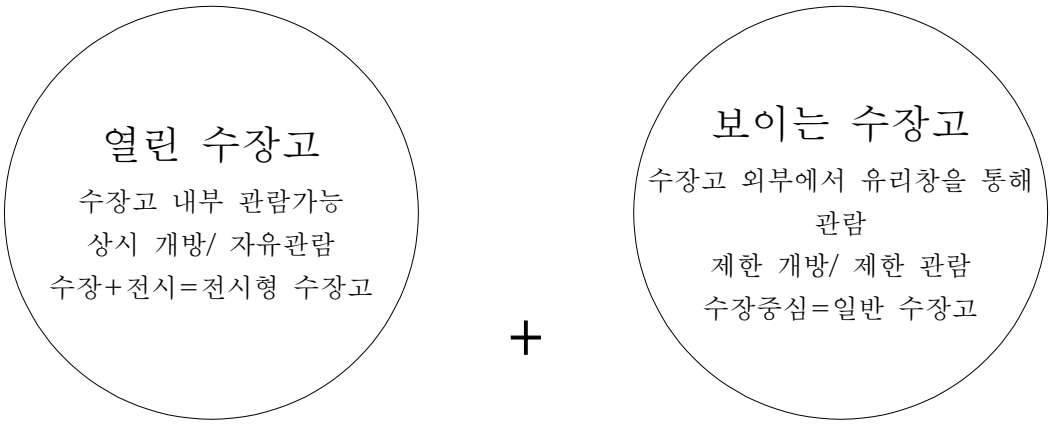
보이는 수장고	• 외부에서 유리 너머로 소장품을 관람하는 형태의 수장고로 보존과 전시의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개념임 • 일반적으로 소장품에 대한 설명 없이 고밀도로 배열된 전시형태이며 수장고 일부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함 • 국립고궁박물관 열린수장고, 국립나주박물관 등
오프사이트 수장고	• 유물의 수량이 증가하면서 박물관과는 다른 장소에 수장고를 설치하는 경우로 보존과학, 공공교육, 전시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 • 대표적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수장고,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가 있음
공동수장고	• 국공립 박물관 공통으로 수장고를 마련해 한 곳에 유물을 보존하는 형태의 수장고로 보존 및 복원, 관리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수장고로서 기능을 강화시킴 • 대표적인 사례로 충청권 출토유물의 통합수장고인 국립공주박물관 수장고, 강원도 횡성에 건립되는 서울시 통합수장고 등이 있음

3) 개방형 수장고 사례

■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 국립민속박물관은 보존을 위한 닫힌 수장고에서 벗어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수장고를 지향하여 2021년 7월 파주 헤이리에 '개방형 수장고'를 오픈함

- 수장고 내부를 직접체험할 수 있는 7개의 '열린 수장고'와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 상시 관람할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 3개, 그리고 비개방형 수장고 6개로 운영됨
- 보존하는 수장고에서 벗어나 보이는 수장고, 체험하는 수장고로 수장고 본연의 기능을 지키면서 '공개'와 '활용'을 통한 '공유'의 공간을 만들어 감



[그림Ⅳ-22]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

■ 국립공주박물관 열린수장고

- 국립공주박물관은 연면적 5천768㎡에 최대 150만 점 보관할 수 있는 열린수장고를 2021년 개관함. 충주권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해 마련된 수장고는 수장시설 외에 관람, 휴게, 유물등록 및 촬영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수장고는 6개로 그중 4개는 관람이 허용됨

국립공주박물관 열린수장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열린수장고	빅토리아앤알버트뮤지엄 수장고

[그림Ⅳ-23] 열린수장고 사례

다. 제안3-어린이박물관

1) 어린이박물관의 정의

- 미국박물관연합에 따르면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욕구와 흥미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정의 내리고 있음
-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본적 기능 중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으로 유물중심에서 벗어나 아동발달과 체험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박물관임

2) 어린이박물관의 수요증가

- 어린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탐색하며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박물관으로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박물관과는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실제 박물관 관람객 비중 중 어린이 관람객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박물관의 시설들은 성인 관람객을 기준으로 설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박물관을 부수적인 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었음
- 최근 박물관의 어린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린이 전문박물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어린이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박물관 방문목적은 ‘자녀 교육을 위해’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적 체험을 위해(64.7%), ’가족, 지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24.2%), ‘여가 휴가를 위해(19.9%)’ 순으로 나타남
- 검단신도시의 경우 30~40대 가족구성원의 비중이 높으며 9세 이하 어린이가 증가하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측됨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와 같이 자녀교육 목적 방문이 가장 높을 것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검단어린이박물관’

- 놀이와 배움을 지향하는 핸즈온(hands-on)박물관
-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
- 검단신도시박물관을 모 박물관으로 하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박물관전문가, 유아발달전문가 등이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경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
- 학교 및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 및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어린이 문화공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 동반 성인을 배려한 가족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미국 어린이창의성박물관
(Children's Creativity Museum)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공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그림Ⅳ-24] 어린이박물관 사례

5. 조사연구 계획 및 국내·외 교류방안

5.1 소장품 수집 및 관리방안 연구계획

가. 소장품 수집방향 및 범위

1) 수집방향

■ 수집·보존·활용의 연계성을 고려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유물은 인천 검단지역 출토유물 12,081점과 검단선사박물관이 보유한 소장품 4,419점으로 총 16,500점임

° 도시개발에 따른 인천지역의 문화재 발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유물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인천 서북부 검안신도시, 인천 동북부 계양신도시 추진 중)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확보된 유물 수는 많으나 주로 청동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음에도 청동유물이 한 점도 발굴되지 않았으며 근현대 전시물의 경우 새롭게 유물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박물관의 유물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유물의 수집, 대여, 복제가 이루어져야 함

2) 수집범위

■ 소장품 수집범위

°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전시, 교육,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이며 박물관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으로 박물관 특성과 고유한 문화 정립을 위해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계획 필요

° 수집 범위는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설립 및 활동목적, 성격 등을 반영하는 소장품으로 제한 (실물자료/복제자료/기록자료)

° 인천서북권 지역 및 검단관련 문헌, 서적, 사진, 물품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수집 추진

나. 소장품 확보방안

1) 유물 수집방법

■ 구입

° 박물관의 소장품 구입정책에 의거해 설립목적에의 부합 여부, 전시 및 연구 활용 가능성, 자료의 가치 및 진위, 가격 감정에 대한 조사·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수시로 소장품 공개구입을 추진하고 있음. 상설전 및 특별전에 활용하기 위해 각 전시실별 구매할 소장품의 주제와 시대, 종류를 정해 일 년에 2~3차례 공개구매를 실시함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개관전까지 각 전시실별 성격에 맞는 유물의 종류를 지정해 공개구입을 함으로 역사적 가치를 갖는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증

° 지속적인 자료 기증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 및 사후 기증(유증), 영구 기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증 방식 개발 필요

° 무엇보다 근현대 유물의 경우 대대적인 캠페인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검단 원주민, 행정기관, 기타 지방단체의 기증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 2026년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개관에 맞추어 대대적인 기증행사를 진행. 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정하고, 기증전을 여는 등 지속적인 기증행사를 추진과 기증문화 정착에 힘씀

■ 수탁

°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고 유물의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장기 또는 영구 기탁하는 방안

° 타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전시나 연구목적으로 유물을 장기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수탁자료를 통해 다양한 전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음

° 수탁자료 역시 기증받은 자료와 마찬가지로 활용 시 기탁자를 표시함

■ 이관(관리전환)

° 국립박물관 간에 소장품의 관리 주체를 이전하는 교환 또는 이관 방식을 통해 유물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박물관과 공동연구, 학술대회 진행을 통해 선사시대유물 성과에 대한 교류 및 자료수집, 이관 추진이 필요함

■ 대여

° 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소장품을 빌려 오는 방식

° 기존 소장품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시구성의 완전성과 전시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전시 및 연구를 위해 빈번히 이루어지는 전시품 확보방법 중 하나임

° 검단신도시박물관을 인천을 대표하는 고고학 전문박물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지역에서 선행된 발굴작업으로 확보된 유물을 이관 또는 대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2) 유물 수입대상

° 근현대시대 검단지역 유물은 개관을 전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증캠페인을 통해 확보함. 또한 검단신도시 관련 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유지들의 유물 기증활동을 독려함

° 검단발굴 유물 및 인천지역 발굴유물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유물의 대여 및 이관을 추진함

° 주요 유물 중 이미 다른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어 대여나 이관이 어려울 경우 복제를 통해 유물을 확보함

기증캠페인	유물의 대여 및 이관	유물 복제
개항 이후 검단신도시 이전까지 민속자료, 사진자료, 문헌	인천 송도에서 발굴된 신석기 빗살무늬토기 등 검단관련 문헌	청동기시대 청동유물, 조선시대 고지도, 고문헌

[그림Ⅳ-25] 검단신도시박물관 소장품 수집대상

5.2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아카이브 구축계획

가. ICT기반 전시자료 아카이브 구축

1)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 여러 단계의 인천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되어 분산된 발굴 유물과 발굴성과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천고고학의 허브 공간으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여러 발굴기관과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 및 발굴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이용해 전시기획,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홍보영상, 뉴미디어 제작에 활용하고 자 함
- 향후 인천지역에서 시행되는 발굴작업에 대한 기록, 발굴성과에 대한 연구,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콘텐츠를 ICT기반 아카이브에 저장함으로 영구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확립

2) 검단아카이브 운영목표

- 검단 아카이브는 인천지역의 고고학 발굴성과와 검단신도시 역사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 자료를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함
- 지속적으로 발굴되는 유물과 연구성과를 축척하여 체계적인 인천고고학 연구 기반조성
- 검단신도시의 건립 및 발전과정을 기록하는 검단신도시의 기억저장고
- 국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인천서북권 발굴기록물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고학 아카이브 허브구축
-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 등과 공동 활용체계 구축

3). 아카이브 업무 프로세서

■ 자료의 수집과 생산

- 조사·연구 사업과 유물 구입 및 수증 등을 통해 자료의 수집과 생산이 이뤄짐
  - 수집대상 : 인천서북권 지역 발굴 및 검단신도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유물 등 다양한 자료 일체
  - 협조기관 : 발굴기관, 인천시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 자료의 디지털화

- 수집·생산된 자료는 검단아카이브 시스템에 맞게 디지털화함. 조사연구 성과의 경우 디지털화된 사진, 도표, 영상 등의 시각자료로 산출되며(자료의 재가공 및 시각화),

유물의 경우 유물 관리 부서에서 고화질 스캐너 및 촬영 장비를 이용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공

■ 자료의 선별 및 메타데이터 작성

◦ 아카이브에 등록할 자료를 선별하고 자료에 대한 식별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작성. 메타데이터 작성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사례와 같이 자료를 수집·생산한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게 하여 중요 자료가 아카이빙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메타데이터 작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 등록

◦ 자료정리가 끝나면 아카이브 담당자는 메타데이터를 검수한 후 검단신도시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아카이브 시스템에 입력. 이용자들이 검단신도시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박물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함

■ 자료의 공개와 활용

◦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료 이용 절차를 간소화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박물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

■ 보존관리

◦ 디지털아카이브는 정기적인 백업과 DB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자료를 관리함

[표Ⅳ-23] 아카이브 자료관리 절차

아카이브자료수집	▶	정리 및 등록	▶	활용 및 서비스	▶	영구보존
·구입 및 수증 ·생산 -현장촬영·기록 소장자료 연계 생산 ·이관 -전시연구교육 등 업무 결과물 ·복제 유관기관 저작물 복제·이용권 협의	▶ ▶	-자료의 가공 및 시각화 -자료의 생산자가 작성 메타데이터작성 전산시스템등록		·자료통합검색 -내부아카이브시스템 검색 -외부서비스페이지제공 ·콘텐츠제작 -통합DB공개 및 원문제공 -주제별 콘텐츠 제작		정기적인 백업 DB점검 및 보완 저작권관리

나. 검단-e아카이브 구축

1) 검단발굴유물 및 관련 학술자료 DB 구축

■ 인천서북권 지역 학술자료 현황조사 및 분류체계구축

° 고고학 학술자료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아카이브 웹 서비스 및 콘텐츠 제작을 기획

° 기록물을 형태별, 주제별, 시대별로 계층화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축

° 기록물에 대한 해설 작성할 때는 일반인용 해설과 전문가용 해설, 영어해설로 구축

■ 관련기관 협력을 통해 자료 이관, 검증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자료를 이관받아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아카이브 구축체계에 맞게 자료검증, 재분류 및 재검증 작업을 시행함

2) 검단신도시박물관 아카이브용 콘텐츠 제작

■ 소장자료검색

° 박물관의 자료검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들이 검색되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메타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임. 특히 동영상의 경우 동적 메타데이터와 ICT 기술을 결합하여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소장자료 검색방법으로 '검색어' 입력과 더불어 시대별, 카테고리별, 자료의 형태별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 주제별 컬렉션

° 검단의 역사를 중요사건 및 기점을 기준으로 주제별 구성 제공. 즉 박물관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함으로 다양한 계층의 관람자들의 접근성을 높임

° <근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는 6.25전쟁, 교과서,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통신, 선거 5가지 주제로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음.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청동기주거지, 제사장의 역할, 외침과 검단, 매장문화 등의 주제를 정해 선별된 자료를 제공하는 2차 콘텐츠 제작이 가능함

■ 박물관 활동 기록

° 박물관의 전시, 교육, 연구를 통해 이관된 자료들을 카테고리화 하여 제공함

° 박물관의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을 포스터, 전시사진, 전시홍보영상, 메이킹영상, VR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로 생성하고 이를 아카이빙하여 제공함

° 박물관의 교육자료, 발간도서, 운영자료 등 '박물관 활동'을 통해 생성된 자료를 아카이빙하여 다시 전시와 교육자료 및 박물관 콘텐츠 개선자료로 활용함

3) 아카이브 웹 서비스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구축

° 아카이브 구축의 편의성·효율성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및 UI설계·개발

° 메뉴 및 화면, 메타데이터 입력 기능, 자료검색, 기타 등 아카이브 메뉴 구성 및 편리성 제공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대상과 연관성을 고려한 메타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 기능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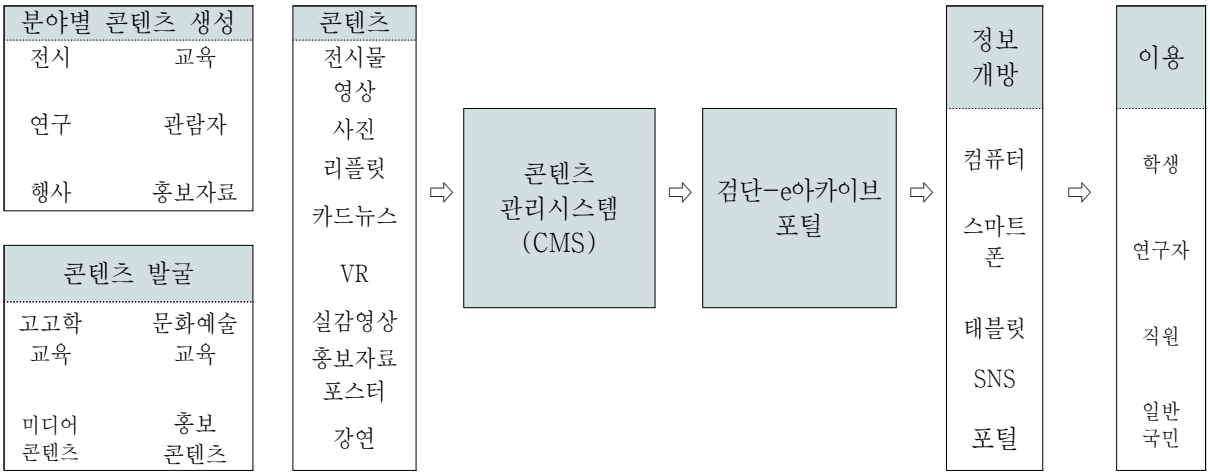
° 기록물 정보(서지 정보, 소장정보 등) 등록·관리 기능 구축

° 기록물 검색 및 조회기능 구현

- 기록물 대상 통합검색 기능
- 기록물별 상세검색 기능
- 검색 결과 출력 및 파일(Excel) 다운로드
- 자료 현황 조회 및 현황 시각화 화면 제공 등

° 자료 등록 업무 기능으로 일괄 등록, 업데이트, 출력(반출) 기능

° 접속기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데이터 기록 검색, 조회기능



[그림Ⅳ-26] 검단신도시박물관 아카이브 구성

다. 전시활용 방안

1) 3D 기반 VR전시관 구축

- VR전시관은 검단 발굴유물 외 타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요유물, 연구논문, 관련자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취득과 리얼리티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함
- VR전시는 전시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과 일부는 아카이브 웹서비스로 제공되는 VR전시관을 구현함. 웹서비스의 경우 모바일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전시관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선사·고대시대 생활상, 주거지 재현, 고고학 발굴과정, 고려시대 검단의 차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VR전시를 구현을 통해 인천서북권의 선사·고대시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 아카이브용 콘텐츠 제작

- 웹 아카이브는 정보의 접근성, 편리성, 정확성, 연관성을 고려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최신 IT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아카이브를 구현함
- 기록물 통합검색 기능과 그와 관련된 상세 기록물의 정보를 제공함
- 기록물 통합검색 기능의 경우 검색어 입력 방식 외에 시대별, 지역별, 주제별,

자료유형별 검색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함으로 검색의 편리성 제공

- 아카이브형 콘텐츠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따라 기획전 또는 특별전의 주제선정의 자료로 활용

3) 어린이 관람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 교과과정과 연계된 자료를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고, 박물관 캐릭터를 활용한 AR 큐레이터를 제공함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획
- 청동기인의 삶을 스토리텔링 하여 VR전시관과 웹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함으로 어린이 관람객이 고고학 콘텐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라. 아카이브 구축 사례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_근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

■ 운영목표 및 현황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의 수집·관리 및 서비스를 통하여 역사 기록 자원을 기반으로 근현대사 연구 및 기반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근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근현대문화유산 – 소장자료들의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통합검색
-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기록 – 대한민국 현대사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박물관 고유 저작물의 소장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근현대사 아카이브의 허브 – 유관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근현대사 기록물들의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대한민국 근현대사 아카이브의 허브를 구축
- 박물관 기록물 보존 – 전시·연구·교육 등 박물관의 다양한 사업 과정과 결과를 기록·보존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자원을 축적해 나가고 있음

■ 업무절차

[그림Ⅳ-2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업무절차

° 2018년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는 구입·생산·이관 그리고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 33,057점의 디지털 기록물을 수집하여 12월 기준 총 108,929점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기록물의 저작권 보유자료 확대를 위하여 자체 생산 사업에 중점을 둠

° 2013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카이브 자료 구축현황은 총 수집수량 108,929점으로 이 중 77.5%인 75,399점 DB구축을 완료

° 2018년 거제시와 공동으로 6·25전쟁포로 아카이브자료 공개 기획전을 개최.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라는 전시 제목 하에 거제시가 확보하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 2천여 건을 공동활용으로 진행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화 정책방향

° 다양한 형태의 소장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소장유물과 아카이브 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 개발

°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과 운영

° 근현대사 자료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콘텐츠 가공과 재생산

°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 등과 공동 활용체계 구축

2) 국립민속박물관_민속아카이브

■ 운영목표 및 현황

° 민속아카이브는 민속의 기록보존을 위해 2007년에 개소하여 민속·생활문화 ·인류학·박물관학과 관련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 (기증/자체생산)하여 연구·전시·교육·열람에 활용하고 있음. 민속아카이브는 공공의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순수 아카이브와는 달리 박물관 소장품의 정보를 풍부하게 지원하고, 박물관 활동 및 주제연구를 뒷받침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하는 전문 아카이브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통해 민속의 다양한 기록물 보존과 공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소장 아카이브자료 현황

- 사진 977,654점/ 음원 7,244점 / 영상 11,667점 / 문서 등 기타자료 14,821점 약 1,000,000점 (2021. 5. 31. 기준 수집현황)

■ 파주민속아카이브

° 민속아카이브가 수집한 100만 점 이상의 민속자료(사진, 음원, 영상, 출판물 등 온라인 비공개자료 포함) 열람이 가능하며, 국립민속박물관 발간도서 2,000여 권과 민속과 역사 문화 관련 500여 권의 아동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민속아카이브 상설전시

민속아카이브 열람실

민속아카이브 영상자료 열람석

[그림Ⅳ-2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3) 서울역사박물관_서울역사아카이브

■ 운영목표 및 현황

° 서울역사아카이브는 박물관 개관 이래 축적된 서울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존하고자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은 2014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처음 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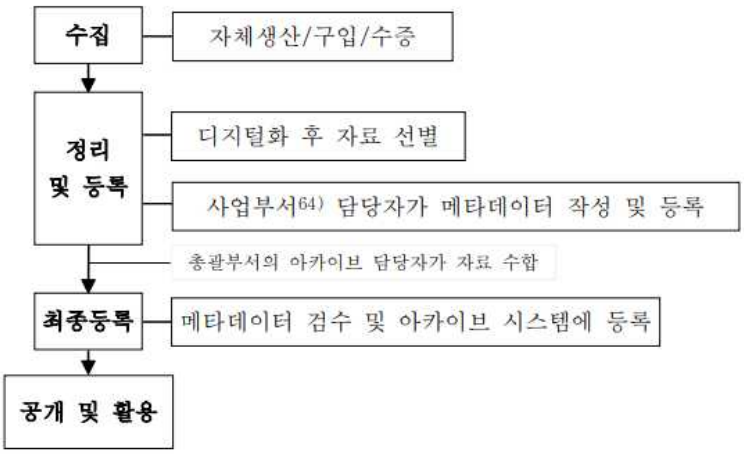
- 서울학자료의 지속적 축적을 통한 체계적 서울학연구 기반조성
- 서울에 집중된 디지털 기억저장고 구현
-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한 박물관 공공성 제고

[표Ⅳ-24] 서울역사아카이브 자료현황(2021.11.16.)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서울시정사진	서울지도
11,931건	3,657 건	592 건
근현대서울사진	서울발굴기록	서울미래유산기록
5,463 건	1,795 건	211 건

■ 업무절차

- **자료의 수집과 생산** – 조사연구 사업과 유물 구입 및 수증 등을 통해 자료의 수집과 생산이 이뤄짐
- **자료의 디지털화** – 수집·생산된 자료는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맞게 디지털화하는데, 조사연구 성과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화된 사진, 도표, 영상 등의 시각자료로 산출되며, 유물의 경우 유물관리과에서 고화질 스캐너 및 촬영 장비를 이용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조사연구과로 제공
- **자료의 선별** – 아카이브에 등록할 자료를 선별하고 자료에 대한 식별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작성. 이 작업은 해당 자료를 수집·생산한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데, 중요 자료가 아카이빙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메타데이터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임
- **최종등록** – 자료 정리가 끝나면 아카이브 담당자는 메타데이터를 수합해 검수한 후 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아카이브 시스템에 입력. 이용자들이 서울역사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함
- **자료의 공개와 활용** –서비스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료 이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누구나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고, 2016년부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도입해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박물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Ⅳ-29] 서울역사아카이브 업무 프로세서

■ 아카이브 콘텐츠

°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서울의 특징적 공간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글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세밀하게 기록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

° 서울시정사진 – 2006년 1월,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 언론담당관으로부터 시정 사진기록 원본 필름 58만여 컷을 이관 받아 아카이브 구축

° 서울지도 – 서울역사박물관은 다양한 소장품 중에서 1,000여 건의 방대한 지도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를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

° 근현대서울사진 –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서적 및 사진첩 등 50여 개 유물에 수록된 근현대 시각자료를 정리

° 서울발굴기록 – 서울역사박물관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발굴조사과정에서 촬영된 현장사진들과 유물사진을 모아 '서울발굴기록'에 공개

° 서울미래유산기록 – 2020년부터 서울시가 선정하고 있는 서울미래유산 중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는 노포(老鋪)와 전통산업을 심층 조사하여 기록하기 시작

■ 아카이브 자료 활용

° '20년 공공누리 다운로드 : 24,275건/ 누적자료조회 2,009,660건

◦ 이용 경향 분석

- 주이용자는 개인 이용자가 월등히 많음(92.5%)
- 활용목적은 연구(48.7%)와 교육(19.4%)에 집중되어 있음
- 활용주체 : 개인 > 단체 > 기타 순

◦ 박물관에서 수집·생산하여 등록을 마친 아카이브 자료들은 박물관 및 연구소 등의 기관과 개인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한다. 박물관 관내에서도 아카이브 자료는 전시, 교육자료, 출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 서울역사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교육활동지를 통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전시 관람을 통한 박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역사아카이브 활용 중 특징적인 것은 TV 프로그램에 자주 활용되는 양상을 보임

5.3 국내외 교류방안

◦ 박물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외 관계망 확장과 해외 전시 활성화, 학술교류 심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적교류, 해외박물관과의 국제협력 사업 등을 발굴해 박물관의 국내외 교류 역량을 확장해 나가야 함

가. 조사 및 연구활동

1)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

◦ 검단신도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에 담긴 인천서북권 지역과 검단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련 사료와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함

◦ 이런한 연구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상설 및 특별전시, 체험프로그램, 학술교류 등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물을 축적함

◦ 연구성과는 도서로 발간하고, 향후 검단신도시박물관의 유물수집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2) 검단지역의 지역사와 인물에 대한 연구

◦ 검단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 김포 일대에 행정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

◦ 또한 신도시 개발로 급속한 변화를 인구교체 및 지형변화로 인해 검단의 근현대사에 대한 사료가 빠른 속도록 사라지고 있음. 따라서 검단 원주민을 대상으로 검단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인물, 지명 등과 관련된 사진, 구술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함

3) 고고학 연구의 기초마련

■ 고고학 네트워크 조성

◦ 검단신도시박물관을 '인천고고박물관'으로 정체성을 정립하고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고학 인력풀에 대한 네트워크, 고고학 연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전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 학예조직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정 및 정례화된 학술대회 개최, 축제 진행 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홍보

4)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관람객의 만족도 체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

° 전시관 내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은 처음 설계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체험자들의 경험에 대한 리소스를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 특히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어린이체험관, 메이커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 체험 중심의 시설이 많으므로 관람자의 체험에 대한 리소스를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여 관람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각 체험기구의 사용빈도, 관람객의 선호도 조사 등 일상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체험자들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리소스를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 방문후기 수집,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나. 학술활동 계획

1) 학술활동의 목표와 범위

° 검단신도시박물관이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 도구의 발달과 활용과 발전사에 대한 연구, 검단신도시 역사에 대한 연구, 고고학 연구와 대안 제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가 필요한 상태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물관의 역량, 인력,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분야의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 따라서 검단신도시박물관은 학술연구기관, 대학교 관련학과, 국내·외 박물관과 협력을 통해 학술대회 개최, 국제포럼 진행 등을 통해 박물관의 전문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홍보, 기획 섭외 등의 역량이 필요하며,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의전, 통역, 행사장 및 뒤풀이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 운영 기획이 요구됨. 또한

자료집 번역, 편집, 출판 등이 활동이 수반되어야 함. 따라서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전문기관에 외주를 활용, 인천시 박물관 연합의 지원 등의 모색이 필요함

2) 학술활동 수행방법

■ 정기 학술대회 및 포럼

° 정기 학술대회는 보통 연 1회 정도 진행되는 대규모 학술대회로 학술회 구성, 섭외, 진행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따라서 필요하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외주 기획사를 통해 진행을 위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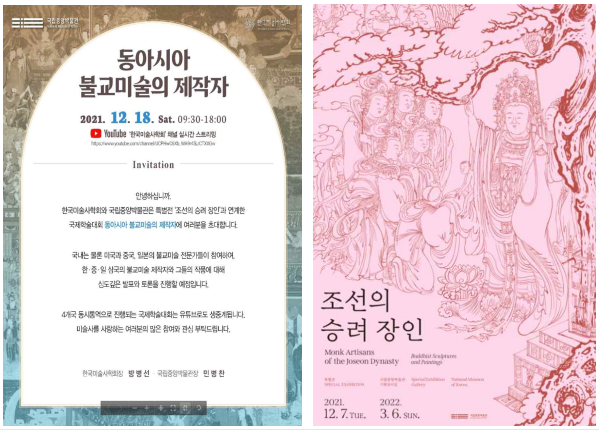
° 워크숍 및 포럼은 규모나 형식에 있어서 정기학술대회에 비해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우며 개최 준비에 부담이 적은 편임.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국제고고학포럼, 고고학 페스티벌, 청동기 문화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전시품 도록 발간 - 학술대회, 전시회 활동을 기록하는 도록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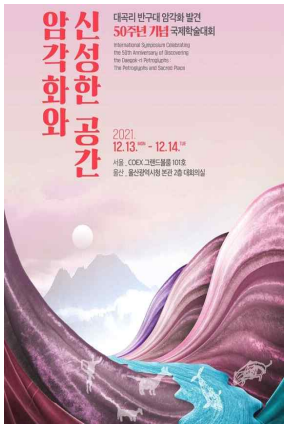
■ 전시연계 학술대회

° 특별전의 기획 단계에서 학술대회를 함께 추진하여 전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시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

° 전시회 개관 전후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거나 온라인박물관에 전시함으로 홍보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음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 연계-온라인 국제학술대회(2021.12.8)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조선의 승려장인(2021.12.7.~2022.3.6)



'암각화와 신성한 공간'
반구대암각화 발견 50돌을 맞아 특별전, 학술대회를 개최(2021)

[그림Ⅳ-30] 전시연계 학술대회 사례

■ 교류협정을 통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 타 박물관 또는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 조사·연구 활동에 대한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2021년 12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이 타 기관의 협력을 통한 공동학술대회였음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경우 신생박물관으로 축적된 연구성과가 없으므로 고고학과 인천지역사에 대해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를 갖고 있는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술활동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음

■ 해외 박물관과의 교류협정

° 최근 여러 박물관들이 자체적인 콘텐츠의 한계, 학술연구 활동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의 다양한 박물관 및 해외박물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고고학 학문의 특성상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 인류의 기원과 진화 과정, 도구의 발전, 인류의 이동 등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구성과에 대한 교류활동이 필요함

° 해외박물관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공동기획을 통한 상호교류전 개최함

° 국내 유일의 고고학박물관으로서 해외박물관과의 교류협력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물관 자체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 도서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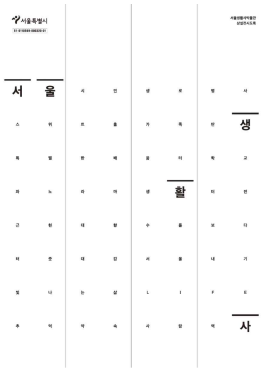
° 박물관에서는 전시회를 기록하도록 작성, 연구 및 발굴 성과를 발표하는 조사보고서, 소장유물에 대한 연구결과 출판 외에 박물관의 주요 활동 및 소식을 정하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함

° 최근에는 실제 종이책으로 출판하지 않고 e-book으로 제작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도 많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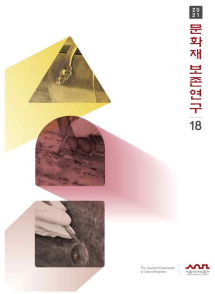
° 서울역사박물관은 연 1회 'MUSEUM REVIEW'를 e-book으로 발간하여 현재 박물관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함. 문화재 보존연구 성과를 발간함으로 보존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유적발굴총서를 통해 발굴기록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민속소식지-월1회 발간

지역조사보고서



상설전시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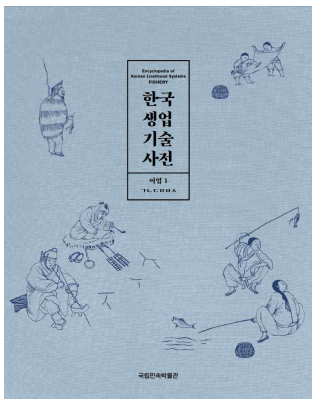


문화재보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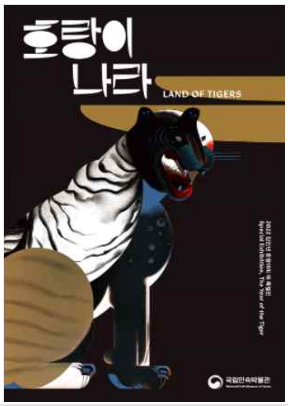
[그림Ⅳ-31] 서울역사박물관 발간자료

°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정기간행지를 월 1회 발간하고 있으며 전시도록, 학술자료 외 전국 민속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다수 발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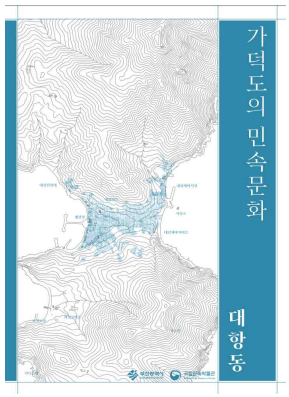
민속소식지-월1회 발간



학술자료집



전시도록



조사보고서

[그림Ⅳ-32]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자료

6. 검단신도시박물관 MI(안)

1) Museum Identity Design 개발 방향

■ 박물관 아이덴티티는 관람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정체성과 목적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

■ 독창적인 아이덴티티의 구축은 급변하는 시대에 검단신도시박물관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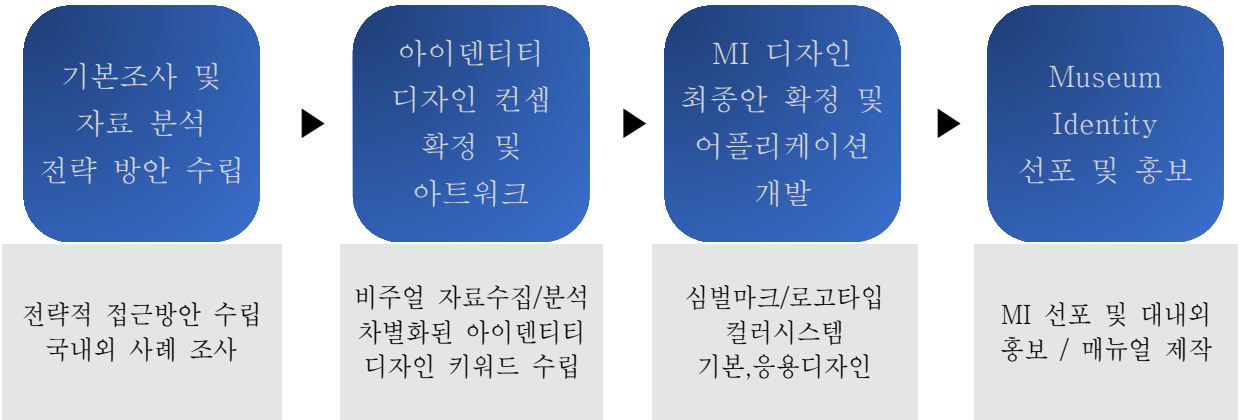
- 오늘날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은 유물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과거를 넘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있음
- 관람객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즐겁고 친숙한 장소로 거듭나고 있음
- 이제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뿐 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관람객과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필요.

2) 박물관 MI디자인 사례

[그림Ⅳ-33] 박물관 MI디자인 사례

3) 박물관 MI디자인 프로세서

- 검단신도시박물관의 MI Museum Identity의 아이덴티티 분석을 통한 특성 도출을 거쳐 향후 아이덴티티 디자인개발 방향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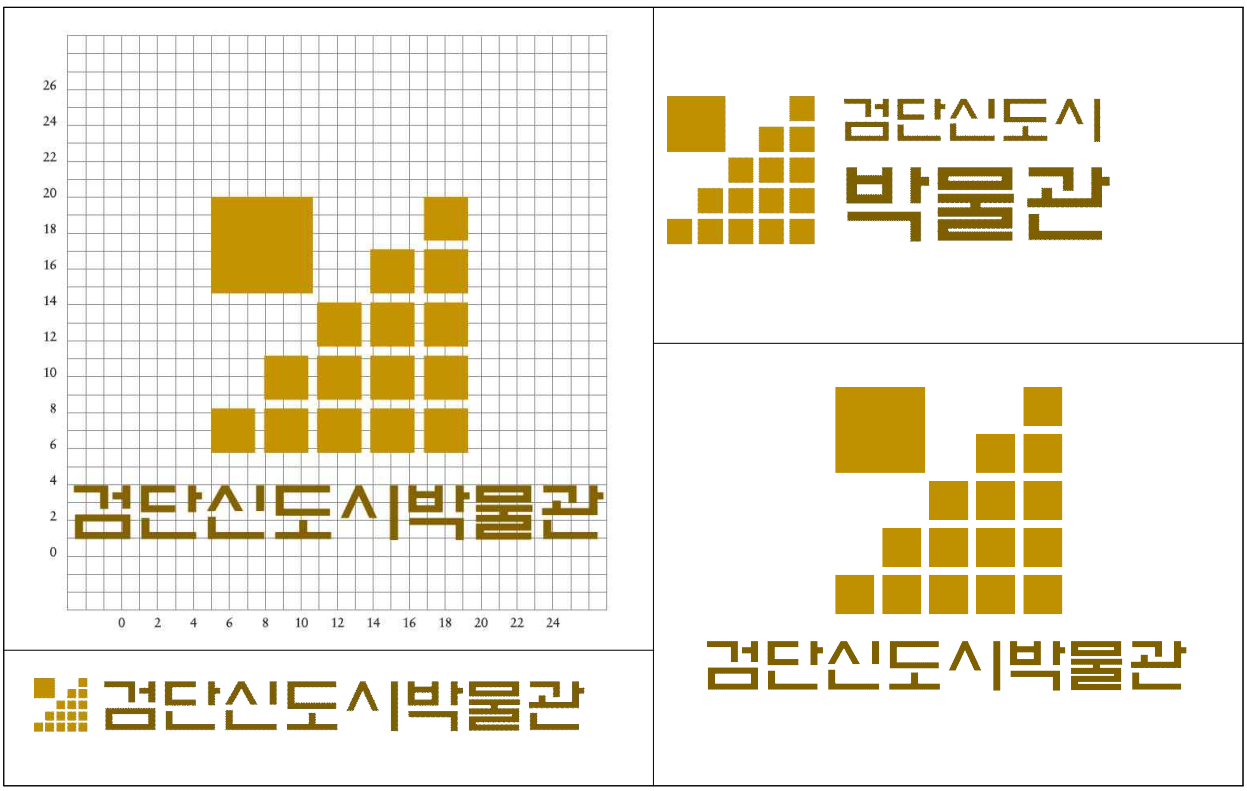


[그림Ⅳ-34] 박물관 MI디자인 개발 프로세서

4) 검단신도시박물관 MI(안)

° 땅과 시간과 삶이 축적되어 만들어 가는 미래의 검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전시공간을 넘어 새로운 삶과 문화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모두의 공간을 의미

■ 1안



[그림Ⅳ-35] 박물관 MI디자인 1안

■ 2안

[그림Ⅳ-36] 박물관 MI디자인 2안

■ 3안

[그림Ⅳ-37] 박물관 MI디자인 3안

7. ‘특별전시’추가인력산정(안)

가. 특별전시 대상공간

[표Ⅳ-25] 특별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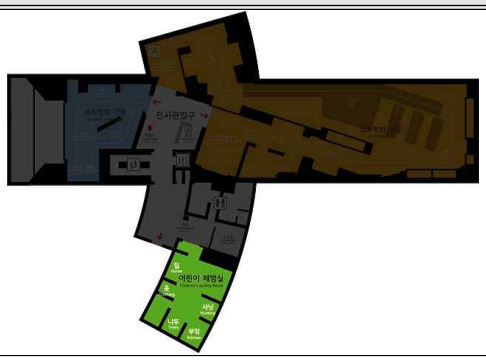
시설명	면적
어린이체험관	356.40㎡
메이커스페이스	265.68㎡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187.92㎡

나. 유사사례 분석

1) 어린이체험관

[표Ⅳ-26] 어린이체험관 운영사례

시설명	주요공간	면적	운영인력
시흥오이도 박물관		822㎡	1명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겸직)
수원박물관	 1일 7회 운영(회당 50분)	187㎡	1명 (홍보 및 대외협력 겸직) * 연간 1000만원 운영비 소요

시설명	주요공간	면적	운영인력
정관박물관		153㎡	2명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겸직)

2) 메이커스페이스+크리에이터스튜디오

[표Ⅳ-27]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인력 사례

시설명	주요공간 및 프로그램, 장비	면적	운영인력
고양어린이 박물관	뮤지엄랩(크랩 1·2, 키친랩, 미디어랩, 키즈랩, 아트랩) - 3D프린터 공간(42㎡), 회의실(42㎡), 집진 및 공조실(8㎡) 레이저 및 컷팅실(20㎡), 커뮤니티 공간(100㎡), 패브릭(미싱)공간(28㎡), 사무공간(12㎡), 창고(18㎡) - 3D프린터, 3D프린터 표면처리기, 레이저커팅, PC컴퓨터, 소형공구 및 소모품, 전자재봉기	270㎡	2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광진정보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교육장(웹툰창작체험관), 메이커스페이스 작업장(팹 라이브러리) - 3D 모델링 및 프린팅, e-book 스토리텔링 스튜디오, 드라마작가양성, 드론 교육, 디지털스토리텔링, 스마트폰 영화제작, 시나리오 창작, 시니어자서전, 아두이노 활용교육, 오토마타 메이커, 웹툰 창작, 코딩교육, 포토에세이 등 운영 미디어창작공간 - 촬영시스템(캠코더, 크로마키 배경, 프롬프터, 스튜디오PGM모니터 70인치), 음향시스템, 특화시스템, 조명시스템, 소프트웨어(어도비 프리미어프로, ZOOM, MS-OFFICE) 구비	119㎡	2명 (공간운영 1, 프로그램운영 1)
고산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생애주기별 메이커 프로그램(코딩, 3D프린팅, 아두이노 등) 노트북 16대, 3D프린터(중형) 2대, 3D프린터(소형) 7대, 3D 스캐너 1대, 3D 펜 10대	50㎡	1명 (프로그램운영 1)

다. 검단신도시박물관 인력산출

1) 주요업무

■ 어린이체험관

- ° 어린이체험관 운영계획 수립
- ° 상설전시 및 체험시설 기획
- ° 어린이체험실 프로그램 관리 및 어린이체험콘텐츠 지도
- ° 체험실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 안전관리
- ° 어린이체험관 이용예약 확인 및 체험료 징수

■ 메이커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평가
- °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예약확인 및 공간관리
- ° 공간 및 장비/기기유지

* 체험형 단기프로그램, 기본적인 기기활용, 워크숍프로그램 등은 운영강사(사업비) 활용

2) 업무량 산출

구 분	세부 업무내용	업무량 산출 (소요시간)	소요인원
기 준		1인 × 8h × 240일 = 1,920h	1명
어린이체험관	운영계획 수립	2h × 50일 = 100h	0.05
	상설전시 및 체험시설 기획	4h × 30일 = 120h	0.06
	프로그램 관리 및 체험지도	7h × 240일 = 1680h	0.88
	시설청결유지 및 안전관리	1h × 240일 = 480h	0.13
	예약확인 및 체험료 징수	1h × 240일 = 480h	0.13
소 계		2,380h	1.24
메이커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운영계획 수립	2h × 50일 = 100h	0.0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6h × 60일 = 360h	0.19
	교육프로그램 운영	4h × 240일 = 960h	0.50
	사례연구 및 홍보활동	4h × 160일 = 640h	0.33
	프로그램 운영지원	4h × 240일 = 960h	0.50
	예약확인 및 안내	4h × 240일 = 960h	0.50
	안전관리 및 장비/기기유지	1h × 240일 = 240h	0.13
소 계		4,220h	2.20

라 검단신도시박물관 인력(안)

■ (어린이체험관) 공간관리는 '전시과'의 학예인력 담당 (기존인력)

° 체험운영은 '전시과'의 공무직 담당 (1명 증원)

■ (메이커스페이스+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프로그램 계획 및 공간운영 '교육과' 학예인력 담당 (1명 증원)

° 프로그램 운영보조 '교육과' 공무직 담당 (1명 증원)

구 분	담당업무	직위	직급	기존 인력(명)	조정 인력(명)
관장	박물관 중장기정책수립 및 경영총괄	박물관장	4급 학예연구관	1	1
기획 운영과	기획운영과 업무총괄, 인사관리	기획운영과장	행정5급	1	1
	예산집행 및 결산, 회계	주무관	행정6급	1	1
	박물관 시설 유지 및 보수	주무관	공업6급 7급	2	2
	고객서비스 관리 총괄	주무관	행정7급	1	1
	박물관 고객안내	공무직		3	3
	환경미화	시설관리공단		4	4
	경비·방호	청원경찰		4	4
유물 조사과	학예연구 총괄	과장	학예연구관	1	1
	연구조사 및 아카이브	주무관	학예연구사	2	2
	유물 수집 및 보존관리	주무관	학예연구사	2	2
	유물조사과 업무 지원	공무직		2	2
전시과	전시과 총괄	과장	학예연구관	1	1
	상설전시 기획·운영	주무관	학예연구사	2	2
	기획전시 기획·운영	주무관	학예연구사	2	2
	영상실, VR영상실, 어린이체험관 기획·운영	**주무관**	**학예연구사**	**1**	**1**
	전시과 업무 지원	공무직		2	3
교육과	교육과 총괄	과장	학예연구관	1	1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기획 및 운영	주무관	학예연구사	2	2
	문화행사 개발 ·기획 및 운영	주무관	학예연구사	2	2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주무관**	**학예연구사**	**-**	**1**
	교육 행사과 업무 지원	**공무직**		**3**	**4**
참여 홍보과	참여홍보과 총괄	과장	행정5급	1	1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	주무관	행정6급	1	1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기관 협력, 기부·협찬관리	주무관	행정7급	1	1
	정보화 디자인(홈페이지,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주무관	전산 6급	1	1
	참여기획과 업무 지원	공무직		1	1
합 계				45	**48**

8. 전시공사 로드맵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12">1차년도</th><th colspan="4">2차년도</th></tr>
<tr><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r>
<tr><td>전시시설</td><td rowspan="7">협상 및 계약</td><td colspan="2">기본구상</td><td rowspan="7">기본구상 완료 및 확정</td><td colspan="3">시설물 기본설계</td><td rowspan="7">기본설계 완료 및 확정</td><td colspan="8">시설물 실시설계</td></tr>
<tr><td>쇼케이스/ 수장대</td><td colspan="2">기초자료 분석</td><td colspan="3">시설물 기본설계</td><td colspan="8">시설물 실시설계</td></tr>
<tr><td>패널 및 사인</td><td colspan="2">자료조사 및 기획</td><td colspan="3">기본디자인 및 원고초안</td><td colspan="8">세부 디자인 진행</td></tr>
<tr><td>전시모형</td><td colspan="2">연출 구상 및 보완</td><td colspan="3">기본디자인 선정</td><td colspan="8">상세디자인 작성</td></tr>
<tr><td>영상 HW & SW</td><td colspan="2">기획에 따른 사례조사</td><td colspan="3">기본 시나리오 작성 / 하드웨어 사양 선정</td><td colspan="8">세부 설계 및 시나리오 작성 / 하드웨어세부사양확정</td></tr>
<tr><td>정보영상 HW & SW</td><td colspan="2">기획 및 방향설정</td><td colspan="3">기본 시나리오 작성 / 하드웨어 사양 선정</td><td colspan="8">세부 설계 및 시나리오 작성 / 하드웨어 세부사양 확정</td></tr>
<tr><td>조명 및 마감계획</td><td colspan="2">사례조사 및 현황</td><td colspan="3">기본설계</td><td colspan="8">실시설계</td></tr>
<tr><td>공 정</td><td>계약</td><td colspan="3">기획 및 검토</td><td colspan="12">기본 및 실시설계</td></tr>
<tr><td>추진단계</td><td>업체선정</td><td colspan="3">기본계획 및 건축시설 선제검토
콘텐츠기본계획의 단계별 검토
전시물기획단계 콘텐츠 검토
전시물디자인단계 실효성 검토</td><td colspan="12">콘텐츠, 기획, 디자인, 미디어 콘텐츠 분야로 구분하여 체크요소 및 교육체험프로세스 검토
전시콘텐츠와 기획 ,디자인, 음향, 색채계획에 대한 리뷰실시</td></tr>
<tr><td>추진단계별 투입조직</td><td>용역사</td><td colspan="3">사업총괄:
사업일정계획 수립
워킹그룹:실무 워킹그룹구축
업무협의:실무 회의 및 기본계획</td><td colspan="12">기본설계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기획 및 디자인
내역검토 및 전체 콘텐츠조정</td></tr>
</table>

<table>
<tr><th colspan="8">2차년도</th><th colspan="12">3차년도</th></tr>
<tr><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th><th>26</th><th>27</th><th>28</th><th>29</th><th>30</th><th>31</th><th>32</th><th>33</th><th>34</th><th>35</th><th>36</th></tr>
<tr><td rowspan="7">원가조회도면검수</td><td rowspan="7">원가내역작성및/실시설계납품</td><td colspan="3">설계검토 및 보완</td><td colspan="3">천장 및 벽체 구조물 공사 /하우징 제작</td><td colspan="5">구조물 설치</td><td colspan="3">마감재 설치 및 컬러 마감</td><td rowspan="7">현장 반입 및 설치</td><td colspan="3" rowspan="7">시범 운영</td><td rowspan="7">개관</td></tr>
<tr><td colspan="3">설계검토및보완</td><td colspan="3">공장제작</td><td colspan="5">현장구조물 설치</td><td colspan="3">마감재 연출</td></tr>
<tr><td colspan="3">자료 편집 및 스캐닝</td><td colspan="6">문안, 시안 작업 수정 및 보완(1차 자문)</td><td colspan="6">원고 작업 및 세부작업 (2차 자문)</td></tr>
<tr><td colspan="3">제작도면작성 시스템 검토</td><td colspan="6">MOCK-UP 제작</td><td colspan="2">자문</td><td colspan="3">발주 및 제작 완료</td></tr>
<tr><td colspan="3">시나리오 작업</td><td colspan="8">영상촬영 및 CG, 편집, 더빙 / 장비사양 확인 및 발주</td><td colspan="2">시연 및 최종수정</td><td>제작 완료</td></tr>
<tr><td colspan="3">시나리오 작업</td><td colspan="8">영상촬영 및 CG, 편집, 더빙 / 장비사양 확인 및 발주</td><td colspan="2">시연 및 최종수정</td><td>제작 완료</td></tr>
<tr><td colspan="3">장비사양 확인</td><td colspan="8">현장배관 및 배선 샘플결정</td><td colspan="2">전열작업</td><td></td></tr>
<tr><td></td><td></td><td colspan="15">제작 및 설치</td><td>납품</td><td colspan="3">시범 운영</td></tr>
<tr><td colspan="2">기본 및 실시 설계종료</td><td colspan="15">전시시설, 전시연출, 체험컨텐츠 3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집단 투입
전시시설: 각 분야별 디스플레이, 규격과 상태, 조명, 전시환경, 음향, 영상 등을 점검
전시연출:전시평면구성,동선,시설검토,색채검토,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분야별 제작일정검토
체험콘텐츠 : UX, UI디자인, 운영 안정성 등에 대해 안정성 테스트</td><td>제작 설치 종료</td><td colspan="3">시범운영
관리운영
테스트
전시운영
테스트
관람객
체험분석</td></tr>
<tr><td>운영관리 실무자 의견 수렴 설계수정 및보완 제작설치 일정수립 및체크</td><td colspan="15">의장공사
모형공사
영상하드웨어 및 영상소프트웨어
진열장 및 조명공사등</td><td>시범운영 유지관리 메뉴얼 운영 시스템 테스트</td><td colspan="3">시범운영
요구분석
수정사항체크
수정보완</td></tr>
</table>

■ 참고문헌

◦ 논문

- 박형제(2017년),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곽서윤(2021년), 「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활용 분석을 통한 관람객 개발의 새로운 접근」
- 도경민, 정윤희(20174년), 뮤지엄의 개방형수장고 해외사례 연구
- 박수빈(2021년), 「메타버스형 가상 박물관 사례연구에 따른 발전방향 제언」
- 이희진(2020년), 고고학 유적 박물관의 능동적 운영 사례

◦ 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2021년),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 서울특별시(2016), 서울공예박물관_소장품_수집·전시_및_운영방안_연구
- 인천시청(2021)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 국립중앙박물관+어린이박물관+전시실개편+연구용역
- 국립중앙박물관(2007년), 「박물관협력망+운영활성화+방안+연구」

◦ 자료집

- 검단선사박물관, 「그래서, 검단」
- 중부고고학회, 「인천 검단의 고고학 발표자료집」
- 서울역사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 운영규정」

◦ 웹사이트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http://www.nfm.go.kr)
-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hangeul.go.kr/main.do)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museum.go.kr)
-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gogung.go.kr/main.do)
-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seoul.go.kr)
- 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jgpm.ggcf.kr/)
- 시흥오이도박물관 홈페이지(https://oidomuseum.siheung.go.kr/)
- 하남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hnart.or.kr/museum/index.do)
- 서울공예박물관 홈페이지(https://craftmuseum.seoul.go.kr/main)
- 검단선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museum/MU030101)